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7
사사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사 사 기

Judges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

בַּיָּמִים הָהֵם אֵין מֶלֶךְ בְּיִשְׂרָאֵל אִישׁ הִנָּשָׂר בְּעֵינָיו יַעֲשֶׂה׃

사사기
2020년

사사기 차례

사사기 서론	〈16제〉	163
제 1 장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18제〉	168
제 2 장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	〈22제〉	174
제 3 장 옷니엘, 에훗, 삼갈의 활약	〈22제〉	180
제 4 장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	〈19제〉	186
제 5 장 드보라의 노래	〈20제〉	191
제 6 장 미디안의 압제와 기드온의 소명	〈20제〉	197
제 7 장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24제〉	203
제 8 장 기드온의 승리와 타락	〈19제〉	209
제 9 장 아비멜렉의 반역과 멸망	〈20제〉	215
제 10 장 이스라엘의 또 다른 범죄	〈15제〉	221
제 11 장 입다가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다	〈23제〉	225

제 12 장	입다와 3인의 소사사(小士師)	〈16제〉	… 231
제 13 장	삼손의 출생	〈18제〉	… 236
제 14 장	삼손의 결혼과 실패	〈16제〉	… 241
제 15 장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	〈19제〉	… 246
제 16 장	삼손과 들릴라	〈19제〉	… 251
제 17 장	미가의 우상 숭배	〈11제〉	… 257
제 18 장	단 지파의 이주	〈17제〉	… 261
제 19 장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하다	〈22제〉	… 266
제 20 장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	〈18제〉	… 272
제 21 장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화목	〈14제〉	… 278

사사기 특별 자료 차례

사사기 서론 〈연구 자료〉 사사	167
-------------------------	-----

제 1 장	〈연구 자료〉	블레셋에 대하여	173
제 2 장	〈화보 자료〉	아스다롯 여신상	179
제 3 장	〈본장의 요절〉	185
제 4 장	〈본장의 요절〉	190
제 5 장	〈화보 자료〉	가나안인의 철병거	196
제 8 장	〈화보 자료〉	가시나무	214
제 11 장	〈본장의 요절〉	230
제 12 장	〈지도 자료〉	사사들이 통치했던 중심지로 알려진 9개의 성읍과 12사사들이 살던 지역	235
제 13 장	〈본장의 요절〉	240
제 14 장	〈본장의 요절〉	245
제 15 장	〈본장의 요절〉	250
제 16 장	〈연구 자료〉	나실인(nazirite)	256
제 17 장	〈연구 자료〉	새긴 우상(graven image)	260
제 21 장	〈본장의 요절〉	282

사사기 서론

1. ㉠ '사사기' 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 (1) 사사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지도자'란 뜻을 가진 <쇼펫>의 복수형인 <쇼페팀>이다.
 (2) 이 히브리어 제목은 여호수아 사후(死後)부터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지도자들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다.
 (3) 사사들은 예외적인 특징을 지닌 시민적, 군사적 통치자였으며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들이었다.
 (4) 그중 사무엘의 사사 직위는 유일하게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다. 사무엘 자신이 사사이기는 하나 전대의 사사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녔으며 그의 통치 권도 후반기에는 사울 왕국과 합병되었다.

2. ㉡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히브리어 <쇼펫>은 영어 'Judge' (심판자)보다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다. 고대 카르타즈(Charthage)와 우가릿(Ugarit) 문서에서는 <쇼펫>이 '지방 판사' 또는 '국가의 수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2) 우가릿 문서 이후 가나안 문헌에는 '우리의 재판자'란 뜻을 가진 <슈틴>을 '우리의 왕'이란 뜻을 가진 <물큰>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3) 그러나 성경의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와 구별되어야 한다.
 (4) 왜냐하면 잦은 이민족(異民族)의 침입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王)을 요구하게 하였지만 사사 시대에는 왕정에 대한 반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삼상 8장).
 (5) 즉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상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통치 질서를 무정부 상태로까지 타락시켰지만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6) 사사들은 군사 및 정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능을 행했다.
 (7) 11:27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란 뜻을 가진 <하스 쇼펫>으로 기록하고 있다.

3. ㉢ 본서(本書)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할 때에 룯기와 더불어 본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또한 초대 교회의 전승도 사무엘을 사사기의 저자로 보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것으로서 정확히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3) 따라서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본서의 저자는 사무엘 이거나 혹은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익명(匿名)의 선지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4.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고등 비평가들은 사사기의 기록 연대를 바벨론 포로 후에 편집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고등 비평가들은 B. C. 630년부터 B. C. 200년 사이에 사사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2) 그러나 위의 학설들은 근거 없는 것으로 문서설을 따른 것이다.
 (3)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있던 왕정 초기(王政初期)임이 분명한데 그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4) 먼저 실로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으며 (18:31)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17:6)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사 시대 이후임이 분명하다.
- (5) 또한 여부스족이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1:21)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기록 연대는 다윗이 여부스족을 몰아내기 이전일 것이다.
- (6) 게셀에 대한 언급(1:29)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가 이 땅을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주기 이전에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 (7)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사울 또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인 B. C. 1050-100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 ㉡** (1) 사사 시대는 아직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따로 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이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본서가 기록되었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는 이방인의 손에 붙여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는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6. **㉠** 본서의 내용을 말하라.

- ㉡** (1) 본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까지 400년간의 암흑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 (2)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는 모두 죽었다. 그 후손이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여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방인에게 내어줌으로써 고통을 당하게 했으며 고통 속에서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인도하셨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사들과 함께 하사 적의 수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7.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중요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각 지파들을 정착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 (2)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수 13:1-17).
- (3)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B. C. 1375년부터 삼손이 죽은 B. C. 1075년까지 약 3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 (4) 이 시대는 철(鐵)이 발견된 직후였으며 이 강력한 금속은 농기구와 무기들을 새롭게 혁신시켰다.
- (5) 철제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헷(히타이트) 족속들이며 그 시기는 B. C. 14세기경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B. C. 1406) 헷 족속은 애굽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6)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각 지파들은 제비뽑아 얻은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팔레스틴 땅에는 혼란이 그칠 새가 없었다.
- (7)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침입해 올라와서 다윗이 B. C. 10세기 초엽에 함락시킬 때까지 남아 있던 요새를 세웠다.
- (8) 미디안 족속을 위시한 사막의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동쪽 측면을 공격해 왔다.
- (9) 가나안 땅에 흩어져 거하게 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분산된 결과 힘이 약화되었으며 각 지파들을 모아 힘을 규합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

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다.

(10) 이 혼란한 시기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까지(B. C. 1043) 계속되었다.

8. **㉠** 본서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라.

- ㉠ (1)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2:11;3:7-12;4:1;6:1).
- (2)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2:14;3:8;4:2).
- (3)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의 손에서 고통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구원할 자를 일으키셨다(2:16;3:9).
- (4)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기원하시는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9. **㉠** 본서의 정경상의 위치는 어떠한가?

- ㉠ (1) 사사기는 개역 성경이나 모든 영역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일곱번째의 책이다.
- (2) 사사기는 또한 히브리어 성경 중 전기 예언서들(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중 두 번째 책이었다.
- (3) 여기서 '예언서' 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전달될 뿐 아니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신앙을 나타내 주는 명칭이다.
- (4) 이러한 사사기의 정경성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10. **㉠** 본서의 중심 사상(思想)은 무엇인가?

- ㉠ (1)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 본문 내용 전체를 통해 일관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이다. 즉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
- (2) 이스라엘은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 버렸으며 비극적인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 (3) 사악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을 파고 들었으며 백성들은 잔인한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굶주림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동반자가 되었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믿음의 영웅'을 세워 주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이다.
- (5)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절망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한 사사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압제자의 멍에로부터 구원하셨다.
- (6) 또한 사무엘이나 기드온 같은 고결하고 귀족적 사사가 있는 반면, 삼손같이 실수가 많고 불안정한 성격의 사사도 있었다.

11. **㉠**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 ㉠ (1)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세우시어 강자를 치셨다는 것이다.
- (2) 예컨대 사사 기드온은 그의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6:15)였으며 또한 그의 아비 집안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가문'에 속했다.
- (3) 힘없는 백성들은 기드온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무장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향아리, 햇불, 나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뿐이었다.
- (4)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린 적군의 무기를 빼앗았으며 또한 그들을 사막으로 내어쫓았다.
- (5)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떠한 무기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없으며 하나

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다.

(6)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것이다.

12. ㉠ 본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는 혼돈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2) 즉 인간이 각자의 욕망대로 방종한다면 이 세상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 (3) 또한 혼돈은 먼 옛날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죄(原罪)의 한 모습인 것이다.
- (4)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13. ㉠ 여호수아서와 비교하여 본서를 설명하라.

- ㉠ (1) 여호수아서를 승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 (2)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민족(異民族)의 침략과 압제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 (3)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한 사사 시대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 (4)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신앙과 승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본서는 '불순종과 징계'로 가득찬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4. ㉠ 사사들의 활동 기간과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

사사 이름	압제자(년수)	본서 문	기간(년)
웃 니 엘(유다)	구산 리사다임(8)	3:8	40
에 훗(베냐민)	에 글 론(18)	3:14	80
삼갈(유다 혹은 납달리)		3:31	
드보라와 바락	야빈과 시스라(20)	4:3	40
기드온(므낫세)	미디안(7)	8:28	40
	아비멜렉(3)	9:22	
돌라(앗사갈)		10:2	23
야일(길르앗)		10:3	22
	블레셋·암몬 족속(18)	10:8	
입다(길르앗)		12:7	6
입산(유사)		12:9	7
엘론(스불론)		12:11	10
압돈(에브라임)		12:14	8
	블레셋(40)	13:1	
삼손(단)		16:31	20
엘리(레위)		삼상 4:8	40
사무엘(에브라임)		삼상 7:2, 15	20(?)

15.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사사 시대의 배경 / 1:1-3:6
 - ① 정치적 배경 / 1:1-36
 - ② 영적 배경 / 2:1-3:6
- (2) 사사 시대의 역사 / 3:7-16:31

- ① 메소보다미아의 압제와 웃니엘의 구원 / 3:7-11
 - ② 모압의 압제와 에훤의 구원 / 3:12-30
 - ③ 블레셋을 이긴 삼갈 / 3:31
 - ④ 드보라와 바락의 행적 / 4:1-5:31
 - ⑤ 미디안의 압제와 기드온의 구원 / 6:1-8:35
 - ⑥ 폭군 아비멜렉 / 9:1-57
 - ⑦ 돌라와 야일의 행적 / 10:1-5
 - ⑧ 압돈의 압제와 입다의 구원 / 10:6-12:7
 - ⑨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행적 / 12:8-15
 - ⑩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행적 / 13:1-16:31
- (3) 사사 시대의 혼란상 / 17:1-21:25
- ① 미가와 단 지파의 이동 / 17:1-18:31
 - ② 베나민 지파의 변란 / 19:1-21:25

16.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2:16).

연구자료

사사.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펠)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재판관'(judge)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에서부터 왕국 설립 때까지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재판을 시행한 그리고 이방 군대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가리킨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백성들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다시금 백성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2:6-23). 본서에는 이들 사사들 중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있는데 웃니엘(Othniel)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다(3:9). 아뭇튼 여호수아의 사후(死後) 사사들의 임무는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 외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교훈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이방인과의 싸움에 있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 등이었다(참조, 7장).

제 1 장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단락구분 1-7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섹을 점령하다 / 8-10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복하다 / 11-15 옷니엘의 승리 / 16-21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전투 / 22-26 요셉 족속이 벤얌을 점령하다 / 27-36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인의 성읍들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3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섹에서 일만 명을 죽이고

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7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찢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줄더니 하나님은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이였더라

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트 세벨이라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트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취한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4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발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5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뿔뿔과 아랫뿔을 그에게 주었더라

16 모세의 장인은 켄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17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18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니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22 요셉 족속도 벤얌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 요셉 족속이 벤얌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4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며

25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며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26 그 사람이 헛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 곳의 이름이더라

27 므낫세가 벤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들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

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 에브라임이 계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계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합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31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 납달리가 벵세메스 거민과 벨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벵세메스와 벨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34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35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하매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36 아모리 사람의 지제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전쟁의 기사를 요약하라.

- ㉠** (1)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여러 성읍을 점령하였다.
 (2) 그들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다.
 (3) 또한 유다와 시므온은 서로 협력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으며 요셉 족속도 벨엘을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
 (4) 그러나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했다.
 (5) 한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섰는데 (2절), 이것은 이미 야곱에 의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창 49:8-12).

2. **㉠**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였는가? (1절)

- ㉠** (1)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점령하였다. 따라서 남아 있는 땅이 많았다.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서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결속되어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자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있었다.
 (3)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3. **㉠** 가나안족을 토벌하는 일에 지명된 족속은 어느 족속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유다 족속이 지명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물어보아서 결정된 것이었다.
 (2) 그 이유는 수(數)로나 용맹으로나 유다 지파가 우수한 족속인 까닭이었다 (2절).

4.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누가 먼저...싸우리이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 (1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질문하던 방법은 아마도 '우림과 둠뭍'을 사용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우림과 둠뭍'은 '빛과 완성'이란 뜻인데 그 어원이나 재료 및 형상 등은 분명치 않다.
 (3) 즉 나무 조각이나 막대 모양의 제비라는 설과 금속이나 돌로 만든 주사위 모양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레 8:8; 신 33:8; 스 2:63; 느 7:65).
 (4)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판결 흉패 내부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제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5)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판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우림과 둠뭍이 박혀 있는 판결 흉패를 입은 제사장이 반드시 동석해 있어야 했다 (레 8:8).

5. **㉠**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절)

- ㉠** (1)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전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시

· 큰 지파는 즉시 호응하여 함께 참전하기로 하였다.

(2) 이 두 지파는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즉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분깃을 받았기에(수 19:1) 두 지파가 기업을 얻기 위해 공동 전선(共同戰線)을 펴는 것은 당연했다.

(3) 한편 유다는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였고 시므온은 가장 약한 지파였는데 강한 유다가 약한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4)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 가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참조, 고전 12:12-27; 엡 3:6; 4:16; 6:10, 11).

6. **㉠** 베섹 왕 아도니 베섹이 비참하게 죽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4-7절)

㉠ (1) 유다, 시므온 두 지파의 연합군은 베섹에서의 처음 전투에서 1만 명을 섬멸하는 등 대승을 거두고 베섹 왕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았다.

(2)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왕의 공식 명칭으로서 아비멜렉이나 바르처럼 개인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창 12:15; 20:1, 2).

(3)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로잡힌 아도니 베섹은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엄지 손가락이 끊기었고 또 도망하지 못하도록 엄지 발가락이 끊기우는 처참한 형벌을 받고 결국 죽었다.

(4) 그런데 이러한 형벌을 받으면서 아도니 자신이 강성할 때 70명의 왕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손발을 끊었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5) 이처럼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남에게 가혹하게 행한 자는 가혹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약 2:13; 참조, 사 33:1; 계 13:10; 18:6).

7. **㉠** 유다의 예루살렘 정복에 관하여 설명하라 (8절).

㉠ (1) 베섹을 격파한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그 성의 주민들을 칼날로 쳐 진멸하고 성을 불태움으로써 정복하였다.

(2)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 정벌되었으며 그 성의 왕 아도니세택이 살해된 적이 있다(수 10:22-27).

(3) 그러나 그때에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투를 계속했으며 이 사이에 이웃의 왕인 아도니 베섹이 이 성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4) 그러므로 유다의 예루살렘 정복은 여호수아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과업을 계승하여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마 이겨 놓으신 그러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부름 받은 십자가 군병이다(참조, 빌 1:29, 30; 골 1:24; 딤후 1:8).

8. **㉠** 유다 자손이 죽인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는 어떤 자들인가? (10절)

㉠ (1) 이 세 사람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의 아들로써(민 13:22; 수 15:14)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을 형성했다.

(2) '세새'는 애굽 왕 시삭처럼 태양을 의미하고(왕상 14:25), '아히만'은 이방인의 신이었던 '만'의 친구라는 뜻이며(참조, 사 65:11), '달매'는 밭고랑을 가리킨다.

(3) 이 이름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나타내는 것들로서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만연(蔓延)되었는가를 대변해 준다.

(4)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유다 지파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써 수행되었던 거룩한 전쟁(聖戰)이었음을 알 수 있다.

9. **㉠** 헤브론의 본 이름은 무엇인가? (10절)

- ㉠** (1)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로서 장대한 아낙 자손의 거주지였으며 예루살렘 남방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해발 921m나 되는 고지이다.
- (2) 기랏 아르바는 '4의 도시' (city of four) 라는 뜻이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4'는 달을 가리키는 수자로 간주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 성읍의 주민들은 달을 우상으로 숭배한 것 같다.
- (3) 이 성읍은 아브라함 때에 '연맹' (聯盟)을 뜻하는 헤브론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졌으며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이 이곳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10. **㉠** '기랏 세벨'은 어떠한 곳인가? (11절)

- ㉠** (1) 이곳은 헤브론 남서쪽 15km에 위치한 도시로 후일 드빌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수 15:49).
- (2) '기랏 세벨'은 서적의 성읍이란 뜻으로 당시 이곳엔 많은 기록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그러므로 이 성 주민들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유다군의 사령관인 갈렘은 이 성을 함락시킬 장군을 공모(公募)하게 되었던 것이다 (12절).

11. **㉠** 드빌 곧 기랏 세벨을 함락시킨 장군은 누구인가? (12, 13절)

- ㉠** (1) 갈렘은 저항이 심한 드빌(기랏 세벨)을 공략할 장군을 공모하면서 만일 드빌을 함락시킨 장군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 (2) 그러자 또 다른 갈렘의 아우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 나서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갈렘의 사위가 되었다.
- (3) 여기서 갈렘이 웃니엘을 사위로 택한 것은 그의 군사적인 용맹이나 담력보다도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2절)을 믿는 신앙과 담대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 (4) 오늘날 성도들도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죄악의 세력들과 싸워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요 16:33; 딤후 4:7, 8).

12. **㉠** 악사는 출가(出嫁)하면서 그 아버지 갈렘에게 무엇을 구하였는가? (14, 15절)

- ㉠** (1) 악사는 남편 웃니엘과 함께 의논한 후에 밭과 함께 생물을 구하였다.
- (2) 당시 악사와 웃니엘이 가서 살려고 했던 땅 남방(南方) 지방은 매우 메마른 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물이 꼭 필요하였다.
- (3) 웃니엘의 승전으로 몹시 기뻐하던 갈렘은 딸의 요구대로 뿔샘과 아랫샘을 주어서 두 부부에게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 (4) 여기서 우리는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구했던 악사의 지혜를 보게 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수한 기회를 잘 포착한다 (참조, 잠 31:30).

13. **㉠**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겐 사람'이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을 말하는데 미디안 족속 중의 하나로 주로 홍해 동남 지역에 거주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던 것이다 (참조, 창 15:19; 민 10:29-32).
- (2) 이들은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택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장 강한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이렇게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던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던 여리고 성에 (신 34:3; 대하 28:13) 평화롭게 거주하도록 보호를 받았다.
- (4)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 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마 5:5).

14. **㉠** '호르마'는 어떤 곳인가? (17절)

- Ⓐ (1) 호르마는 유다 시므온 연합군이 시므온 분깃의 동쪽 부분인 스밧에 거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킨 후 그 성읍에 붙힌 새로운 명칭이다.
- (2) 이 명칭은 '완전한 파괴'라는 뜻인데 당시 호르마 정복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실행되었음을 암시한다.
- (3) 왜냐하면 전에 아랏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들의 성읍을 멸한 후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민 21:1-3).
- (4) 이러한 사실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나안 원주민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행되었음을 시사(示唆)한다.

15. Ⓒ 유다 지파의 실패를 지적하라(17-20절).

- Ⓐ (1) 유다 지파는 가나안족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산지를 점령하고도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 (2) 그 이유는 골짜기의 거민들이 철병거라는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사람들의 특수 병기였던 철병거는 마땅히 대처할 만한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참조, 수 17:16; 왕상 10:26).
- (3) 그러나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골짜기 거민을 그대로 둔 것은 유다 지파의 실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의 소치(所致)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므로(2절) 아무리 철병거가 강력한 무기라 하더라도 유다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전투를 벌였어야 했다(참조, 수 17:16-18).
- (5)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믿는 자의 병기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대하 32:7, 8; 시 18:2).

16. Ⓒ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본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려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수 15:63).
- (2)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유다 지파가 실패한 전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축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 (3)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2절)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주위 상황과 타협해 버린 베냐민 자손의 불신앙이 빚어낸 실패의 기록이다.

17. Ⓒ 요셉 족속에 의해 벨엘이 멸망될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22-26절)

- Ⓐ (1) 유다, 시므온 지파에 이어 이번에는 요셉 지파가 정복전에 나섰는데 벨엘을 공략하려는 요셉 지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22절).
- (2) 요셉 지파는 벨엘을 치기 전 정탐군을 보내 성읍 입구를 알아 오게 하였는데 성읍에서 나오던 벨엘 사람 하나가 그 입구를 가르쳐 주었다.
- (3) 이 벨엘 사람은 아마도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수 2:12, 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 (4) 결국 이 한 사람은 도와 주었던 자기의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벨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자기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하였다(25절).
- (5) 이처럼 참된 신앙은 국가와 동포애(同胞愛)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한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참조, 행 16:31).

18. Ⓒ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여섯 지파를 말하라(27-36절).

- Ⓐ (1) 므낫세(27, 28절), 에브라임(29절), 스불론(30절), 아셀(31, 32절), 납달리(33절), 단(34-36절) 지파 등이다.
- (2) 이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앞 부분(22-26절)에서 벨엘을 정복한 요셉 족속에

- 속한 지파들로서 제 2의 원정인 게셀, 므깃도 정복전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 (3) 또한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각각 정복전에는 실패했으나 주도권을 획득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사역을 시켰다.
- (4) 정복전에서 가장 고전을 한 지파는 바로 단 지파였는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세력에 밀려 도리어 산지로 쫓겨 들어 가고 말았다. 결국 단 지파는 남방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하여 정착지를 찾아야만 했다(18:1-31).
- (5) 이상 여섯 지파들의 실패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에 타협하다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연구자료

블레셋에 대하여, 본서에 자주 나타나며(3:3;3:31;15:3;16:14)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은(삼상 4:1; 5:2;7:8;10:5;13:5;14:1) 팔레스틴 남서부에 살던 에게해(海) 연안 출신의 한 민족을 가리킨다. 그들의 영토는 히브리어로 <플레셋>이라 불렀으며 그들은 <플리슈팀>이라 불리웠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지역 명칭의 근원이 되었다(팔레스틴, Palestine). 전승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갑둠(Caphtor)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데 갑둠은 그레테 섬의 히브리식 이름이다(렘 47:4;암 9:7). 이는 블레셋의 해안 일부가 '그렛 사람의 네집'(히, 네집 하크레티)이라고 불렀으며(삼상 30:14) 또한 겔 25:16과 습 2:5에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나란히 등장한 사실로 증명된다. 이들의 영토는 가사(Gaza)와 욥바(Joppa) 사이의 팔레스틴 해안 평야였다. 블레셋 사람들의 5대 도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이며(18절;3:3) 아주 비옥한 영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았으며(15:18;삼상 17:26;18:25) 또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즉 그들은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을 아스글론에 갖고 있었으며 가사와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을 두었고(16:23;삼상 5:1-7) 에그론에는 바알세불에게 드려진 신전이 있었다(왕하 1:1-16). 이러한 그들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었으며 더우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입장이었으므로 이 두 민족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었다(참조, 왕상 15:27;16:15-17). 우리가 삼상 17:5-7에 묘사된 골리앗의 무장을 보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 만드는 일을 독점하고 있었다(삼상 13:19-22).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용광로가 아스글론에 인접한 유적지들인 텔 예메(Tell Jemmeh), 아인 쉘스('Ain Shems), 텔 카실레(Tell Qasileh)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했으며(참조, 렘 25:20;습 2:4-7;습 9:5,6) 그 후 이 지역의 역사는 페니키아(Phoenicia)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 2 장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

단락구분 1-5 여호와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다 / 6-10 여호수아의 죽음 / 11-15 새 세대의 범죄와 징벌 / 16-19 사사들의 구원 역사 / 20-23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1 여호와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쩔이노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열 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 여호와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 여호와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 세에 죽으매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 아스산 북 뒷담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17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

19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 그 열국을 머물러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 이를 인함이었더라

1. ㉠ 본장이 밝혀 주는 사사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설명하라.

㉠ (1) 본장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기까지 지속되었던 사사 시대의 종교적 정치

적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 (2) 특별히 본장은 사사기 전체에 걸쳐 하나의 주기(週期)를 가지고 반복되던 범죄-징계-회개-구원의 곡선(cycle)을 요약적으로 밝혀 준다.
- (3)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 (4) 이러한 징계로 고통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회피하고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셨다.
- (5)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벌로써 다시 징계가 내려졌다. 이러한 주기는 사사 시대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2. ㉠ 여호와와 사자가 보김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 ㉠ (1) 이스라엘은 일찌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과 화친의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고 하셨던 명령을(신 7:2;12:3) 준행치 아니함으로 책망을 받았다.
- (2)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않음으로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과 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 (3) 우리는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정욕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진정한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참조, 골 3:5, 6).

3. ㉠ '여호와와 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라크>는 '특사'(特使), '천사'(天使), '사자'(使者) 또는 '왕'(王)이란 뜻을 지닌 말이다.
- (2) 그러나 여기서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한편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말 3:1;히 3:1)과 연관지어 볼 때 '여호와와 사자'는 신약 시대에 성육신(成肉身)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 '보김'이란 어떤 곳인가? (1절)

- ㉠ (1) '보김'이란 우는 자들이란 뜻으로 여호와와 사자가 책망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사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4, 5절).
- (2) 그런데 이곳은 벨엘과 동일 지점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법제가 있던 벨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3) 70인역(LXX)을 보면 보김이란 지명 다음에 '벨엘'이란 이름을 덧붙혀 보김이 벨엘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5. ㉠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단을 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이 땅의 거민'이란 가나안의 7족속인 헛,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가리킨다(7:1).
- (2)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만나는 성읍과 화친하는 것은 허락하셨으나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다(신 20:10-17).
- (3)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단순히 언약을 맺지 않고 단을 헐어버려서 우상 숭배를 하지만 않으면 함께 살아도 된다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다.
- (4)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호흡이 있는 자는 철저히 죽여 없애서 그들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거나 통혼(通婚)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유혹의 뿌리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라는 명령이다(신 7:2-5).
- (5) 이와 같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죄에 대하여 피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명령을 받았다

(참조, 히 12:4).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불신앙이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6. **Q** '옆구리에 가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3절)

- A** (1)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용납함으로써 받게 될 고통의 상태를 의미한다.
 (2)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가 되리라는 표현이 나온다(민 33:55; 수 23:13).
 (3) 또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고(自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셨다(고후 12:7-9).
 (4)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로 삼으신 것은 불순종에 따른 징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의 경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연단하시려는 뜻도 있다.

7. **Q**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묘사한 말인가? (3절)

- A**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용납할 경우 우상 숭배에 뒤얽히게 될 상태를 가리킨다.
 (2) 즉 그들은 마치 사냥꾼의 울무에 빠져 들어간 새가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욱더 얽히는 것처럼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다가 비참하게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8. **Q** 여호와와 사자가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 5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크게 소리를 내며 울었다.
 (2)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3) 즉 민 14:39에는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우는 모습이 나타나며 삼하 12:13에는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다(은 3:4-10).
 (4)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늘 연(軟)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Q**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린 사실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5절)

- A** (1) 백성들은 단지 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2) 이 제사는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贖罪祭)로 보여진다.
 (3)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죄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표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4)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허물과 죄로 싸여 있는 우리들의 죄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해결된다(벧전 1:18, 19).

10. **Q**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여호와를 잘 섬겼는가? (7절)

- A** (1) 그들은 그들의 참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며 잘 섬겼다.
 (2)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지도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수 24:31).
 (3)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과 중생(重生)의 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4)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수의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참된 구원의 경험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도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한 사람'이 필요하다.

11. **Q** 여호수아는 몇 살 때에 사망하였는가? (8절)

- A** (1) 여호수아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었으며(민 14:6-8; 32:12)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基業)을 분배해 주었다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행 20:32).

- (2) 이처럼 위대한 인물인 여호수아였을지라도 그 역시 모든 인생이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되어 110세를 일기(一期)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
- (3)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시 116:15)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히 4:10).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도 위로와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2. **㉠** 여호수아는 어느 곳에 장사되었는가? (9절)

- ㉠** (1)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매장지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편 비탈에 위치한 '딤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
- (2) 수 24:30에는 본절과 동일한 귀절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딤낫 헤레스'가 아닌 '딤낫 세라'로 나오고 있다.
- (3) 그러나 이 두 지명은 동일한 장소로서 '길갈'에서 북서쪽으로 37.5km의 지점을 가리키며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이었다(수 19:20).

13. **㉠** 여호수아의 후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원인은 무엇인가? (10절)

- ㉠** (1) 여호수아 시대의 놀라운 신앙적 황금 시기는 불행히도 한 세대로 그쳐 버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적(無神論的) 상태로 타락하고 말았다.
- (2) 이렇게 영적 암흑기가 임하게 된 원인은 첫째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종교 교육의 의무(신 6:7)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사사 시대 후기에 제사장 엘리와 선지자 사무엘 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실을 보게 된다(삼상 2:12-17; 8:1-3).
- (4) 이러한 사실들은 대외적인 선교는 하였으나 가정 교육에 소홀했던 구미 제국(歐美諸國)들이 영적 암흑기를 맞고 있는 현대적 증거와 함께 한국 교회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힘쓰도록 경종(驚鐘)을 울려 주고 있다.

14. **㉠** 이스라엘이 타락한 실상은 어떠한가? (11-13절)

- ㉠** (1)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은 망덕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2) 이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태양을 피해 어두운 그늘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그 영적 어두움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된다(요일 1:11).
- (3)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급기야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 가나안의 모든 도덕적 타락과 범죄에 동참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 (4) 사도 바울은 현대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온갖 죄악을 21가지 항목으로 증거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언했다(롬 1:28-32).
- (5)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전 의식(神前意識)을 갖고 모든 죄악이 유입되는 출입구(出入口)를 봉쇄하도록 해야 한다.

15. **㉠**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인가? (13절)

- ㉠** (1) '바알'은 '소유주'라는 뜻을 가진 아람 족속의 우상으로서 농경 사회인 가나안의 백성들에게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 (2) 또한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가나안 3대 여신 중 하나였다. 아스다롯은 '저녁 별의 여신'으로 알려졌으며 '하늘의 여신'이라고도 숭배되었다(참조, 렘 44:19).
- (3) 가나안 족속들은 이 두 신의 성적 관계를 통하여 풍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에 이 무지한 미신은 가나안 땅의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6.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사실은 그의 어떤 성품을 보여 주는가? (14 절)

- ㉠** (1)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
 (2) 하나님은 질투(嫉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출 20:5)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며 또한 참지 않으신다.
 (3)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마 6:24; 눅 16:13)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마 22:37).
 (4) 이처럼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 진노를 발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지극한 사랑에서 온 것이다.

17. **㉠**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14 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방 모든 대적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다.
 (2) 이방 족속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계하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참조, 3:8; 4:2; 신 32:30; 삼상 12:9; 사 10:5, 24).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범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까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삼하 7:14; 참조, 히 12:5-13).

18. **㉠**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당치 못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5 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대적을 쫓아낼 능력을 주실 것이나 (레 26:7, 8; 신 28:7) 반대로 불순종하면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레 26:17, 19; 신 28:35).
 (2) 이 말씀대로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적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고 연전 연패(連戰連敗) 하였던 것이다.
 (3)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나실인 삼손의 경우 위대한 힘을 부여받은 장사(壯士)였으나 말씀을 어겼을 때 모든 능력을 상실당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16:20, 21).
 (4) 오늘날 국가나 개인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청종 여부(興否)에 달려 있다.

19. **㉠** '사사' (士師)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6, 18 절)

- ㉠** (1) '사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파트>는 '심판하다', '판결(判決)을 선고하다', '재판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2)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공의를 시행하고 재판을 베풀어 백성들을 이방 군대의 침입에서 보호했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말한다.
 (3) 본서에는 최초의 사사 '웃니엘' (3:9)에서 '삼손'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고 삼상에 나타난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면 사사의 수는 모두 14명이 된다.
 (4)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단회적으로 통치하던 자들로서 그 직임이 후손에게 세습되지 아니하였다.

20. **㉠**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숭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7 절)

- ㉠** (1)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貞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姦淫)된다는 뜻이다 (출 34:15).
 (2) 즉 '음란하듯'이란 말은 당시 하나님과 영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한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3) 그런데 당시 가나안인의 제사 의식에는 음행의 순서가 들어가 있어서 신당(神堂)에 창녀(娼女) 또는 창남(娼男)이 배속되어 가장 추악한 죄인 간음이 공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 (4) 이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만 음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 간음에도 해당되는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참조, 렘 3:9; 겔 6:9).

21. **㉠** 사사(士師)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9절)

㉠ (1)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후 평안함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영적 나태에 빠져 타락하고 말았다.

(2) 이처럼 세상적인 안락(安樂)은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누릴 때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다(신 8:12-14).

2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열국을 남겨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 (20-22절)

㉠ (1)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시험하고 연단시키려는 데에 있다(22절).

(2)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미성숙(未成熟)한 상태를 보여 주었다(20절).

(3)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신앙은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욥 23:10).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차원 높은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화보자료



아스다롯 여신상. 옆의 사진은 이스라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점토 상으로서 B. C. 6,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스다롯’ (Ashtaroth)이란 말은 아스도렛’ (Ashtoreth)의 복수형으로서 다른 우상들과 함께 언급될 때 사용되었다(13절). 이 여신은 보통 바알의 아내로 나타나며 풍요와 다산(多産)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다. 따라서 가슴과 성기(性器)가 강조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선 반드시 음행(淫行)이 뒤따랐던 것이다(참조, 왕하 23:13). 이 아스다롯은 본래 베니게, 특히 시돈 사람들의 우상이었다(왕상 11:5).

제 3 장 웃니엘, 에훗, 삼갈의 활약

단락구분 1-4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진 열국(列國) / 5-6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통혼(通婚)하다 / 7-11 웃니엘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이기다 / 12-30 에훗이 에글론을 물리치다 / 31 삼갈의 역사

1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하시니 남겨 두신 열국은

3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4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브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을 섬겼더라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10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 그 땅이 태평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시니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

령한지라

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 팔 년을 섬기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속에 차고

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뚤한 자이었던라

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20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21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23 에훗이 현관엔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25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앞드러졌더라

26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들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28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 그 때에 모압 사람 일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

더라

30 그 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31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1. ㉠ 본장의 문맥과 내용을 설명하라.

- ㉠ (1) 앞의 1,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더불어 사사 시대의 정치적 배경(1장)과 영적 배경(2장)이 언급되어졌다.
- (2) 그러나 본장부터는 본격적인 사사들의 활약이 소개되기 시작하여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의 구원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3) 이러한 문맥 속에서 본장에는 웃니엘, 에훗, 삼갈 등 3명의 사사가 등장하여 각각 메소보다미아, 모압,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 이 사사들의 활약은 모두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다.

2. ㉠ '가나안 전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가나안 전쟁'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가리킨다.
- (2)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성전(聖戰)으로서 당시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참조, 7절).
- (3) 이제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다(2절).
- (4)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중 일부를 남겨 두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가시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 (5)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던 영적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참조, 고후 12:7).

3. ㉠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열국을 남겨 두신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열국을 남겨 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 (2)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낙심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남겨 두셨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논리를 훨씬 능가한 깊고 오묘한 비밀이다(롬 11:33).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한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5,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통혼하지 말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명령하셨다(출 34:15, 16; 23:24; 신 7:1-5; 수 23:12, 13).
- (2)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불순종할 때 따르는 징벌에 대해서도 경고를 들었다(신 28:15-68).
- (3) 그러나 이 모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침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우려하던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
- (4) 이처럼 죄의 유혹은 참으로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히 12:4).

5. **㉠** 메소보다미아는 어떤 곳인가? (8절)

- ㉠** (1) 이 지명(地名)이 원문에는 <아람 나하라임>으로 나타나는데 ‘두 강 사이의 높은 지대’란 뜻이다.
- (2)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소포타미아>가 되는데 개역 성경은 이를 ‘메소보다미아’로 표기하여 번역했다.
- (3)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동부에서부터 페르시아 만(灣)까지에 이르는 지역으로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여러 민족이 흥망 성쇠를 거듭한 곳이다.

6. **㉠** 메소보다미아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8절)

- ㉠** (1) ‘구산 리사다임’으로서 이 왕에 대한 다른 고고학적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 (2) 그런데 ‘리사다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배(倍)나 더 악하다’임을 생각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에게 불려 준 칭호인 것 같다.
- (3) 한편 ‘구산’은 바벨론 왕 니므롯의 부친의 이름인 ‘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참조, 창 10:6-8).

7. **㉠**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박당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9절)

- ㉠** (1)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정복당하여 8년 동안이나 압박을 받았다.
- (2) 일찌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좇아 메소보다미아를 떠난 바 있었는데(창 12:1, 4) 이제 그의 후손들은 메소보다미아에 의해 노예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 (3) 이때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다.
- (4) ‘부르짖다’(히, 자아크)라는 말은 ‘힘을 다해 부른다’는 뜻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 간절히 기도함을 의미한다(참조, 3:15; 4:3; 6:7; 10:10; 삼상 12:10).
- (5)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자세는 오늘날 환난과 역경을 당한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 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된다.

8. **㉠** 사사 웃니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10절)

- ㉠** (1) 웃니엘은 ‘여호와와 신’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 (2) 본절에 ‘여호와와 신’이 웃니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웃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지혜와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 (3) 한편 ‘여호와께서...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불히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9. **㉠** 사사 에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11-15절).

- ㉠** (1) 사사 웃니엘의 구원 역사가 있는 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태평 시대를 누렸으나 웃니엘의 사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철(前轍)을 밟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 (2) 이와 같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로 물들기 쉬운가를 보여 준다.
- (3)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모압 왕 에글론의 침입을 당하여 18년이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 (4) 이러한 극심한 압박 속에서 구원을 부르짖어 호소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어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 주셨던 것이다.

10. **㉠** 모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는가? (12, 13절)

- ㉠** (1) 매우 호전적(好戰的)인 모압 왕 에글론은 북쪽과 동쪽에 있는 이웃 나라의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 (2) 이 중 암몬은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 땅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암몬과 모압은 루이 딸들과 근친(近親)한 관계에서 태어난 형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 (3) 또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엘리바스의 아들 중 하나였는데 아말렉 족속은 애굽 지경에서부터 팔레스틴의 광야에 걸쳐 약 700-80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살았다.
- (4)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세 족속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데에 있다. 즉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영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며(신 23:3-6) 아말렉은 그들의 이름이 천하에서 도말되도록 선언되었다(신 25:19).
- (5) 이처럼 저주받은 민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들어 쓰셨으니 이스라엘의 수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11. **㉠**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5절)

- ㉠** (1) 처음 사사 옷니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나 둘째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게라의 아들이었다(참조, 대상 8:3).
- (2) 또한 에훗은 '원손잡이'였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하지 않음으로 오른손에 익숙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는 신체적인 약점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이와 같이 에훗은 외형적으로 뛰어난 점이 없었고 오히려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전 1:27).

12. **㉠**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처단하였는가? (15-25절)

- ㉠** (1)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칼을 옷 속에 품고 에글론을 찾아가 다락방에서 면담을 하는 듯하다가 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살해하였다.
- (2) 이러한 에훗의 암살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질 수 있다.
- (3) 즉 성경에는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사건이나(삼하 3:27) 레갑과 바아나가 그들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건(삼하 4:6)이 나오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였다.
- (4) 왜냐하면 이들의 암살 행위는 사적(私的)인 원한과 야비한 정치욕(政治慾)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에훗은 엄연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악인에 대해 심판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다.

13. **㉠** 에훗은 어떠한 칼을 사용하였는가? (16절)

- ㉠** (1)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한 칼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단도(短刀)였다.
- (2) 이 칼의 길이는 한 규빗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한 규빗의 길이(45.6cm)로 보기 보다는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기에 용이한 정도의 길이(약 30cm)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3) 에훗이 이 칼을 우편 다리 옷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간 것은 그가 원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칼을 빼도록 하기 위함이다.

14. **㉠** '돌 뜨는 곳'이란 어떤 곳을 가리키는 표현인가? (19, 26절)

- ㉠** (1) '돌 뜨는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실림>인데 이 말은 구약에 모두 21회 나오며 '새긴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이 말이 개역 성경에는 채석장이라는 의미에서 '돌 뜨는 곳'으로 번역되었으나 '새겨

진 돌들' (RSV, sculptured stones) 또는 '우상들' (공동 번역)로 보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다.

(3) 실제로 길갈 부근에는 노천(露天)에 세워진 돌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4) 에훗이 이곳에서 다시 되돌아옴으로 모압 왕 에글론은 그가 신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지시를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해 주리라고 기대했을런지도 모른다.

15. **㉠** '서늘한 다락방'이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 (20절)

㉠ (1)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불리워지던 이 다락방은 동방의 통치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 더운 날 시원하게 휴식하기 위해 만든 장소였다.

(2) 이러한 다락에는 2,3개의 방이 있었으며 테라스(terrace)로 본채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가 하면 직접 외부로 통하는 통로도 있었다.

(3) 이곳은 통풍 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매우 시원한 곳이었다.

(4) 에글론은 여기서 에훗을 비밀히 영접하였으나 바로 이 다락이 그에게 최후의 장소가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참조, 22절).

16. **㉠**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4절)

㉠ (1) 이 말은 <히, 하세크 에트라길라우> 히브리인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용변을 보다', '혹은 '잠을 자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삼상 24:3에서는 이 말이 '용변을 보다' (RSV, NIV, relieve himself)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본절에서는 '잠을 자다'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왜냐하면 본절에서 모압 왕 에글론이 발을 가리운 곳이 휴식처인 다락방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17. **㉠** 에훗이 피하여 도망한 장소는 어디인가? (26절)

㉠ (1) '스이라'로서 히브리 원문에는 <쉐이라타>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무가 많은 삼림(森林)'이라는 뜻이다.

(2) 이 지명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으로 보인다.

(3) 여기에서 에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단숨에 모압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27절).

18. **㉠** 에훗은 어떠한 말로써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였는가? (28절)

㉠ (1) 에훗은 이미 적군의 통수권자인 에글론을 처단하였기 때문에 지도자 없는 모압 군대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확신에 찬 말로 독려(督勵)하였다.

(2) 즉 에훗은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특별히 승리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뜻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였는니라'라고 말했다.

(3) 신실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는 그의 교인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면하였다(고전 11:1).

(4) 오늘날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영적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본을 보이며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19. **㉠** 이스라엘의 전술(戰術)과 전과(戰果)는 어떠한가? (28-30절)

㉠ (1)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요단 강 나루를 봉쇄한 후 전열(戰列)이 흐트러진 모압 군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2) 이처럼 요단 나루를 봉쇄한 것은 먼저 모압 군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과 요단 동쪽으로부터 모압의 원군이 올 수 없게 만드는 이중 효과를 노린 매우 기민(機敏)한 작전이었다.

- (3) 이 작전은 그대로 주효하여 이스라엘은 모압 군대 1만 명을 전멸시키는 완승을 거뒀다.
- (4) 이 전쟁은 그리스도가 지휘하시는 영적 전쟁의 예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싸움에서 마귀의 권세를 철저히 파괴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창 3:15; 요 16:33; 골 2:15).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 놓으신 싸움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20. **㉠** 에훗의 구원 역사 후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이나 태평을 누렸는가? (30절)

- ㉠** (1) 에훗의 지도하에 모압을 철저히 전멸한 이스라엘은 다시 태평 시대를 누렸다.
 (2) 그 기간은 웃니엘 사사 치하에 누렸던 태평 시대(11절)의 두 배에 해당하는 80년간이었으며 사사 시대 가운데 가장 긴 태평 기간이었다.

21. **㉠** 에훗 다음에 등장한 사사는 누구인가?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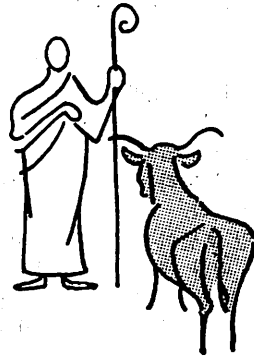
- ㉠** (1) 에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사사로 등장한 사람은 아낫의 아들 '삼갈'로서 그의 활동 연수는 나타나지 않으며 본절과 5:6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다.
 (2) 본서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삼갈처럼 간단하게 언급된 6명의 사사들(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특별히 소사사(小士師)라고 부른다.

22. **㉠** 삼갈은 무엇을 무기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는가? (31절)

- ㉠** (1) '소 모는 막대기'로서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밭을 갈 때에 사용하던 약 2.5m나 되는 길고 둥근 막대기를 가리킨다.
 (2) 이 막대기의 한쪽 끝은 소를 모는 뾰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끝은 작은 삼을 부착하여 쟁기에 묻은 진흙을 털어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3) 이러한 막대기는 무기(武器)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사의 손에 붙들릴 때 600명의 블레셋 침략자를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강력한 병기가 되었다.
 (4) 이처럼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참조, 고전 1:27, 29; 고후 12:9, 10).

본장의 요절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1절).



제 4 장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

단락구분 : 1-3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 4-5 여사사 드보라 / 6-10 드보라와 바락의 작전 회의 / 11-겐 사람 헤벨 / 12-13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 14-16 바락이 시스라를 이기다 / 17-22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다 / 23-24 야빈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구원

1 에봇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 여호와께서 하술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3 야빈 왕은 철병거 구백승이 있어서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벵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7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9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들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 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 가니라

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 남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 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

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15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16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17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술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19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20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물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21 그가 곧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쩍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2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쩍에 박혔더라

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시니라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 하였더라

- Ⓐ (1) 본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唯一)한 여자 사사(士師)로서 바락 장군을 도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를 전멸시켰다.
- (3) 이때 도망치던 가나안의 패장(敗將)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아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4) 본장에 있어서 특이한 사실이라면 바로 드보라와 아엘과 같은 연약한 여인들이 구원 사역(救援使役)의 주역(主役)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 (5)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교훈을 준다(고전 1:27).
2. Ⓞ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한 사실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1절)
- Ⓐ (1)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복적인 죄악은 2:19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패괴하여'라고 언급된 대로 사사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다.
- (2)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배은 망덕(背恩忘德)하였는지를 보여 주는데 이는 반드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 (3) 오늘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 준다(참조, 렘 17:9).
3. Ⓞ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여 징계하셨다.
- (2) 하솔은 납달리 지파의 지경(地境)에 속하는 북부 가나안의 성읍 중 하나로서 홀레 호수 남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하며 당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새지(要塞地)로 간주되었다.
- (3) 이곳에 도읍한 야빈은 그 이름의 뜻이 '지식 있는 자', '총명한 자'로서 그가 가나안 땅의 최고 지도자이며 권세가 당당했고 지식이 많은 자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 (4) 한편 본질의 야빈은 과거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수도를 취했던 하솔의 왕 야빈과는(수 11:1, 10) 다른 사람으로 그보다 약 1세기 이후의 인물이다.
4. Ⓞ '이방 하로셋'이란 어떤 곳인가? (2절)
- Ⓐ (1)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갈릴리의 넓은 평지 중에 위치한 '부타프'(Buttauf) 부근일 것으로 추정된다(Keil).
- (2) 이 지명이 RSV, NIV, Living Bible, 공동 번역 등은 '하로셋하고임'(Harosheth-ha-goim)으로 되어 있는데 KJV와 개역 성경은 '이방 하로셋'(Harosheth of the Gentiles)이라고 번역하였다.
- (3) 이것은 히브리어 <고임>이란 단어가 '지파'를 뜻하는 아카드어의 '가움'(gayum)에서 파생되었다고 본 것과 '하로셋하고임'을 그냥 고유 명사로 여긴 것과의 차이점이다.
- (4) 아몽든 '하로셋'과 '하로셋하고임'은 같은 지명으로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고향이었다.
5. Ⓞ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학대하였는가? (3절)
- Ⓐ (1) 그는 철병거(銃兵車)를 900승이나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하였다.
- (2) 이 철병거 900승은 대단히 위력적인 병기로서 전에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할 정도였다(1:19).
- (3) 이러한 무단 정치(武斷政治)를 통해, 야빈 왕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쫓막힐 정도로 압제하고 학대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 (4) 여기 압제 기간 20년은 사사 시대 동안 삼손 당시 블레셋에 압제당한 40년 다음으로 긴 기간이었다(13:1).
6. **㉠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4절)**
- ㉠** (1)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례적(異例的)으로 여자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곧 여사사 드보라이다.
- (2)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로서 여호와와 신이 그와 함께 하였고 선지자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다(참조, 민11:25).
- (3) 특별히 그녀는 랍비돗이란 남자의 아내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평범한 주부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단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히 행하던 여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들어 쓰심으로써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고전1:28, 29).
7. **㉠ '드보라의 종려나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5절)**
- ㉠** (1) 드보라는 사마리아 남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벨엘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다.
- (2) 그리하여 후에 이 나무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 (3) 드보라는 사사로 불리움을 받고 그 나무 아래에서 법정(法廷)을 베풀고 옥외에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주었다.
8. **㉠ 드보라는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시작했는가? (6, 7절)**
- ㉠** (1)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초청하여 작전 회의를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 (2) 더우기 그녀는 차기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3) 여기서 드보라가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지 않고 바락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것은 그녀의 바른 신앙과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어 준다(참조, 고전14:34; 딤후2:11-14).
9. **㉠ '납달리 게데스'에 관하여 설명하라(6절)**
- ㉠** (1) '납달리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 영역으로서 야빈의 도성인 하솔에서 북동쪽으로 4.8km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성읍이다.
- (2) 이곳은 현재에도 '가데스'(Qades)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도 고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10. **㉠ 드보라 사사가 바락 장군에게 내린 작전 지시는 어떠한가? (6, 7절)**
- ㉠** (1) 드보라 사사는 매우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
- (2) 그녀는 먼저 아군(我軍)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지시한 후 적군(敵軍)의 동향(動向)에 대하여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 (3) 즉 납달리, 스불론 지파로 구성된 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다불 산에 집결하도록 지시했고 시스라가 거느린 가나안 군대는 기손 강에 진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 (4)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 백승(百戰百勝)'이라는 병법의 기본 원리가 보여 주듯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이스라엘이 적군의 병력 배치까지 소상히 알게 되었다면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1. **㉠ 이스라엘군과 가나안군이 각각 진칠 '다불 산'과 '기손 강'의 전략상 의미를 말해 보라(6, 7절)**
- ㉠** (1) 이스라엘군이 진칠 '다불 산'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 약 16km 지점의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고도 553m쯤 되는 산으로 큰 원추형의 고지 위에는 평평한 광장이 있었다.

- (2) 한편 가나안군의 진척 '기손 강'은 다불 산 좌편으로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으로서 이곳 주위에는 이스라엘 평지가 있어서 철병거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
- (3) 이러한 양군의 진영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의 진영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 (4) 왜냐하면 가나안군의 주무기인 철병거가 이스라엘이 진친 고지(高地)를 향해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2. ㉠ 성경에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라(11절).

- ㉠ (1) 성경에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된 이름이 '르우엘' (출 2:18), '이드로' (출 3:1) 그리고 본절에 나타난 '호밥' 등이다.
- (2) 그러나 민 10:29에 호밥이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듯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왜냐하면 장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텐>은 장인과 처남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3. ㉠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記事) 도중에 헤벨의 이사(移徙) 기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헤벨은 모세의 처족(妻族)으로서 본래 종려나무 성읍인 예리고에 머물고 있다가(1:16; 수 6:26) 북쪽 납달리 지방의 게데스에 인접한 사아난님으로 이사했다.
- (2) '사아난님'은 납달리 지파의 남쪽 변경에 위치한 한 장소로서(수 19:33) 오늘날 아다미(Adami) 남동쪽 약 6.4km에 위치한 '칸 엘 투찰'(Khan et Tujjar)로 추정된다.
- (3) 본절에 갑자기 헤벨의 이사 기록이 나오는 것은 바로 헤벨의 아내 아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될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다. (참조, 17절).

14. ㉠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전세(戰勢)는 어떠하였는가? (12-16절)

- ㉠ (1) 바락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불 산에 집결했다는 정보가 하로셋까지 알려지자 시스라는 곧 철병거 900승과 군사들을 이끌고 기손 강으로 출정(出征)하였다.
- (2) 양군(兩軍)이 대치(對峙)한 가운데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란 말로 격려하였고 바락은 신앙으로 선제 공격을 가하였다.
- (3)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철병거의 시스라 군대는 순식간에 풍비 박산(風飛雹散)되었고 적장 시스라는 맨발로 도주하였다.
- (4)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의 본거지인 하로셋까지 추격하여 토벌하였으니 그야말로 통쾌한 승리였다.

15. ㉠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2-16절)

- ㉠ (1) 이스라엘의 승리는 물리적인 전력 비교에 있어서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으나 이미 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6, 7절)에 의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 (2) 즉 이스라엘군은 가나안군보다 약했으나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군보다 월등히 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실 때(14절)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던 것이다.
- (3) 오늘날도 국가와 국가 사이, 더 나아가 개인과 개인 사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의 기뻐하는 자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잠 21:31).
- (4)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전 9:11).

16. ㉠ 도망하던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 이유는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시스라는 길고 긴 도주(逃走)의 고통 속에서 헤벨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3) 그러나 천신 만고(千辛萬苦) 끝에 숨어 들어온 이 피신처가 결국은 그의 사형 집행대가 되고 말았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合力)하여 선을 이루나(롬 8:28) 반대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는 모든 일이 영커서 악을 낳게 된다.

17. **Q** 시스라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18-21절)

- A** (1)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후 야엘에게 누가 와서 찾으면 없다고 대답하도록 당부하고나서 깊은 잠에 빠졌다.
- (2) 그러자 야엘은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잠에 빠져 정신 없는 시스라의 살쩍(temple, 판자놀이)에 놓고 방망이로 치니 방망이가 두개골(頭蓋骨)을 뚫고 땅에 박혔다.
- (3) 결국 시스라는 육신의 잠에 빠져 있다가 연약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 영원한 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 (4)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악과 정욕의 잠에 빠져 버린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18. **Q** 야엘의 행위는 윤리적인 면에서 정당한가? (18-21절)

- A** (1) 우리는 야엘이 거짓말로 시스라를 안심시켜 깊이 잠들게 하였다는 점에서(18절) 더우기 죽인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는 점에서(21절) 그녀의 행위의 정당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 (2) 그러나 비록 그 방법이 잔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만큼 시스라의 죄가 심각함을 나타내려 하셨던 것이다.
- (3) 또한 5장에 나타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야엘이 큰 복을 받을 여인이라고 칭송되고 있어 그녀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야엘의 행위를 예글론 왕을 암살하고 백성을 구원해 낸 에훗 사사의 행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代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Q** 본장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가? (23, 24절)

- A** (1)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
- (2)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증가하였고 급기야는 가나안 왕 야빈을 그의 정권과 함께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 (3) 결국 이 사실은 어떤 국가가 흥망 성쇠(興亡盛衰)하는 배후에는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본장의 요약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24절).

제 5 장 드보라의 노래

단락구분 1 노래하는 드보라와 바락 / 2-5 노래의 서사(序詞) / 6-8 압제받던 이스라엘의 침상 / 9-13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다 / 14-18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들 / 19-23 기손 강 전투에서의 승리 / 24-30 시스라의 죽음 / 31 노래의 결구(結句)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2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송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 너희 왕들이 들으라 방백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7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10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선포할지어다

11 활 쏘는 자의 지꺼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길은 곳에서도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12 깎지어다 깎지어다 드보라여 깎지어다 깎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 노암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13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

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15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팔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실이 있었도다

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쩔이노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17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기를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쩔이노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18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19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므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22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젖을 귀한 그것에 담아 주었고

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쪼개 곧 살쥔을 꿰뚫었도다

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

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한대

29 그 '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가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 두 처녀를 얻었으리이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

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이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이다 하였으리라

31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돌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특징을 말해 보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영광스런 승리를 기념하여 만든 개선(凱旋)의 노래이다.
- (2) 이 노래에는 전장(前章)에 산문으로 기록된 승리의 사건이 직접적이고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높이 찬양되고 있다.
- (3) 특별히 본장은 사사 시대의 시 중에서 지금까지 보존되어진 유일한 시이다.

2. ㉠ 본장 이외에 성경에 나타난 승전가를 열거해 보라.

- ㉠ (1) 출 15:1-18에는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이 노래는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 (2) 출 15:21에는 모세의 누이이며 여선지자인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과 함께 역시 홍해에서의 구원을 찬송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 (3) 신 32:1-43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 최후의 노래가 나타난다. 이 노래는 출애굽 사건의 여러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4) 삼상 2:1-10에는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 한나는 브닌나에게 받던 수욕을 떨쳐 버리고 승리를 노래하였던 것이다.
- (5) 한편 신약에서는 눅 1:46-55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미가 나온다. 이는 죄악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승리를 노래한 것이다.
- (6)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찬미가 나타난다. 이 모든 노래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하여야 할 어린 양의 새 노래에 대한 전주곡(前奏曲)이다.
- (7)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굴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가 확정되어져 세세토록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참조, 계 14:3; 15:2-4).

3. ㉠ 본장에 기록된 노래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 (1) 본절에는 이 노래의 저자가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 등 두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 (2) 그러나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라는 표현은 저자가 드보라 한 사람임을 확실히 보여 준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 바락이 노래의 공동 저자인 것처럼 나오는 것은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양식 때문인 듯하다.
- (4) 이와 유사한 예로서 출 15:1-18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삽입되어 있다.

4. ㉠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지휘하고 인도하여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2) 또한 둘째로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 기꺼이 헌신해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3) 결국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모두 다 일심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 했던 것이다.

5. **㉠** '왕들'과 '방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3절)

- ㉠** (1) 드보라가 찬송 소리를 들으라고 한 '왕들'과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이 말들은 이방인의 왕과 방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드보라는 그들에게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했다.
 (3) 즉 드보라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자신들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다.
 (4) 다윗도 시 2:10에서 이방의 군왕(君王)과 관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6. **㉠**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 진행하셨다고 함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4절)

- ㉠** (1) 세일이나 에돔은 모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사해(死海) 남동쪽의 지명(地名)이다.
 (2)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올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묘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상기(想起)시키는 표현이다.
 (3) 이러한 표현과 비슷하게 모세는 여호와를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취시며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분으로 나타내었다(신33:2).
 (4) 그러나 본절이나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시적(詩的)으로 묘사한 것이다.

7. **㉠** 드보라가 시내 산의 사건을 회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드보라는 과거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곳에 연기가 자욱하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던 사실을 회상했다.
 (2)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셨던 것이다.
 (3) 이처럼 드보라가 과거의 사실을 회상한 것은 최근에 기손 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와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려 했기 때문이다.
 (4)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과거에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현재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한다(참조, 히 13:8).

8. **㉠** 가나안 왕 야빈 아래서 학정(虐政)에 시달리던 당시 시대상은 어떠했는가? (6절)

- ㉠** (1) 드보라는 본절에서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2) 삼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3:31) 야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스라를 죽인 자이다(4:17).
 (3) 이들이 활약했던 당시의 상황은 본절에서 '대로(大路)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小路)로 다녔다'는 말로 묘사되었다.
 (4) 이것은 이스라엘이 매우 황폐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상거래(商去來)도 없었고 군사도 법관도 없었기에 파산(破産)한 자들이 노상(路上)에서 약탈하는 일이 예사롭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9. **㉠** 드보라가 지도자로서 등장할 당시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7, 8절)

- ㉠** (1)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음을 탄식하는 말이다.

- (2)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백성들은 이방의 새로운 신(神) 곧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전쟁의 참화(慘禍)를 겪고 있었다.
- (3) 더구나 예루살렘 성문까지 침입해 들어온 적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병기를 모두 빼앗아 갔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4만 명이 모여어도 무기 없는 군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4) 이러한 난세(亂世)에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여성이 지도자로 등장한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사건이다(고전 1:27).

10. **㉠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宣播)하라고 한 대상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는가? (10, 11절)**

- ㉠** (1) 먼저는 흰나귀를 탄 자들로서 이들은 백성 중 지도층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 (2) 둘째는 화문석(花紋席)에 앉은 자들인데 이들은 부유한 자를 가리킨다. 오늘날의 부유한 자들은 물질의 축복에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복음 사업에 힘써야 한다.
- (3) 세째는 길에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일반 대중 곧 평민을 가리킨다. 일반 평민들은 생업을 위해 쉴 새 없이 일을 한다. 그러나 바쁜 생활의 현장인 직장에서도 틈을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딤후 4:2).
- (4) 또한 물 길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교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여성도들은 가정에서나 동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 (5) 결국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에서 제외될 계층의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 준다. 일찌기 루터(M. Luther)는 벵전 2:9에 근거하여 '만인 제사장주의'를 제창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롬 15:16)를 부여받았음을 주장하였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8-20)에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11. **㉠ '여호와께서...강림하셨도다' 라는 귀절이 기손 강 전투에 관하여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이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적과 싸우기 위하여 나셨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여하였음을 가리킨다.
- (2) 따라서 기손 강 전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 전쟁이며 이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은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였던 것이다.

12. **㉠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들에 관하여 설명하라(14-18절).**

- ㉠** (1) 기손 강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족적(舉族的)인 전쟁으로서 모든 지파가 참여하여야 할 성전(聖戰)이었다.
- (2) 그러나 어떤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또 다른 지파들은 매우 방관적이어서 비난을 받았다.
- (3) 즉 에브라임, 스불론, 잇사갈, 르우벤, 납달리 등 6지파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선전 분투(善戰奮鬪)했다.
- (4) 반면에 길르앗으로 칭해지던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와 단, 아셀 지파 등은 범국민적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 (5)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본분에 소홀하여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책망과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렘 48:10).

13. **㉠ '프깃도 물가 다아낙'이란 어느 곳을 말하는가? (19절)**

- Ⓐ (1) '므깃도 물가'는 므깃도와 남쪽 산지 사이, 즉 므깃도 후방의 분지로 흘러가는 마른 계곡인 '와디' (wadi)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이곳은 4:13의 기손과 동일한 지역이며 현재의 '레윤' (Lejun)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사실은 14세기의 유대인 학자 에쉬토리 하파리 (Eshtori Haparhi)가 최초로 밝혀냈다.
- (3) 한편 '다이나'는 므깃도에서 불과 8km도 채 안되는 이스라엘 계곡의 남쪽에 있는 성읍이다. 기손 시내는 평지를 지나 이들 두 성읍의 북부로 흘러 들어갔다.

14. ⓐ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19절)

- Ⓐ (1) '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사프)는 본래 '은' (銀)을 뜻하는 말로서 본절에서는 전쟁에서 취하는 전리품, 노획물 등을 말한다.
- (2) 따라서 돈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라와 그 동맹군들이 전리품을 얻고자 하였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복당해 버리고 만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15. ⓐ '별들이...시스라와 싸웠도다'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인가? (20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와 주셨다는 사실을 시적 (詩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 (2) 이 부분에 대하여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Josephus)는 시스라의 정면 (正面)에서 일어난 바람과 비락과 폭우로 인하여 시스라 군대가 전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자연 현상을 이용하시기도 한다 (참조, 출 14:24; 수 10:10, 11; 삼상 7:10; 삼하 5:24).

16. ⓐ 기손 강을 옛강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오래 전부터 고대 역사가들이나 시인들은 기손 강을 소재로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아름다운 노래들을 읊곤 하였다.
- (2) 이처럼 유서 깊은 기손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하셨으므로 다시금 그 강의 이름은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다.

17. ⓐ 메스로 성읍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23절)

- Ⓐ (1) 메스로는 이스라엘과 계약 의무 관계에 있던 가나안의 한 성읍으로서 기손 시내 전투장 바로 옆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그런데 이 성읍 거민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 군대를 치지 아니 함으로써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철저한 저주가 선언되었다.
- (3)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로 반항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거나 나태히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 시스라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4-27절)

- Ⓐ (1) 이 부분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4:17-21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했다.
- (2) 시스라는 그의 머리로 악한 계획을 짜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참히 괴롭혔으나 (4:3), 이제 그 머리는 야엘에 의해 무참히 박살이 나고 말았다.
- (3)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처럼 자기가 행한 행실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 마 21:43, 44).

19. ⓐ 시스라의 어머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28-30절)

- Ⓐ (1)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에 익숙한 그의 아들이 이번에도 틀림없이 승전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 (2)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시스라가 이미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열매가 없는 '죽은 소망'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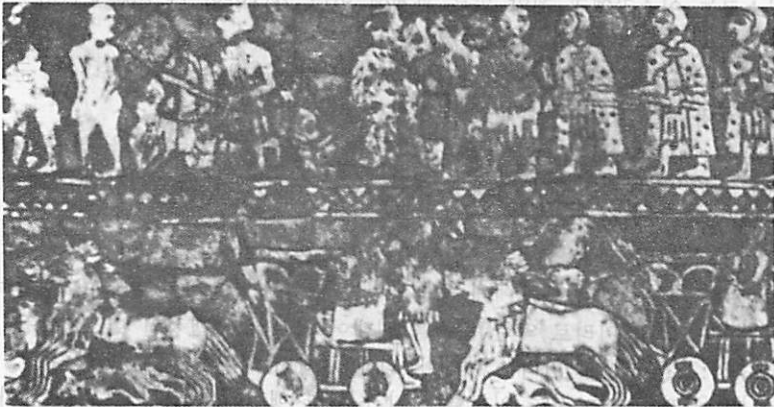
- (3)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도 이와 같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소망이다.
- (4)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주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산 소망’을 갖게 된다(벧전 1:3).

20. **㉠**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섬멸시키고 승리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31 절)

- ㉠** (1) 드보라는 그녀의 노래 마지막 부분 (31 절)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삶에 적용될 하나의 예표적 (typical event)임을 밝히고 있다.
- (2) 특별히 31 절에서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의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되었던 것같이’ (4:24) 오늘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21:44).
- (3) 반면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드보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점에서 (4:6, 7, 1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 (4)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 (5) 해가 아침에 돋음으로써 어두움을 완전히 축출(逐出)할 뿐 아니라 계속하여 온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승리한 성도들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계 22:5).

화보자료

가나안인의 절병거. 아래의 사진은 B.C. 27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우르(Ur)의 군기(軍旗)로서 당시 병거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다.



본장에는 시스라(Sisera)의 병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28절). 가나안인들은 히브리인들보다 일찍 (B.C. 12세기경) 철기 문화를 수용하였기에 금속 무기를 제조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참조, 수 6:19, 24).

제 6 장 미디안의 압제와 기드온의 소명

단락구분 1-6 백성의 죄로 인한 미디안의 침입 / 7-10 백성의 회개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임 / 11-16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선택된 기드온 / 17-24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과 하나님의 위로 / 25-27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파괴하다 / 28-32 백성들의 원망과 요아스의 답변 / 33-35 적의 내습(來襲)과 기드온의 출병령(出兵令) / 36-40 기드온에게 소명을 확신시키신 하나님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매뚜기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1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

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추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21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갓고 여호와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결의 아세라 상을 찍고

26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헐과되었으며 단결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헐과하고 단결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헐과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

이니라 하니라

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헐과하였은즉 바알이 더 붙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33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좃고

35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은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좃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좌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찌기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좌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야빈을 정복한 후 40년의 평화로운 기간이 지난 뒤 닥쳐 오는 또 다른 고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 (2) 즉 평화 기간 동안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目前)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되 7년간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 (3) 이러한 환난 가운데 회개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
- (4) 본장에 이어 7, 8장까지 기사가 나오는데 본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준비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 (5) 이러한 본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공의로 징계하시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에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참조, 합3:2).

2. ㉠ 미디안에 관하여 설명하라(1절).

- ㉠ (1) 이스라엘이 드보라 사사의 구원 사역에 의해 40년간이나 평화 시대를 구가했으나 다시금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
- (2)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미디안' 족속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 미디안의 후손들이었다(창 25:2).

- (3) 이들은 주로 모압과 암몬 사람이 거주했던 요단 동편 지역의 동쪽에 있는 초원 지대에 살던 족속으로 그들에게는 왕이나 방백 또는 군사적 지도자가 없었던 미개인들이었다.
- (4) 이처럼 미개인들에게 이스라엘이 힘없이 굴복당하여 압제를 당했던 사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놓여 버린 인생의 비참한 운명을 나타내 준다.

3. **㉠**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몇 년이나 압제를 당하였는가? (1, 2절)

- ㉠** (1)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신음한 기간은 7년이었다
- (2) 이 기간은 구산 리사다임 아래서의 8년, 에글론 아래서의 18년, 그리고 야빈에 의한 20년간의 압제에 비하면 보다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구멍과 굴을 만들어 피신하여 살았다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참상(慘狀)으로 이때의 압박이 매우 가혹했었음을 말해 준다.

4. **㉠**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란 언제를 말하는가? (3절)

- ㉠** (1)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 동방 사람 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때는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였다.
- (2) 지중해성 기후에 속한 팔레스틴 지방은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에 접어들게 되면 일련의 뇌우(雷雨)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내 건조했던 땅을 부드럽게 해준다.
- (3) 이때에 농부들은 땅에 쟁기질을 하고 씨뿌리기(播種)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 (4) 침략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중요한 파종 시기를 골라서 쳐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도록 했다.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8절)

- ㉠** (1)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택하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 (2)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1절이나 2:1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셨던 것과는 달리 보통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3) 왜냐하면 '한 선지자'가 히브리 원문에 '한 사람 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참조, 마 3:2; 4:17).

6. **㉠**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였는가? (8-10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상실하고 고난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다.
- (2) 즉 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7. **㉠**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 (11절)

- ㉠** (1) 본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2:1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현현(顯現)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참조, 22절).
- (2)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은 현재의 '아플라'로 추정되는 '오브라'였는데 이곳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기업에 포함된 땅이었다.
- (3)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로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낳은 딸 함몰레렛의 아들인 아비에셀 가문의 태생이었다(참조, 수 17:2; 대상 7:18).
- (4) 한편 본절에서 오브라를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한 것은 수 10:23에 나온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오브라'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8. **㉠** 기드온이 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기드온은 히브리어로 '베는 자', '벌채자' (伐採者)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그는 미디안과 그 동맹군을 벌채(伐採)하듯이 격렬하게 되었다(7:14, 25).
- (2)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로 소명(召命)을 받게 될 때에는 밭을 타작하고 있었다.
- (3) 본래 밭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신발 또는 황소의 발굽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4) 그러나 기드온은 바위에 구멍을 내어 만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밭 타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4절).
- (5) 이처럼 밭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택하여 미디안 대적들을 밭 타작하듯이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전 1:27).

9. **㉠**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여호와의 사자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 가면서 초라하게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호칭(呼稱)하였다.
- (2) 그것은 비록 기드온이 지금은 비천한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나눠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큰 용사로서 활동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 (3) 즉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하고 그 아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였으나(15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4) 매우 아이러니칼(ironical)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고후 12:9) '성도는 약해져야만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고후 12:10).

10. **㉠**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 (17-21절)

- ㉠** (1) 기드온은 자기의 연약함과 한편 사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징을 구하였다.
- (2)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이 가져 온 고기와 무고 전병을 살라 버리는 표징을 보여 주셨다.
- (3) 이렇게 표징을 구한 기드온의 자세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重且大)하였기에 취해진 조처였다.
- (4) 신약의 성도들도 후시 신비한 계시를 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신중하게 기도하며 시험해 보아야 한다(요일 4:1).

11. **㉠**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본 후에 '슬프도소이다'라고 한 뜻을 설명하라(22, 23절).

- ㉠** (1) 기드온은 자기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란 사실을 깨닫고 즉시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슬프도소이다'라고 탄식했다.
- (2)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를 본 자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출 33:20).
- (3) 이처럼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하여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나온 탄식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13:22), 선지자 이사야에게서도(사 6:5) 찾아 볼 수가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셨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고후 4:4; 빌

2:6) 죽기를 무서워하여 떠는 모든 죄인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여 주신다(히 2:15).

12. **㉠**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셨는데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살롬>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였는데 이는 '여호와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다.
 (3)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을 후대에 전하여 교훈이 되도록 한 예(例)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창 12:17; 13:18; 28:18; 삼상 14:35; 삼하 24:25 등).
 (4) 특별히 '여호와 살롬'이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
 (5) 그 이유는 그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엡 2:14-18).

13. **㉠**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 받고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25-27절)

- ㉠** (1) 기드온은 부름 받은 날 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신의 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2) 이렇게 우상을 파괴했던 기드온의 행위는 사실 그의 생명을 건 신앙적 용단이었다.
 (3)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은 우상을 파괴한 사실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다(30절).
 (4)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구원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일념(一念)으로 과감히 우상을 파괴했던 것이다(참조, 히 11:6).
 (5) 소명을 받은 자마다 기드온과 같은 담대한 신앙으로 주위에 있는 우상적 요소들을 먼저 척결(剔抉)해야 한다.

14. **㉠**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함은 무슨 뜻인가? (28-32절)

- ㉠** (1)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파괴한 일이 있는 후에 요아스는 그의 아들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었다.
 (2) 이 이름은 '바알이 더불어 쟁론한다'는 뜻으로서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3) 또한 이 이름 속에는 기드온이 바알을 쳐부수었으나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하였음을 조롱하는 의미가 있다.
 (4) 이로써 이제 바알의 무능력은 입증되었으며 바알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게 되었다.
 (5) 그러므로 '여룹바알'이란 이름은 바알이 거짓 신(神)이라는 산 증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어 주는 이름이다.

15. **㉠** '여호와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란 무엇을 뜻하는가? (34절)

- ㉠** (1) 일찌기 웃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 임하신(3:10) '여호와와의 영'(The Spirit of the Lord)은 이제 기드온에게도 임하였다.
 (2) 본절에 '강림하셨다'는 말은 '웃을 입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바쉬>에서 온 말이다.
 (3)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웃입히시듯 또는 쇠사슬이나 무거운 장비로 그를 감싸시듯하여 기드온이 그 힘에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다(참조, 11:29; 13:25; 14:6, 19).

16. **㉠**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4절)

- ㉠** (1) 여기서 기드온이 분 나팔은 빨나팔을 가리키며 이것을 부는 행위는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2) Living Bible은 이러한 의미를 살려 '그는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다' (he blew a trumpet as a call to arms) 라고 번역하였다.

(3) 결국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먼저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였던 것이다(참조, 3:27).

17. **㉠**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34절)

㉠ (1) 가장 먼저 기드온을 쫓겠다고 나선 족속은 기드온과 같은 가문(家門)인 '아비에셀' 족속이었다(11절; 수 17:2; 민 26:20).

(2) 이들은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훼파하였다하여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었으나(30절) 바알이 전혀 무력하고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제는 기드온을 돕는 데 앞장을 섰던 것이다.

(3) 이렇듯 기드온이 큰 일을 성취하기에 앞서 가장 가까운 자기 가문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4) 우리도 가정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신실한 성도로 인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딤편 3:4, 5, 7).

18. **㉠** 아비에셀 족속 외에 기드온과 힘을 합한 지파들은 어떤 지파가 있는가? (35절)

㉠ (1) 기드온은 아비에셀 족속이 자기에게 나아온 후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15절)를 위시하여 북쪽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사자들을 보내어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이 중 스블론과 납달리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에도 목숨을 걸어 놓고 전투에 참여했던 열심 있는 지파들이었다(참조, 5:18).

(3) 한편 바락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5:17)가 이번에는 기드온의 부름에 응하였고 그 전투에 참가했던 에브라임 지파(5:14)는 이번 전투에 소집되지 아니하였다.

(4) 그리하여 이 전쟁이 끝난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였다(8:1).

19. **㉠** 기드온은 전투에 나가기 직전 어떤 표적을 구하였는가? (36-40절)

㉠ (1)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 둔 한 뭉치의 양털에만 이슬이 있기를 구했고 그 이튿날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다 이슬이 있기를 구했다.

(2)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여 주셔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다.

(3) 이처럼 요구한 표적이 이루어지자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전투에 임했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7장).

20. **㉠** 기드온이 다시금 표적을 구한 사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36-40절)

㉠ (1) 기드온은 이미 흔들릴 수 없는 표징을 보고서(21절) 그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22절).

(2) 그러한 그가 다시금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그의 의심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많은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기드온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육신이 연약하여졌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육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것이라고 한다(Keil, Matthew Henry 등).

(4)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부활의 표적을 구함으로써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참조, 요 6:26; 행 4:29-31).

제 7 장 기드온과 300 용사의 승리

단락구분 1 기드온과 미디안 군대의 대진(對陣) / 2-8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하다 / 9-15 기드온의 정탐과 적병의 꿈 이야기 / 16-23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큰 승리를 거두다 / 24-25 오렘과 스엠크를 처형하다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찌기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더라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핏는 것같이 그 혀로 물을 핏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핏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

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차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 가에 내려간즉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매뚜기의 증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르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14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기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 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향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21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부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벨 싯다에 이르고 또 답뱃에 가까운 아벨흐롤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24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벨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무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벨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무턱을 취하고
 25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렘과 스옴을 사로잡아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스옴은 스옴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렘과 스옴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말하라.**

- ㉠** (1) 전장(前章)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로 부름을 받은 내용과 더불어 그가 미디안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 먼저 우상을 쳐부순 내용을 살펴 보았다.
 (2) 이제 본장은 전투에 나선 기드온이 불과 300명이라는 소수의 병력으로써 무려 135,000명에 달하는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킨 기적적인 전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3) 6-8장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적은 여러 사사들의 기록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전쟁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전쟁사(戰爭史) 중에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4) 본장에 나타난 기드온의 전쟁 기사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귀한 내용이다(삼상 14:6; 17:47).

2. **㉠ 이스라엘과 미디안 양군(兩軍)의 대진 위치를 설명해 보라(1절).**

- ㉠** (1)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친 곳은 '하룻 샘' 곁이었고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북편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
 (2) '하룻 샘'은 일반적으로 길보아 산의 북서쪽 돌출부에 위치한 샘인 '아인 야룻'과 동일시되는데 이곳에 진친 기드온 군대는 식수(食水)를 장악하게 되었다.
 (3) 한편 '모레 산'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한 야산(野山)으로(6:33) '나인' 남쪽 약 1.6km에 위치한 오늘날의 '예벨 다히' (Jebel Dahi) 언덕과 동일시된다.
 (4) 이 같은 양 진영을 비교해 볼 때 미디안의 진(陣)이 아래 골짜기에 있었음에 비해(8절) 이스라엘은 높은 곳에 진을 베풀었으므로 군사 전략상 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10절).

3. **㉠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당시 미디안 군대의 수는 약 13만 5천 명에 이르렀으나(8:10)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3절).
 (2) 이처럼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상당한 열세(劣勢)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참조, 삼상 14:6).
 (4)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힘의 비교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참조, 잠 21:31; 전 9:11).

4. **㉠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사들을 돌려 보내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 돌려 보내도록 명령하셨다.
 (2)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쟁시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 보내라' (신 20:8)고 하신 말씀과도 부합된다.
 (3)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이 군대 중에 섞여 있으면 그들로 인해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으므로 그런 자들은 전투에 합당치 않았던 것이다.

(4) 이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기드온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히 전투할 자들만 1만 명이 남게 되었다.

5. **㉠**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로 대폭 축소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셨다.
 (2) 사실 이스라엘은 13.5:1의 말도 안 되는 수적 열세에 처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스라엘 군대의 수자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줄면 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이 돋보이게 될 것이므로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도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참조, 사 55:8).

6. **㉠** 전쟁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는 두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4-8절)

- ㉡** (1) 하나님께서는 전투에 참여할 용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물마시는 태도를 보게 하셨다.
 (2) 즉 물을 마시는 태도 중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오직 손으로 물을 움켜 개처럼 활아 먹는 자만이 전투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3) 결국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천 7백 명을 돌려 보내고 나니 남아 있는 군사는 3백 명에 불과했다.
 (4) 그러나 이 3백 명은 4,500대 1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해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초유(初有)의 기록을 남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7. **㉠** 손으로 물을 움켜 개처럼 활아 먹는 태도는 어떠한 군인 정신을 보여 주는가? (5절)

- ㉡** (1) 이러한 태도는 군복을 입고 있는 채 서서 손으로 약간의 물만 움켜 마시는 모습이다.
 (2) 즉 이렇게 물을 마신 군사들은 보통 편안하게 마시는 방법을 버리고 물마시는 태도에 있어서조차 투철한 군인 정신과 자제력(自制力)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8. **㉠**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진 자들인가? (5절)

- ㉡** (1) 이들은 갈증을 채우는 데에만 정신을 쏟았으며 방종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2) 즉 군사로서 쉽사리 긴장을 풀어 버리고 부주의와 무절제의 태도를 드러내어 결국 임박한 전쟁에 적합치 못함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다.

9. **㉠**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9-11절)

- ㉡** (1) 기드온을 쫓던 31,700명의 군사가 결을 떠나고 3백 명만 남게 되자 그는 3백 명의 군사로 어떻게 무수한 대적들과 싸울 것인지 근심하여 생각에 잠겼다.
 (2) 그날 밤 근심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에 네 손에 붙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
 (3) 또한 부하 부리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의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행 27:23).

10. **㉠**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부라는 이곳 외에 언급된 곳이 없다. 아마도 부라는 바알 신당을 부술 때 기드온과 함께 하였던 10명의 중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2) 하나님께서 부리를 함께 내려가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표적을 본 부라가 나머지 군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1. **㉠**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어떠하였는가? (12절)

- ㉡** (1) 본절에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토지 소

산물과 가축들을 탈취하기 위해 '미디안 군대와 동맹(同盟)을 맺고 쳐들어 왔다.

(2) 그런데 이들의 수효가 어찌나 많은지 골짜기에 진친 장막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고 약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만큼이나 많았다.

(3) 특히 무수한 약대의 수는 그들에게 보병 뿐 아니라 무수한 기병(騎兵)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암시한다.

(4) 이에 비해 기드온의 군대는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병 300명 뿐이었으니 이스라엘이 전력상 얼마나 열세(劣勢)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12. ㉠ 기드온은 미디안의 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13, 14절)

㉠ (1) 기드온은 보초(步哨)를 서고 있던 두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2) 그중 한 군사가 간밤에 커다란 보리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했다.

(3)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보리 떡을 기드온으로 해석하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고 해몽하였다.

13. ㉠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느낄 수 있는가? (13, 14절)

㉠ (1) 꿈이란 본래 인간의 생리적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덧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참조, 전 5:7).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한다(참조, 12:6; 욥 7:14; 렘 23:28).

(3) 본문에서 나타난 미디안 두 군사의 꿈 이야기는 기드온과 부라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14. ㉠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행했는가? (15절)

㉠ (1)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의 꿈과 그 해몽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

(2) 그리고 기드온은 용기가 충천(衝天)하여 이스라엘 진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들려 주신 승리의 말씀을 3백 용사들에게 전한 후 즉시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3) 이때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이니만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였던 것이다.

(4)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써 담대히 사단을 대적하면서 작극 공세를 취해야 한다(약 4:7; 벧전 5:8, 9).

15. ㉠ 기드온의 작전 명령은 어떠했는가? (16-18절)

㉠ (1) 기드온은 먼저 군대의 편제(編制)를 우익(右翼), 좌익(左翼), 본부 등 100명씩 3대(三隊)로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큰 부대인 것처럼 위장하게 하였다.

(2) 그리고 3백 명 전원에게 특이한 무기를 소지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햇불이었다. 이것들은 사실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빈약한 장비에 불과했다.

(3) 이처럼 빈약한 무기를 들고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군사들에게 기드온은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고 단호하고 확신에 찬 작전 지시를 내렸다.

(4) 이러한 기드온의 작전 명령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300용사들로 하여금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다.

16. ㉠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 (1) 기드온은 본부대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여 선발대로 삼고 선발대가 먼저 나팔을 불 때

좌·우익의 군대도 따라서 나팔을 불고 동시에 모든 군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RSV, for the Lord and for Gideon)는 함성을 지르도록 명령했다.

- (2) 이 함성은 기드온의 군대가 가진 무기는 보잘것없었으나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을 신뢰하고서 전투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 (3) 그들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역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는 믿음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17. **㉠** ‘이경 초’ (二更初)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9절)

- ㉠** (1)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를 가리키며 이때는 미디안군의 보초가 교대하고 잠이 드는 시간이었다.
- (2) 본절에서 ‘번병’(番兵)이란 ‘보초’, ‘파수군’을 말하며 ‘체번’(替番)은 보초의 근무 교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때에 기드온의 군대는 일제히 나팔을 불며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었는데 이 소리는 결국 잠자던 미디안 군대에게 우뢰와 같이 요란한 심판의 소리가 되었다.

18. **㉠**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라(20절).

- ㉠** (1) 적을 기습한 기드온의 3백 용사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을 외쳤다.
- (2) 그런데 본절에는 18절과 달리 ‘칼’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 (3) 실제로 칼을 가지지 않았던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적진에서 보초들이 꿈을 풀이하면서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했던 말을 인용한 듯하다.
- (4) 결국 기드온과 3백 용사는 외치는 것만으로도 칼의 위력을 능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이것을 가리켜 ‘입에서 나온 칼’이라고 표현하였다(참조, 제 19:21).

19. **㉠** 전황(戰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1, 22절)

- ㉠** (1) 때 아닌 나팔 소리와 함성 그리고 환한 불빛은 미디안 군대를 혼비 백산(魂飛魄散)케 하였다.
- (2) 마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는 나팔 소리와 함성에 의해 무너졌던 것처럼(수 6:20) 미디안 군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 (3)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공포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 (4) 이처럼 미디안 군대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자 기드온의 군사들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 나팔을 불었다.
- (5)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번쩍이는 횃불과 함성 속에서 적군이 벌써 영내(營內)에 잠입했으리라 생각하고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 (6) 결국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기 동료들을 찌르고 베는 무참한 살륙을 자행하다가 마침내 도망하고 말았다.
- (7) 이러한 전황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로서 일찌기 모세에게 주셨듯이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두 명이 1만 명을 도망케 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신 32:30).
- (8)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고백할 수 있었다.

20. **㉠** 미디안군은 어느 곳으로 도망하였는가? (22절)

- ㉠** (1) 미디안군은 한 곳으로 도망하지 않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 (2) 그들이 도망친 방향 중 하나는 ‘스레라의 벳 싯다’였다. ‘스레라’는 전투지인 모레산에서 동남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위치한 ‘사르단’(왕상 7:46)과 동일시된다.
- (3) 스레라 지방의 한 성읍인 ‘벳 싯다’는 ‘아카시아의 집’란 뜻으로 북쪽의 소 헬몬과 남

쪽의 길보아 산 사이에 위치한 촌락으로 추정된다.

- (4) 이들이 도망한 또 다른 방향은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였다. 답밭과 아벨므홀라는 요단 강을 사이로 각각 동쪽과 서쪽에 마주 보며 위치한 성읍들로 모레 산 동남쪽 약 45km 가량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5) 이렇게 미디안군이 혼비 백산하여 도망한 사실은 '악인은 쫓아 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잠 28:11; 욥 18:11)에 대한 좋은 실례(實例)이다.

21. **㉠**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24절)

- ㉠** (1) 본절부터 8:3까지는 23절과 시간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 삽입구이다.
- (2)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8:4 이하에 나타난 대로 미디안 주력 부대를 계속 추격하는 한편 나머지 패잔병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다.
- (3) 즉 기드온은 남쪽으로 도망하여 요단을 건너려는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사자(使者)를 보냈던 것이다.

22. **㉠** '벤 바라'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24절)

- ㉠** (1) '벤 바라'는 '얕은 여울의 성읍'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본절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많은 주석가들은 요 1:28에 요한이 세례줄 때 언급된 곳으로 간주하여 왔다.
- (3)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받고 벤 바라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점령하여 미디안 군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23. **㉠** 에브라임 사람이 죽인 미디안 두 방백의 이름은 무엇인가? (25절)

- ㉠** (1)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기 전 이미 나루턱을 점령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렘'과 '스엠펜'을 생포하였다.
- (2) 오렘은 까마귀란 뜻이고 스엠펜은 이리란 뜻인데 이러한 이름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성품 또한 비열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 (3)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렘을 바위 아래서 죽여 그곳 이름을 '오렘 바위'라 이름하였으며 스엠펜은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던(6:11) 그러한 포도주 틀에서 죽여 그곳 이름을 '스엠펜의 포도주 틀'이라고 불렀다.
- (4)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인 것은 미디안의 두 방백이 그곳에서 수치스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후대(後代)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24. **㉠** 본장에 나타난 기드온의 3백 용사들을 오늘날의 십자가 군병들로 비유할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 수(數)에 있어서 적을지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마귀 세력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엡 6:10-12).
- (2) 성도가 세상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햇불이다. 우리들의 무기는 결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破)하는 강력(強力)이다(고후 10:4).
- (3)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결국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미 7:7-10; 고후 4:8, 9).

제 8 장 기드온의 승리와 타락

단락구분 1-3 에브라임 백성의 불만과 기드온의 겸손한 대답 / 4-12 기드온이 미디안군을 추격하다 / 13-17 숙곳과 브누엘 사람에게 대한 복수 / 18-21 미디안의 두 왕을 살해하다 / 22-32 기드온의 과오와 그의 죽음 / 33-35 이스라엘의 타락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 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이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글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니

3 하나님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엿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4 기드온과 그 좃은 자 삼백 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6 숙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7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켈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8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 지라

9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10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십이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일만 오천 명 가량은 그들을 좃아 거기 있더라

11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욱브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14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숙곳 방백과 장로 칠십 칠 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켈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18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19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0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찌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뎠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22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걸음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 기드온의 청한 바금 귀고리 중수가 금 일천 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렸던 사슴이 있었다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울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사십 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

들이 칠십 인이었고

31 세겔에 있는 침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배운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교훈을 말하라.

- ㉠ (1)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에 은유하게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내분을 막았으며, 결국은 135,000명의 대군을 300명에 불과한 소수의 정병으로 격파하였다.
- (2) 기드온의 승리는 전사에 길이 빛나는 승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었다.
- (3) 그런데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에봇을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 (4) 본장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롬 3:10)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할 때일수록 시험에 떨어질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전 10:12).

2. ㉠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툰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으로서 서로가 우월감을 가지고 경쟁 관계를 느끼고 있었다(창 48:19).
- (2) 즉 므낫세는 장자라는 권리를 내세웠으며 에브라임은 야곱으로부터 더 큰 축복받은 것을 내세웠던 것이다.
- (3)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큰 업적을 세우게 되자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므낫세에 뒤진다고 생각하여 몹시 시기(猜忌)하게 되었다.
- (4) 더구나 미디안과의 전투 초기에 에브라임을 참전토록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분(憤)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 (5) 이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관계이면서도 상대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는 경쟁 의식에 의해 커다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 (6) 그러나 형제나 친구 사이 혹은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7) 즉 상대가 잘될 때 그것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격려해 주며 축하해 줌으로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 12:15; 고전 12:26).

3. ㉠ 에브라임과의 분쟁을 해결한 기드온의 지혜로움을 생각해 보라 (2, 3절).

- ㉠ (1)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겸손한 말로 대답함으로써 분쟁을 지체롭게 해결하였다.
- (2) 즉 그는 자기의 업적이 그들의 업적보다 못하다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 가문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비유를 들었다.
- (3) 이처럼 기드온은 결코 과격한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동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은유한 대답으로 그들의 타오르는 분노를 쉬게 하였다(참조, 잠 15:1).
- (4)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란 견고한 성을 취하기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잠 18:

19)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잠 16:32).

(5) 그러므로 기드온의 은유와 겸손은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지혜이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은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은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딤후 2:24, 25).

4. **㉠**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말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나'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여기서 '끝물 포도'란 포도를 다 딴 후 이삭 줍기로 얻는 포도를 말하며 '말물 포도'는 정식으로 수확하는 포도를 가리킨다.
 (2) 이런 의미에서 KJV, RSV, NIV 등은 이 부분을 '에브라임의 포도 이삭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나'라고 번역하였다.
 (3) 그러므로 이 말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므낫세 지파가 세운 공로보다는 전쟁의 끝 무렵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낫다는 풍자적인 표현인 것이다.

5. **㉠**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음으로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 (4-17절)

- ㉠** (1)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기드온의 군대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야 마땅했다.
 (2) 그러나 이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두 왕을 사로잡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돕기를 거절하였다. 이들은 힘 있는 자의 곁에 가담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3) 기드온은 승리 후에 이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즉 숙곳 방백들을 붙들어서 들가시와 쥘레로 살을 찢었고 브누엘에서는 망대를 헐며 사람들을 처형했다.
 (4)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에 대한 당연한 형벌이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참조, 렘 48:10; 고전 16:22).

6. **㉠** '숙곳'과 '브누엘'의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라 (5, 8절).

- ㉠** (1) '숙곳'은 요단 동편 갓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압복 강 바로 윗쪽에 위치하여 있다(참조, 창 33:17; 수 13:27).
 (2) 또한 '브누엘'은 숙곳의 동북방 6.4km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곳은 전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귀향하던 중 천사와 씨름한 후 불렀던 '브니엘'과 동일한 곳이다(창 32:30).

7. **㉠**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 패잔병을 어떻게 진멸하였는가? (10-12절)

- ㉠** (1) 기드온의 군대는 매우 피곤한 가운데 또 숙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의 냉대(冷待)를 겪으면서 계속 세바와 살문나가 거느린 미디안 패잔병을 추격해 갔다.
 (2) 그러다가 드디어 노바와 욱브하 근처 갈골에 피신하여 있는 패잔병 1만 5천 명을 발견하고 습격하여 온 군대를 진멸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다.
 (3) 여기서 '노바'는 보스라의 동쪽 25km에 위치한 현재의 '가나와드'와 동일시되며 '욕브하'는 '라박 암몬' 서북쪽 10km에 위치한 '엘 유베이하'와 동일한 곳이다.
 (4) 결국 기드온은 육신적인 악조건 하에서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철저히 격파하였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비록 세상적인 악조건이나 사람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참조, 대하 32:7, 8).

8. **㉠** '헤레스 비탈'에 대하여 설명하라 (13절).

- ㉠** (1) 이 말을 RSV, NIV, Living Bible은 개역 성경과 같이 지명으로 번역했으나 KJV는 '해뜨기 전'(before the sun was up)이라고 번역했다.
 (2) 이러한 견해 차이는 원문의 '헤레스'를 단순히 지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태양'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 (3) 이중에서 개역 성경, 공동 번역 등과 같이 '헤레스'를 지명으로 보는 입장이 무난하다. 그러나 헤레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9. **㉠**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행한 기드온의 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17절)

- ㉠** (1) 숙곳과 브누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피곤하여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도 냉대하였다(4-9절).
 (2) 이것은 기드온의 군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3) 왜냐하면 그들이 기드온의 군대를 냉대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에서 비롯된 처사이었기 때문이다.
 (4)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냉담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도전 행위로 정리되어진다(참조, 마 12:30-32).

10. **㉠**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심문한 결과 그들의 죄목은 무엇이었는가? (18, 19절)

- ㉠** (1) 기드온은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한 후 세바와 살문나를 끌고 이스라엘 평지로 돌아와서 그들을 처형하기 전에 먼저 심문(審問)을 하였다.
 (2) 그 결과 그들은 다블 산에서 기드온처럼 왕자다운 귀골(貴骨)을 지닌 자들이었다고 말함으로써 기드온 친 형제들을 죽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3) 이에 대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그들을 살려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4) 이처럼 악인이 행한 행동은 결국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변명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참조, 계 20:13).

11. **㉠** '사람이 어떠한 그 힘도 그러하리라'란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

- ㉠** (1) 이 말은 사람에게는 그 됨됨이 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다(KJV, for as the man is, so is his strength).
 (2) 즉 어린 여덟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세바와 살문나는 장부(丈夫)의 기질을 가진 기드온에게 죽기를 원했던 것이다. 공동 번역은 뜻을 강조해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고 의역(意譯)했다.
 (3) 그러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의 원대로 그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12. **㉠** '새 달 형상(形狀)의 장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1절)

- ㉠** (1)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약대 목 위에 꾸며져 있던 장식품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으로서 반달(半月) 모양의 장식품이었다.
 (2) 미디안 사람들은 이러한 장식품을 월신(月神) 숭배의 부적(符籙)으로 휴대하고 다녔다(참조, 사 3:18).
 (3) 미디안 왕이 이러한 부적을 약대의 목에까지 걸어둔 것을 보면 당시 그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여기서 기드온이 이 부적을 취한 것은 이방의 우상을 정리하고 없앤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5)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러한 부적으로 우상화된 에봇을 만든 것으로 보아(26절)이 경우에는 단순히 전리품으로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3. **㉠**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기드온이 취한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 (2) 그러나 기드온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 (3) 보통 사람들은 그 직책이 높아지며 명예를 얻게 되면 안하 무인격으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많다.
- (4) 예수님 당시 헤롯 아그립바는 백성들로부터 신(神)과 같다는 찬사를 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주의 사자의 침을 받아 충(蟲)이 먹어 죽었다(행 12:21-23).
- (5) 이에 비해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결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만 왕이 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한 겸손한 자였다.

14. **㉠**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동기는 무엇인가? (27절)

- ㉠** (1)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는 대신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 1,700세겔(19.38kg)과 여러 금 패물 등을 요청하여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성읍 오브라에 비치했다(24-27절).
- (2) '에봇'은 의복의 일종으로서 주로 대제사장이 착용하여 우림과 들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참조, 출 28:4, 6-30; 삼상 23:9-12; 30:7, 8).
- (3) 그러므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된 동기는 실로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기능을 행하려는 데에 있었다.
- (4) 이처럼 기드온은 왕이 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지켜야 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15. **㉠**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27절)

- ㉠** (1) 기드온의 에봇은 원래 우상 숭배의 경향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마저 우상시하여 음란하듯(참조, 2:17) 섬기게 하는 범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이 같은 결과는 온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을 파멸까지 이르는 울무가 되고 말았다.
- (3) 우리는 여기서 한 지도자의 실수와 범죄가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치명적인 타락으로 인도하는가를 보게 된다.

16. **㉠**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몇 년간 태평 시대를 누렸는가? (27절)

- ㉠** (1)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정복한 당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 시대를 누렸다.
- (2) 이 기간은 웃니엘과 드보라가 통치하던 때와 같은 기간이었다(참조, 3:11; 5:31).

17. **㉠** 기드온의 가정 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9-31절)

- ㉠** (1)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창 2:24).
- (2) 그러나 인간의 욕정으로 인하여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창 4:19).
- (3) 그렇지만 노아나 욥같이 경건한 자들은 한 아내만 두었다(창 7:13; 욥 2:9).
- (4)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겸손한 자이기는 했으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 (5) 즉 그는 주변 이방 풍속의 영향을 받아 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18. **㉠** 기드온의 가정 문제가 야기시킨 비극은 무엇이며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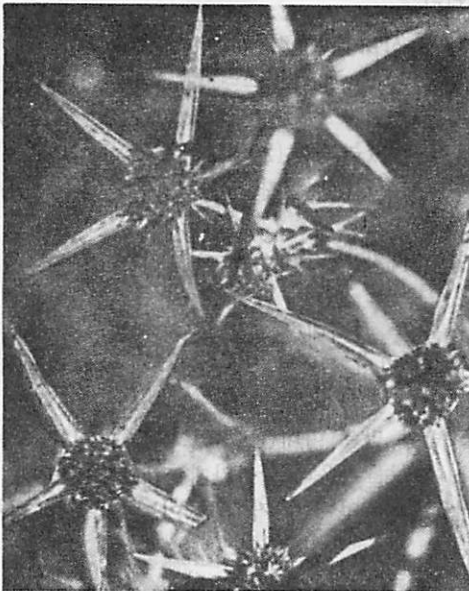
- ㉠** (1) 기드온의 가정 문제가 야기시킨 가장 큰 비극은 세겔에 있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서자(庶子)로서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가 끔찍한 살인극을 연출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 (2) 즉 그는 기드온의 70아들 중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반석 위에서 몰살시켜 버렸던 것이다(9:5).

- (3)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많은 아내를 둔 사람의 가정은 항상 불화(不和)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한 상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 (4) 오늘날에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여 많은 여자와 불륜(不倫)의 관계를 맺다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 (5)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여기고 계심을 명심하고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기 마땅하다 (엡 5:22-33).

19. **㉠**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33-35 절)

- ㉠** (1)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다시금 우상 숭배에 몰입하게 되었다.
- (2) 죽 이스라엘은 환난 때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또한 기드온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망각하여 기드온의 가문을 돌보지도 않았다.
- (3) 애굽의 술 관원장도 감옥 속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복직(復職)을 하는 은혜를 입었으나 자기 몸이 편하게 되자 요셉의 은혜를 잊고 말았다 (창 40:23).
- (4) 이렇게 배은 망덕(背恩忘德) 한 자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조, 잠 17:13).
- (5)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도움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히보자료



가시나무. 옆의 사진은 팔레스틴에 흔한 가시나무의 한 종류로서 털갈매나무이다.

성경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로 묘사되었다(창 3:18). 본장에서 기드온이 들가시로 숙곳 사람들을 찌르라고 한 것도 곧 그들의 교만에 대한 징계를 의미한다(7절).

제 9 장 아비멜렉의 반역과 멸망

단락구분 1-6 세겜 거민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다 / 7-21 요담이 비유를 들어 꾸짖다 / 22-33 가알의 역모(逆謀) / 34-49 아비멜렉이 가알과 세겜을 정복하다 / 50-57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3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4 바알브릿 묘에서 온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당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좃게 하고

5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니 오직 여룹바알의 말재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7 흑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

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나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나

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거늘

18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19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21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삼 년에

23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5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흑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외하니라
 27 그들이 밤에 가서 포도밭을 거두어다가 밟아 찌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30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31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니
 32 당신은 당신을 좇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밤에 매복하였다가
 33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찌기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좇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34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뉘어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 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37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좇아 내려오고 또 한 떼는 므오느님 상수리나무 길로 좇아 오는도다
 38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관대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는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39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41 아비멜렉은 아무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

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42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43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떼로 나뉘어 밤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44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45 아비멜렉이 그 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46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48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좇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좇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일천 명이었더라
 50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51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54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56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 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57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1) 본장에는 기드온이 죽은 후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 기록

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외침(外侵)을 통하여 징벌이 내려지지 않고 내란(內亂)을 통하여 내려졌다.
- (3) 이 징벌 과정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의 서자(庶子)인 아비멜렉이다.
- (4) 아비멜렉은 매우 잔인한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살해한 후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폭정(暴政)을 행하였다.
- (5) 이처럼 아비멜렉의 불의한 일에 동참하던 세겜 사람들은 도리어 아비멜렉의 칼날에 멸망을 당하고 아비멜렉 자신도 여인의 손에 수치스런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 (6)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악을 행한 자가 결코 굳게 서지 못하며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시 1:5; 5:5; 갈 6:7).

2. **㉠** 아비멜렉의 고향 세겜은 어떤 성읍인가? (1절)

- ㉠** (1) 세겜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으로 보다더 정확히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 (2) 이곳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고(창 12:6, 7) 야곱이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곳이었으며(창 33:18-20) 또한 요셉의 매장지(수 24:32)로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한 장소로서(수 24:1, 25) 유명한 곳이다.
- (3) 기드온은 이곳에 있는 첩을 통해 서자 아비멜렉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의 고향 세겜은 본장에 나타난 모든 사건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3. **㉠** 아비멜렉은 자기 고향에서 어떤 음모를 꾸렸는가? (1, 2절)

- ㉠** (1)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외가(外家)의 모든 가족들을 모은 가운데 기드온의 70 아들을 해치우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계락을 꾸렸다.
- (2) 그는 특별히 자기를 세겜 사람들의 골육지친(骨肉之親)이라고 부르면서 친척 감정에 호소했다.
- (3) 결국 이 말에 의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데에 공범자가 되고 말았다.
- (4) ‘피는 물보다 진하고 혈연은 이성(理性)보다 강하다’는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혈연의 인정에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
- (5)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눅 14:26).

4. **㉠**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도왔는가? (3, 4절)

- ㉠** (1) 그들은 바알브릿 신당의 수입 중에는 70개로 아비멜렉에게 지원금(支援金)을 주었으며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건달패를 고용하여 형제들을 살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 (2) 여기서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당시 세겜 사람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보여 준다.
- (3) 또한 은 70개는 은 70세겜(약 802g)을 말하는 것으로 이 돈을 사용하여 70형제를 살해할 건달패를 고용하였으니 형제 1명당 은 1세겜씩으로 살인을 청부한 셈이 된다.
- (4)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우상의 부정한 돈을 사용하여 불량배를 매수하여 무죄한 친족들을 죽이게 하였으니 가증한 죄를 중복하여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5. **㉠**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살해했는가? (5절)

- ㉠** (1) 아비멜렉은 돈으로 매수(買取)한 불량배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 70인을 반석 위에서 한꺼번에 살해했다.
- (2) 사실 이때 살해된 형제의 수는 아비멜렉과 요담을 제외하면 정확히 68명이나 사사기

저자는 형제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적 표현 양식으로서 '70'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3) 또한 아비멜렉이 반석 위에서 형제를 살해했다 함은 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말인데 이는 정권 탈취를 위한 공식적 숙청 행위를 의미한다.
- (4) 이와 같은 친족 살인을 통한 정권 탈취 행위는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듯이(왕상15:27 이하; 왕하 10, 11 장) 인류 역사와 현대의 독재주의 국가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6. **㉠** 아비멜렉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는가? (6절)

- ㉠** (1) 그는 세겜과 밀로 백성들에 의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서 왕으로 즉위했다.
- (2) '밀로'는 원래 <베트 밀로>, 즉 '밀로의 집'이라 불리웠던 세겜 근처에 있는 마을이다.
- (3)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을 잔악하게 숙청하고 난 후 세겜의 왕이 된 사건은 미디안을 영광스럽게 이긴 후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던 기드온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더구나 세겜은 아브라함 이래로 종교적 성지(聖地)였는데 이곳에서 이토록 끔찍한 피의 숙청과 정치적 사변(事變)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7. **㉠** '그리심 산 꼭대기'는 어떤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가? (7절)

- ㉠** (1) 그리심 산은 세겜 남서쪽에 있는 해발 854.7m 높이의 가파른 돌산이며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에발 산과 마주하고 있다.
- (2) 이 산은 고대부터 축복의 산으로, 에발 산은 저주의 산으로 여겨져 왔다(참조, 신 11:29).
- (3)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요담은 역설적으로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비유를 들려 주었다.
- (4) 또 요담이 이 산을 택하여 외쳤던 것은 이곳의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도 그 아래 지역과 에발 산 위에까지 들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8. **㉠** 요담은 그리심 산에서 어떠한 어조(語調)로 말하였는가? (7절)

- ㉠** (1) 요담은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처음부터 엄숙하고 예언적인 어조를 띠었다.
- (2) 그는 아비멜렉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뉘우쳤다면 그들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 (3)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고 규탄하는 소리도 차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4)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고 말했다.

9. **㉠** 요담의 우화(寓話)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8-15절)

- ㉠** (1) 이 부분은 유명한 요담의 우화로서 이를 기초로 해서 요담은 16-20 절의 메시지를 적용하고 있다.
- (2) 우화는 교훈적인 이야기의 한 형태인데 식물이나 동물을 의인법(擬人法)에 의해 묘사한 것이며 민중 설득에 좋은 방법이다.
- (3) 이러한 요담의 우화에는 먼저 왕이 되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하여 세 종류의 나무,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겸손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타난다(8-13절).
- (4) 이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만은 자청하여 왕이 되겠다고 나섬으로써 매우 아이로니컬한 면을 보여 준다(14, 15절).
- (5) 이것은 왕이 될 만한 명분이나 인품이 구비되지 못한 아비멜렉의 부당한 왕권을 지적해 주는 데 매우 적절한 우화라고 할 수 있다.

10. ㉠ 요담의 우화 중에서 요점이 되는 내용을 말해 보라(15절).

- ㉠ (1) 우화의 요점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왕위를 거절한 것은 마치 기드온의 행위와 같고 가시나무가 자청해서 왕이 된 것은 아비멜렉과 같다는 비유에 있다.
 (2) 이 비유는 아비멜렉에게는 왕이 될만한 요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3) 즉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는 팔레스틴의 주요 산물이지만 가시나무는 불쏘시개감밖에 되지 못한다.
 (4)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이 아무 명분도 지니지 못한 채 권세만을 탐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참된 지도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 20:26-28).

11. ㉠ 요담은 그의 우화를 통해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19, 20절)

- ㉠ (1)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했다.
 (2) 따라서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징벌로 임할 것이라고 요담은 예언했다.
 (3) 즉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파멸케 할 것이요 세겜과 밀로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파멸케 하리라는 것이다.
 (4) 이처럼 악한 일에 공모한 자들은 또한 피차간에도 적이 되어 서로를 물고 뜯으며 결국은 파멸에 처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참조, 시 9:15, 16; 잠 3:33).

12. ㉠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한 '브엘'은 어떤 곳인가? (21절)

- ㉠ (1) 요담이 우화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마치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요담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2) 이에 요담은 '브엘'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는데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장소이지만 그 자세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13. ㉠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은 어떠하였는가? (22절)

- ㉠ (1) 본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사 중의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는 자칭 왕이었지 사사라고 언급된 곳은 성경에 없다.
 (2) 사사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 아비멜렉은 그의 반역성으로 볼 때 결코 사사로 간주될 수 없다.
 (3) 다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였는데 결국 악에 깊이 빠진 아비멜렉은 그 기간 동안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4)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떨치 말아야 한다(롬 2:4).

14.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겜 사람을 심판하셨는가? (23, 24절)

- ㉠ (1) 못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대상 28:9; 살전 2:9) '악한 신'(RSV, evil spirit)을 보내어 세겜 사람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마음을 주장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70 아들을 살해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세겜 사람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셨던 것이다.
 (3) 이처럼 무죄한 피를 흘린 악인들의 죄(잠 6:17)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공의로 심판되고야 만다(신 32:35).

15. ㉠ 에벳의 아들 '가알'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26절)

- ㉠ (1) 가알은 친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이름인 '에벳'이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2) 즉 가알은 종의 가문에서 출생한 자로서 고상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선동가로 보인다.

16. **㉠** 가알은 어떻게 아비멜렉을 비판하였는가? (26-29절)

- ㉠** (1) 가알은 바알브릿 신당에서 베풀어진 연회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거리는 가운데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비판했다.
- (2) 그는 특별히 바알의 힘을 의지하려는 세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아비멜렉이 바알을 파괴한 기드온의 아들임을 강조하여 세겜 사람의 증오심을 고취(鼓吹)시켰다.
- (3) 또한 그는 아비멜렉이 혼혈 혈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순수한 세겜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 (4) 이러한 가알의 주장은 결코 합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 것으로 결국 자신과 세겜의 과벌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17. **㉠** 아비멜렉의 세겜 토벌 작전은 누구를 통해 수립되었는가? (30-33절)

- ㉠** (1) 바알브릿 신당의 연회에서 가알이 행한 도전적인 말을 들은 세겜 성읍의 장관 스불은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보내어 세겜의 정황을 알리면서 토벌을 요청했다.
- (2) 스불은 사실상 세겜 성읍을 통치하는 장관으로서 아비멜렉의 비호하(庇護下)에 자신의 권세를 획득하며 유지해 온 아비멜렉의 심복 부하였다.
- (3) 따라서 그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는 아비멜렉의 흥망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겜 토벌 작전을 제안하고 나섰던 것이다.

18. **㉠** 세겜 성은 어떻게 토벌되었는가? (34-49절)

- ㉠** (1) 세겜 성은 3차에 걸친 작전으로 토벌되어 수많은 거민들이 살육당하고 말았다.
- (2) 1차 토벌은 가알과 함께한 반란군의 주도 세력을 격파하였고 다음날 2차 토벌에서는 밖으로 나온 세겜 거민을 진멸하고 마지막으로 세겜 망대에 모인 1천 명을 살육했다.
- (3) 이로써 무죄한 피를 흘린 세겜 거민들의 죄악이 요담의 예언과 같이 (20절) 아비멜렉의 칼날을 통해 심판되고 말았다.

19. **㉠** 세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린 의미는 무엇인가? (45절)

- ㉠** (1) '소금'이란 용어는 종종 불모지나 폐허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욥 39:6; 시 107:34; 렘 17:6; 습 2:9).
- (2) 이런 의미에서 정복한 땅에 소금을 뿌리는 관례가 생겼으며 이런 관례는 아시리아의 군대사(軍隊史)에도 나타난다.
- (3) 결국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세겜 성이 영원한 폐허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아비멜렉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4) 그러나 그의 저주는 실현되지 않았다. 후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세겜 성을 다시 건축하여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다(왕하 12:25).

20. **㉠**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50-55절)

- ㉠** (1) 아비멜렉은 데베스의 망대를 불사르려 하다가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 윗쪽에 머리를 맞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 (2) 이런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은 우리에게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 (3) 세겜의 승리로 살기 등등했던 그의 모습, 데베스 성루를 불태워 버리려 했던 그 흥포함, 뉘우칠 줄 모르고 극성을 부리던 잔인한 등이 그의 두끝이 깨어짐과 동시에 산산히 부서졌다.
- (4)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세겜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기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회개치 않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 (5) 이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시 49:12, 20).

제 10 장 이스라엘의 또 다른 범죄

단락구분 1-5 돌라와 야일이 사사직을 행하다 / 6-9 이스라엘의 배교(背敎)와 블레셋과 암몬족의 압제 / 10-16 이스라엘의 회개와 간구 / 17-18 암몬의 내습(來襲)과 대진(對陣)

1 아비멜렉의 후에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 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하여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 십 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밧에 장사되었더라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 그에게 아들 삼십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댔고 성읍 삼십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 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칭하더라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8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십 팔 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곤고 가 심하였더라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

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16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 치고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두 명의 소사사(小士師) 돌라와 야일의 행적이 간단하게 소개된 후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다가 이방의 압제로 고통받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 (2)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려 하는데 여기에서 본장은 마감하게 되고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입다를 통한 구원 사건이 전개되어진다.
- (3) 따라서 본장은 11, 12장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의 서론적 배경을 담고 있다.

2. ㉠ 사사 돌라의 행적은 어떠한가? (1, 2절)

- ㉠ (1) 돌라는 잇사갈 지파 출신으로 도도의 손자이며 부아의 아들로서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2) 돌라는 아비멜렉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고 적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의 적이 어느 족속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3) 돌라의 거주지였으며 죽은 후 매장된 '사밧'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마리아 근처의 성읍인 것으로 추정된다.

3. ㉠ 사사 야일의 행적에 대하여 설명하라(3-5절).

- ㉠ (1) 야일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후손으로서(참조, 민 26:29) 웃니엘 이후 7 번째 사사였으며 소사사(小士師)로서는 세번째 인물이다(참조, 3:31).
- (2) 사사 야일에게 아들이 30, 나귀가 30, 성읍이 30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상당한 부자였으며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 주며 동시에 당시 사회가 안정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 (3) 당시에 나귀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으며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였으므로 나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부유함을 의미했다.
- (4) 특별히 야일의 30 성읍을 ‘하봇야일’이라고 칭하였는데 이 말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 (5) 한편 야일이 죽어서 장사된 ‘가몬’은 길르앗 지방의 한 성읍으로 그 자세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4. ㉠ 이스라엘은 왜 다시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6-9절)

- ㉠ (1) 소사사 둘라, 야일이 55년간 다스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배신함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에 의해 18년 동안 학대를 받게 하셨다.
- (3) 여기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죄악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된다.
- (4) 이미 죄악 중에서 출생한 인생은(시 51:5)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양심의 고삐가 조금만 늦추어져도 악을 행하는 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참조, 렘 17:9; 롬 3:15).

5. ㉠ 타락한 이스라엘이 섬긴 이방의 일곱 신들을 설명하라(6절).

- ㉠ (1) ‘바알’은 주인이란 뜻으로 가나안 신들 중에서 상위(上位)에 속하는 풍요한 신이다.
- (2)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방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도렛의 복수형이다.
- (3) ‘아람의 신들’이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영토 전역에 걸쳐 살고 있었던 셈족의 한 부류(部類)인 아람 민족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가리킨다.
- (4) 한편 지중해 동부 연안의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는 여신 아스다롯(왕상 11:5)과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에쉬문(Eshmun) 등이 있었다.
- (5) 또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 신으로서 그모스(Chemosh)를 숭배하였다.
- (6) 모압의 이웃 나라인 ‘암몬’ 사람들은 풍요의 남신과 여신, 그리고 밀곰(Milcom), 몰록 등을 섬겼다.
- (7) 마지막으로 팔레스틴 해안 평야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주요 도시인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에그론 등에 우상의 신전을 세워 놓고 우상을 열렬히 숭배했다(참조, 신 10:22; 삼상 5:1-7; 왕하 1:1-16).

6. ㉠ ‘이스라엘의 곤고(困苦)가 심하였더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9절)

- ㉠ (1) ‘곤고’는 히브리어로 (야찰)인데 ‘누르다’, ‘난처하다’, ‘괴로워하다’, ‘곤란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 번역에는 ‘고생’이라고 되어 있다.
- (2) 이 말은 암몬 족속의 18년간의 통치가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던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 (3) 그들의 음란한 배신과 타락은 이렇게 쓰라린 고통을 가져왔던 것이다.
- (4) 결국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7. ㉠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16절)

- ㉠ (1) 이스라엘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10절).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수없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

으나 그때마다 또다시 범죄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구원의 호소를 단호히 거절 하셨다(11-14절).

(3) 하지만 이스라엘의 끈질긴 기도에 의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걱정하셨다.

(4)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끈질긴 기도가 갖는 효력과(참조, 눅 11:5-13) 그 기도행동에 행동이 수반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8. **㉠**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 기도에서 그들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10절)

㉠ (1) 그들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2) 즉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충분히 수긍하였으며 오직 자신들의 죄과만을 솔직히 고백하였던 것이다.

(3) 이러한 솔직성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에 있어서 첫걸음에 해당한다.

9. **㉠**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가? (11, 12절)

㉠ (1) 그는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7가지로 말씀하셨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대적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11절),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12절) 등이다.

(3) 그런데 6절에서는 7가지의 이방 신들을 열거했고 본절에서는 일곱 족속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4)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곱 번 구원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수없이 많이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5) 다시 말해 일곱 번의 구원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 이스라엘이 일곱 대적들에게서 구원받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라(11, 12절).

㉠ (1) 애굽 :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것은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이다(출 1-14장).

(2) 아모리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아모리 왕 시혼이 제지(制止)하고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승리하게 하셨다(민 21:21-24).

(3) 암몬 : 암몬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18년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3:13-21).

(4) 블레셋 :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갈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 6백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3:31).

(5) 시돈 :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시돈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 구원하셨다(4:1-3).

(6) 아말렉 :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7:12-23).

(7) 마온 : 마온은 곧 미디안을 가리키는데 역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6, 7장).

11. **㉠**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5, 16절)

㉠ (1)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회개의 고백을 하였다(15절).

(2)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적인 생활을 하였다.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보여 준다(참조, 마 3:8).

(4) 이처럼 내면적인 회개가 반드시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때 비로소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 있다.

12. **㉠**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1) 암몬 자손들은 이전의 18년 동안 해왔던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곡물을 탈취하거나 공물(貢物)을 상납받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유린(蹂躪)하고자 하였다.

(2) 그들은 이번에도 문제 없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자기들에게 복종케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3) 그러나 이스라엘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암몬과 대항하게 되었으니 이는 앞에서(15, 16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13. **㉠** 이스라엘 자손이 진친 미스바는 어떤 장소인가? (17절)

㉠ (1) 팔레스틴과 그 인근 땅에는 미스바란 지명을 가진 몇몇 성읍들이 있었다.

(2) 그러나 본질의 미스바는 '길르앗 미스바'를 가리키며 이곳은 야곱과 라반이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은 후 언약을 세운 곳과 동일한 장소이다(창31:25, 49).

(3) 또한 미스바(히, 미츠바)는 '조심하다', '염탐하다', '경계하다' 등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차파>에서 유래되었는데 '망대', '과수하는 곳' 등의 뜻도 지닌다(대하20:24).

(4) 따라서 70인역에서는 본절과 11:29 등의 '미스바'를 보통 명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5) 이 미스바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현재의 '에스 살트'(es-Salt) 근처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 '길르앗 백성과 방백(方伯)들'의 원문적 의미를 말하라(18절).

㉠ (1) 히브리 원문에는 '과'라는 접속사가 없다.

(2) 따라서 '백성'과 '방백'을 동격으로 보아 '길르앗 군장들의 총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3) 공동 번역에는 '길르앗 백성들의 추장들'이라고 번역되었고 Living Bible과 NIV에서는 '길르앗 백성들의 지도자들'(the leaders of the people of Gilead)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15. **㉠** 사사 입다의 등장 배경은 어떠한가? (18절)

㉠ (1)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침범해 왔을 때 길르앗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암몬과 대항하여 싸울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2) 그래서 길르앗 방백들은 자신들을 암몬의 손에서 건져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를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공포하였으며 이러한 약속은 11:8-11에서 입다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3) 그런데 방백들의 회합을 통해 지도자로 선택된 입다의 소명 과정은 매우 평범하고 또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4) 이점에서 입다의 소명 과정이 에훗, 바락, 기드온 등과 차이가 있지만 입다도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11:29).

제 11 장 입다가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다

단락구분 1-11 길르앗 거민이 입다를 지도자로 초빙하다 / 12-28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어 협상하다 / 29-31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다 / 32-40 입다의 승리와 서원의 이행(履行)

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2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3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뚝 땅에 거할 때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뚝 땅에 가서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나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8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나

24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룬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는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삼 백년이어늘 그 동안에 너희가 아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 하였느냐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29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뎀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 입다가 미스베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37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38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한 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40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라.

- ㉠ (1) 전장의 서론적 배경에 뒤이어 본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 (2) 입다는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한 사람들 중의 하나로(히 11:32)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였다.
- (3) 이때의 연대는 대략 B. C. 11세기 초인데 암몬 족속은 입다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 후 사울 시대까지는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다(참조, 삼상 11장).
- (4) 이러한 입다의 이야기는 12:7까지 계속된다.

2. ㉠ 입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1-3절)

- ㉠ (1)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비천한 신분이었으며 이복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아 뽕 땅으로 피신하여 잡류와 함께 거하던 불행한 인물이었다.
- (2) 특별히 입다를 낳은 '기생' (히, 잇썬 조나)은 실상 '돈을 벌기 위하여 자리를 옮겨가며 윤락 행위를 하는 창녀'를 가리키는 말로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3)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는 아무리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3. ㉠ 입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축출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상속에 관한 규례(規例)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는데(참조, 왕상 21장) 한편 다소 불공평한 요소들이 없지 않았다.
- (2) 이 불공평한 면 중의 하나가 노예나 첩이 낳은 아들에 대하여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었는데 노예의 아들은 합법적인 상속권을 지닐 수 없게 되어 있었다.

(3) 이러한 이유에서 입다는 길르앗의 친자(親子)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참조, 창 21:10).

4. **㉠** 입다가 피신해 가 머물던 '뚝 땅'은 어떤 곳인가? (3절)

㉠ (1) '뚝'에 관한 언급은 삼하 10:6,8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뚝 사람 1만 2천 명이 아람 동맹군의 일원으로 다윗과 대전(對戰)하고 있다.

(2) 또한 외경인 마카비상 5:13과 마카비하 12:17에서도 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3) 하지만 이 뚝 지방은 길르앗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만 알려졌을 뿐 그 이상 자세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5. **㉠** '잡류'(雜類)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3절)

㉠ (1) 공동 번역에 번역되어 있듯이 '건달패', 즉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부족하여 안정을 얻지 못하여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말한다.

(2) 입다는 이들의 지지를 받아 그들의 두목이 되었다.

6. **㉠** 입다는 어떻게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었는가? (4-11절)

㉠ (1) 멸시와 천대 속에서 길르앗으로부터 추방되었던 입다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 길르앗 장로에 의해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간청을 받게 되었다.

(2) 결국 입다는 길르앗의 통치자로 취임하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7. **㉠** 장로들이 입다를 길르앗의 지도자로 요청하였던 사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6,7절)

㉠ (1) 입다의 말에 의하면 이 장로들은 입다의 형제들과 함께 입다를 그의 가정에서 뿐 아니라 길르앗 지역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였던 장본인들이었다.

(2)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한 종족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3) 즉 추방당한 사람은 아무런 소속도, 권리도, 보호책도 없었으며 의식주(衣食住)와 생명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없었기에 추방은 곧 죽음과 마찬가지였다.

(4) 이렇게 입다를 가혹하게 대우했던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체면 불구 하고 입다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5)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간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입다를 큰 인물로 들어 쓰셨던 것이다.

8. **㉠** 장로들의 요청에 대하여 입다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9절)

㉠ (1) 그는 장로들이 자신을 추방하는 일에 동조했으므로 그들의 도움에 경솔한 대답을 피했다.

(2) 또한 그는 암몬 자손을 이기는 일에 대하여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3) 이 표현은 그가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4) 이러한 입다의 믿음과 겸손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큰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9. **㉠** '미스바'의 위치를 말해 보라(11절).

㉠ (1) 이곳은 베냐민 지경 안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라 길르앗 지방의 미스바를 가리킨다(수 18:26; 호 5:1, 29, 34).

(2) 길르앗 미스바는 흔히 길르앗 라못과 동일한 지역으로 여겨지는데(왕상 4:13) 그곳은 고대의 성역(聖域)이었으며(신 4:43; 수 20:8)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에 해당했다(왕상 22:3; 왕하 8:28; 9:1).

(3) 미스바의 현재적 위치는 확실치 않으나 '에스-살트' (es-Salt)의 북쪽에 있는 '게벨 오샤' (Gebel Osha)로 추정된다.

10. **㉠** '여호와 앞에'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여호와 앞에'란 표현은 21:2; 출34:34; 레 1:3 등에서도 쓰여졌는데 법궤, 회막, 제단 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2) 그러나 당시 법궤와 회막은 실로에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미스바에 있었던 지방 성소를 표현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란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1. **㉠** 입다가 암몬 왕과 담판(談判)한 내용을 요약해 보라 (12-28절).

- ㉠** (1)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과 아르논 강에서 압복 강까지의 영토권을 놓고 담판을 하였다. 이 지역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영역이었다.
 (2) 그러나 결국 이 협상은 결렬(決裂)되고 양편은 폭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3)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다 영토의 경계가 그들의 신이 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4)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담판은 입다의 지혜와 외교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신앙을 보여 준다.

12. **㉠**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낸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입다가 사자를 보낸 사실은 그가 평화적으로 영토 분쟁(紛爭)을 해결하려고 했었음을 의미한다.
 (2)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에도 전쟁에 앞서 평화를 선언하도록 규정하셨다 (신 20:10, 11).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며 (롬 5:1) 인간 상호간에도 화평하기를 바라신다 (마 5:9).
 (4)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금방 정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라고 교훈하셨다.
 (5) 만일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 (마 18:15-17).

13. **㉠** 영토권의 분쟁에 있어 초점의 대상이 된 지역을 설명하라 (13절).

- ㉠** (1) 이스라엘과 암몬간의 분쟁 지역은 북으로 압복, 남으로 아르논, 서쪽으로 요단 강, 동쪽으로 시리아 광야 (22절)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2) 원래 이 지역 중 갓 지파에게 할당된 압복 상류의 서쪽 지방은 한때 암몬 사람들에게 속했었으나 얼마 후 아모리족에게 정복되었으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3)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지 암몬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다 (참조, 수 13:25).
 (4) 따라서 암몬 왕이 그 땅에 대한 자신의 연고권(緣故權)을 내세워 그 땅이 자기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였다.

14. **㉠**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16절)

- ㉠** (1) '가데스'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카데쉬)라고 하는데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다.
 (2)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한 곳으로 시나이 반도의 신 광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의 '아인 케디스' (Ain Qudeis)에 해당한다.
 (3)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길을 내어 주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받아 다른 곳으로 둘러 행하여 아르논에 도착하였다 (민 20:14-21).

15. **㉠** 아르논 강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18절)

Ⓐ (1) 모압 경계, 즉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민 21:13).

(2) 즉 아르는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로서 북쪽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남쪽은 모압 사람들에게 속했다.

16. ⓐ 아하스 전투의 상황을 요약해 보라(19-22절).

Ⓐ (1)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르논을 경과할 즈음 헤스본(아모리) 왕 시혼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혼은 이를 거절하고 아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2) 전투장 '아하스'는 모압의 도시로 유세비우스(Eusebius) 시대에는 메데바(Medeba)와 데부스(Debus)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날 헤스본 동남쪽 11km 지점의 길벳 엘 테임(Khirbet et-Teim)과 동일시 된다.

(3)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어 아르논에서 압복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의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점령하였다.

(4) 이때부터 암몬 왕이 빼앗으려 하고 있는 지역(13절)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법화되었던 것이다.

17. ⓐ '그모스'는 어떠한 신인가? (24절)

Ⓐ (1) 그모스는 모압의 민족 신이며(왕상 11:33; 왕하 23:13) 암몬 사람들의 민족 신은 밀곰(Milcom)이다(왕상 11:33; 왕하 23:13; 렘 49:1, 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그모스가 암몬 사람들의 신으로 언급된 까닭은 그모스가 모압에서 뿐 아니라 암몬에서도 숭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모스와 밀곰이 이스라엘에서도 수백 년간 숭배된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18. ⓐ '모든 성읍에 거한 지 삼백 년'에 관하여 논하라(26절).

Ⓐ (1) 사사기 연대에 의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부터 입다의 등장까지 계산하면 이민족의 압제 기간과 평화로운 시대를 전부 합쳐서 319년이 되는데 이중 암몬 사람들의 압제 기간인 18년(10:8)을 제하면 결국 301년이 된다.

(2)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출애굽부터 성전 건축까지 약 600년이라는 기간이 되므로 이것은 왕상 6:1의 출애굽부터 성전 건축까지 480년이라는 기록과 모순된다.

(3) 그러므로 이런 해석법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산에서는 사사들의 활동 및 중복된 평화의 기간이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본절의 300이라는 수자는 해수가 아닌 성읍들의 수로 생각하는 학설이 더 타당성이 있다.

(5)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탈취한 성읍들의 수효가 300개라는 것이다. 므낫세 반 지파가 60성읍, 갓과 르우벤이 각각 120성읍을 취했다고 볼 때 그 합계가 300성읍이 되는 것이다.

(6) 그러므로 본절은 '모든 성읍이 300개이거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19. ⓐ '여호와와는...판결하옵소서'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입다의 신앙은 어떠한가? (27절)

Ⓐ (1) 이 말은 입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를 호소하는 의미를 지닌다.

(2)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참조, 시 37:5; 잠 16:3).

(3) 만일 자신의 태도에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자들은 입다와 같이 단호한 말을 할 수 없다.

20. ⓐ 입다는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서원하였는가? (29-31절)

- Ⓐ (1) '미스베' 는 미스바와 동일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집합 장소이며 활동 거점이었다(참조, 10:17;11:11).
- (2) 입다는 미스베를 떠나 암몬군과의 결전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인신(人身)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였다.
- (3) 이러한 입다의 서약은 야곱(창 28:20-22), 한나(삼상 1:11), 압살롬(삼하 15:7) 의 서약 양식과 매우 비슷하다.

21. Ⓒ 입다는 암몬 자손에 대하여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는가? (32, 33절)

- Ⓐ (1)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는 20성읍을 함락시키고 아벨 그라뮴까지 진격하여 들어가 암몬 군대를 일망 타진하였다.
- (2) 여기서 '아로엘' 은 26절의 아로엘과는 다른 도시로 갓 지파의 소유인 랍바 암몬의 앞에 있는 도시이며(수 13:25) '민닛' 은 암몬 땅에 있는 도시이고 '아벨 그라뮴' 은 '포도원의 목장' 이라는 뜻으로 랍바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 (3) 이처럼 여러 해 동안(10:8) 암몬이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입다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사실은 암몬의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했기 때문이다.

22. Ⓒ 입다의 승리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진 사람은 누구인가? (34-40절)

- Ⓐ (1) 입다는 일찌기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었다(31절).
- (2) 결국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凱旋)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나와 그를 환영한 첫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독녀(無男獨女)였다.
- (3) 따라서 입다의 승리의 기쁨은 곧 슬픔과, 절망으로 변해 버렸고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으면 안될 괴로움에 휩싸이고 말았다.
- (4) 결국 입다는 성급하게 한 맹세로 인해 진퇴 양난(進退兩難)에 처하게 되었다.
- (5) 만일 맹세를 깨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고, 지키면 계명을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 (6) 하지만 맹세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암 1:3) 자신의 맹세를 지켜야만 했다.

23. Ⓒ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39절)

- Ⓐ (1) 입다는 단호히 결단을 내리고 두 달 동안의 애곡하는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딸을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
- (2) 이 사건을 해석하는 입장은 다양하여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봉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 (3) 그러나 본문에서 쓰인 용어 등으로 보아 입다가 이방 풍속을 좇아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장의 요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22절).

제 12 장 입다와 3인의 소사사(小士師)

단락구분 1-6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입다의 전쟁 / 7 입다의 죽음 / 8-10 사사 입산의 생애 / 11-12 사사 엘론의 생애 / 13-15 사사 압돈의 생애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툰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3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무터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물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 그에게 이르기를 심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심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무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던라

7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8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던라

9 그가 아들 삼십과 딸 삼십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삼십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칠 년이라

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 장사 되었더라

11 그의 뒤에는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 스블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블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3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던라

14 그에게 아들 사십과 손자 삼십이 있어서 어린 나귀 칠십 필을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팔 년이라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전장(前章)에는 사사로 등장한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본장에서는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며 급기야는 동족 상잔(同族相殘)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 (3) 이러한 분쟁의 주원인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있었으며 이 다툼의 결과로 에브라임 사람들 중 엄청난 수자가 살상(殺傷)당하게 되었다.
- (4)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이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처신했던 것은 마치 오늘날의 성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성을 아는 데 실패한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낳은 결과가 어떠한가를 예시(例示)해 준다(참조, 고전 12:13; 엡 4:1-6).
- (5)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분리를 일삼는 자는 그의 형제를 곤란에 처하게 하고 결국 자신

도 파멸하고 만다.

2. **㉠** 본장에 나타난 소사사들의 행적은 어떠한가?

- ㉠** (1) 본장의 후반부(8-15절)에는 입다가 죽은 후에 3인의 소사사, 즉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하여 다스린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2) 이들의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된 것은 이들이 행정적이고 재판에 관계된 임무는 수행하였으나 다른 사사들처럼 군사적인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3. **㉠**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항의하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갔는가? (1절)

- ㉠** (1)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탄원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의견을 모르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매우 먼 거리를 여행하여 '북(北)으로' 가서 항의하였다.
 (2) 여기서 '북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차포나>로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보통 명사로서는 '북쪽'을 의미하고 고유 명사로서는 '차폰'이라는 도시를 의미한다.
 (3) KJV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본들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고유 명사로 이해하여 '사본' (Zaphon)으로 번역하였다.
 (4) 이 '사본'이라는 도시는 갓 지파의 땅인 숙곳 근처로서 요단 강의 동편 언덕에 위치하여 있다(수 13:27).
 (5) 이처럼 고유 명사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한데 그 이유는 길르앗이 에브라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에브라임의 이동 방향은 정확히 말해 북동쪽이지 북쪽이 아니기 때문이다.

4. **㉠**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어떤 불평의 말을 했는가? (1절)

- ㉠** (1) 그들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왜 자기들에게 참전(參戰)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를 따지면서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 그러나 2절에 나오는 입다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에브라임의 불평과 항의는 근거 없는 억지임이 분명하다. 즉 오히려 입다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실상 그들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3)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와 같은 불평은 전에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에도 있었음을 생각할 때(8:1-3) 그들에게는 습관적인 고질(痼疾)이었던 것 같다.
 (4)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에도 어떤 사업의 어려운 시기에는 동참하지 않다가 성공한 이후에는 한 몫을 보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5. **㉠** 에브라임의 항의에 대하여 입다는 어떻게 해명하였는가? (2, 3절)

- ㉠** (1) 입다는 에브라임의 주장과는 달리 암몬과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요청이 거절됨으로 인해 결국 생명을 건 위험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을 밝혔다.
 (2) 그러므로 실상 에브라임 사건들은 티끌만큼도 입다를 시기할 권한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의 승리를 축하해 주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3) 만일 이러한 입다의 해명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동족 상잔의 비참한 살육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4) 죄인들은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의 음성을 듣고 각성하여 심판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계 2:5, 16; 3:3).

6. **㉠**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입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사(言辭)를 퍼부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손상시켰다.
 (2)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본래 에브라임에 속했었으나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떠돌이와 같이 행세하고 있다고 모욕하였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 말 역시 사실 무근(事實無根)의 험담이다.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길르앗의 후손(민 26:29) 이지 에브라임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은 당시 요단 동편에 거주하였으므로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 땅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語不成說)이요 억지에 불과하다.
- (5) 이러한 에브라임의 모욕적인 발언은 길르앗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고 결국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파멸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 (6) 이와 같이 입에서 나오는 불의한 말 한 마디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 3:6).

7. **㉠ 길르앗 사람들이 지킨 요단 나무턱은 어떤 곳인가? (5절)**

- ㉠** (1) 나무턱은 강이나 시내에서 걸어서 건너 갈 수 있을 만큼 수심이 얇은 곳을 일컫는다.
- (2)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 강은 폭이 평균 27m가량, 깊이가 1-3m 가량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리도 없었고 배도 다닐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나무턱으로 건너 다닐 수밖에 없었다.
- (3) 그러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에게 패한 결과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모두 요단 나무턱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8. **㉠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나무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색출하였는가? (5, 6절)**

- ㉠** (1) 요단 나무턱을 지키고 있던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물을 때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 (2)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그들의 대답을 신뢰하지 않고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의 발음의 차이를 이용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 내었다.
- (3) 이때 쓰여진 말이 ‘십볼렛’이라는 말인데 이는 ‘하수’(河水), ‘큰 물’(시 69:3; 사 27:12) 혹은 ‘곡식 이삭’(창 41:5-7)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4)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라고 발음해야 할 곳에서도 ‘쓰’라고 발음했다.
- (5) 따라서 그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말았다.

9. **㉠ 에브라임의 전사자(戰死者) 4만 2천 명에 대하여 설명하라(6절).**

- ㉠** (1) 여기에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요단 강에서 단시일 내에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비록 요단 강에서의 살륙 사건이 성경 중에서 이곳에 단 한번만 언급되었지만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의 전쟁은 실제로 이후 상당 기간 계속되었던 것 같다.
- (3)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제 1차 인구 조사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 수는 4만 5백 명이었고(민 1:33) 제 2차 인구 조사에서는 그보다 줄어든 3만 2천 명이었던(민 26:37).
- (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죽은 에브라임 장정의 수는 거의 전체 장정 수에 해당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 입다의 남은 생애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었는가? (7절)**

- ㉠** (1) 입다의 생애는 소사사들(minor Judges)의 생애에 대한 서술 형식과 똑같다. 그 형식은 대부분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 죽음, 매장지(埋葬地)의 순서를 갖추고 있다(10:2,5; 12:10, 12, 15).
- (2) 본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다는 사사로서 6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다.
- (3) 이렇게 그의 통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아마도 딸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참조, 11:39).

(4) 입다는 죽은 후 길르앗의 한 성읍에 매장되었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11. ㉠ 소사사 시대는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가? (8-15절)

- ㉠ (1) 입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3인의 소사사가 계속 등장하는 소사사 시대를 맞이하였다.
 (2) 이때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은 각각 7년, 10년,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통치하여 소사사 시대는 25년간 계속되었다.

12. ㉠ 사사 입산의 고향은 어디인가? (8절)

- ㉠ (1)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여기에서의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인지, 아니면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수 19:15)인지 분명하지 않다.
 (2) 다만 본장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즉 입다, 엘론, 압돈이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사들이었으며 또한 이전에 등장했던 사사들 중에서도 웃니엘만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점을 감안할 때 입산도 역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보통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언급할 때는 보통 '유다의 베들레헴'이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창 35:19;48:7;미 5:2;마 2:1,5,6) 본절에서 이곳이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지칭된 사실도 위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4) 이곳은 현재의 '베이트 람'(Beit Rahm)에 해당하는데, 나사렛에서 서북 방향으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므깃도에서는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다.

13. ㉠ 입산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9절)

- ㉠ (1) 입다의 경우 유일한 자식이었던 한 명의 딸마저도 하나님께 바친 반면에 입산은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도합 60명의 자녀를 거느린 매우 유복(有福)한 사람이었다.
 (2)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수가 부(富)를 상징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입산이 상당히 풍요하고 다복(多福)하게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는 아들 딸들을 타국의 남녀와 혼인시켰는데 이는 당시 외국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정략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입산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잘했을까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문제를 지닌 인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14. ㉠ 사사 엘론의 생애는 어떠한가? (11, 12절)

- ㉠ (1) 입산 다음의 사사인 엘론에 관한 기록은 모든 사사들에 관한 기록들 중 가장 간단하여서 이름, 출신, 매장지, 통치 기간만이 언급되었을 뿐 다른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은 후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3) 아얄론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텔 엘 붓메'(Tell el-Butmeh)일 것으로 추정된다.

15. ㉠ 사사 압돈의 자손에 관하여 말해 보라(13-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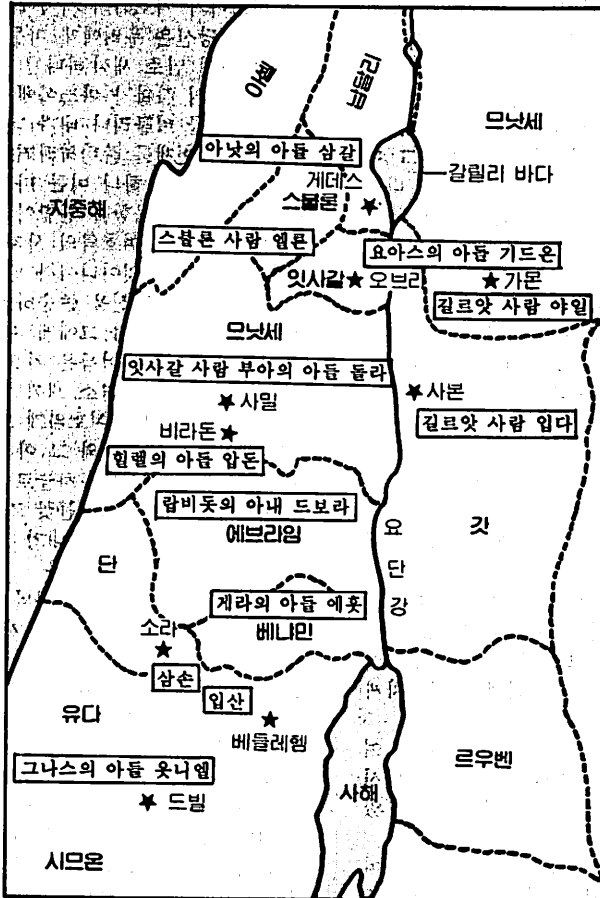
- ㉠ (1) 압돈은 세겜 남서쪽 약 10km에 위치한 비라돈 출신으로 힐렐의 아들인데 8년간 사사로 재직하였다.
 (2) 특별히 그에게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어 이 70명이 각각 어린 나귀 70필을 타고 다녔다.
 (3) 이렇게 자손의 수와 나귀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곧 그가 상당히 부유했으며 지위도 높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한편 압돈의 매장지인 비라돈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한 것은 아마도 사사 시대의 초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으로부터 이동해 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 ㉠ 소사사 시대의 시대 상황을 입다의 시대와 비교하여 설명하라.

- ㉠ (1) 입다의 시대는 형제들과의 불화(不和), 가출(家出), 암몬 자손과의 전쟁,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 및 그들과의 투쟁 등 복잡 다난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 격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 (2) 이에 비해 소사사 시대는 평온한 중 외적의 침입도 없었으며 내부의 불안도 없었다.
- (3) 즉 소사사에 관한 기록에 그들의 이름 통치 기간, 매장지, 가족 상황 등만이 언급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평온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지도자료

사사들이 통치했던 중심지로 알려진 9개의 성읍과 12사사들이 살던 지역



★ 9명의 사사가 통치했던 성읍
 □ 이스라엘 12사사와 그들이 거주한 지역

제 13 장 삼손의 출생

단락구분 1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다 / 2-7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다 / 8-14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와 대화하다 / 15-23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 24-25 삼손의 출생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됴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됴이라 하더라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이까 가라사대 그로라

12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13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15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18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고

22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23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24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 ㉠ 본장의 문맥과 주요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엘리 제사장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었던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2) 특히 본장에서는 블레셋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곤경(困境)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곧이어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하게 전개된다.
- (3) 삼손은 특별히 그 출생이 미리부터 예고되었으며,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성별되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 (4) 그러나 한 여자의 유혹에 빠져 허물어졌던 사실을 볼 때(16:15-22) 그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참조, 롬 3:10).

2. ㉠ 삼손의 생애가 다른 사사들의 생애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 ㉠ (1)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생애는 다른 사사들의 생애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지닌다.
- (2) 우선 대부분의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언급하고 있으나 삼손에 관한 기록은 아예 그의 출생부터 아니 그 이전에 천사가 잉태를 알리는 시기부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 (3) 들째로 다른 사사들은 동족(同族)들과 힘을 합하여 외적과 싸웠지만 삼손은 오직 혼자 힘으로 블레셋과 대적하였다.
- (4) 세째로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적자와의 전쟁 결말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엄청난 괴력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제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
- (5)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사들과 다른 면모를 보인 삼손은 치명적인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히 11:32).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출 20:3)는 명령을 망각하고서 온갖 이방신(異邦神)들, 즉 바알, 아스다롯 등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정신적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가차(假借)없이 징벌을 내리신다.
- (4) 그러나 이러한 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이지 징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히 12:5, 6).

4. ㉠ 블레셋의 압제 기간 40년에 관하여 설명하라(1절).

- ㉠ (1) 본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한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사무엘 시대의 일시 휴전하게 될 때까지를 계산하여 산출된 수자이다.
- (2) 따라서 이 40년 기간의 말기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삼손은 40년 중 처음 약 10년 동안만 사사로서 활약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 (3) 이때 삼손은 블레셋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못했고 단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산발적으로 구원하였을 뿐이다(참조, 5절).

5. ㉠ 마노아의 거주지와 혈통은 어떠한가? (2절)

- ㉠ (1) 유다와 단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소라'로서 현재 와디 에스 사라(Wadi es-Sarar)의 북쪽에,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사라'(Sarah)와 동일시된다.
- (2) 이 소라는 거의 언제나 에스다울과 짝을 이루어 언급되고 있다(25절).
- (3) 한편 마노아는 단 지파 백성이었는데 단 지파는 모두 수합의 피를 이어받은 한 혈통이

었으므로(민 26:42, 43) 여기서 지파는 곧 가계(家系)를 의미한다.

6. **㉠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잉태하지 못하였던 여인의 예를 들어 보라(2절).**

- ㉠ (1) 먼저 족장 시대에 사라(창 11:30), 리브가(창 25:21), 라헬(창 29:31) 등이 있다.
- (2) 그외의 시대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삼상 1:2)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눅 1:7) 등이 잉태를 하지 못했다.
- (3)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잉태치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특별하고 크나큰 목적을 품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삼손의 출생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7. **㉠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3-5절)**

- ㉠ (1) 여호와의 사자는 잉태치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서는 임신 중에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 (2) 그 이유는 낳을 아이가 태중(胎中)에서부터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이었다.
- (3) 물론 태어날 아이도 나실인의 생활 규례를 따라(민 6:1-4)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먹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이 규례가 태모에게까지 적용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즉 태어날 아이는 이미 잉태된 순간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태모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시작하는 태교(胎敎)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태교란 임신한 여자가 언행을 삼가서 태아를 감화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8. **㉠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는 무엇인가? (5절)**

- ㉠ (1) '나실' (히, 나지르)인은 '구별된 자', 즉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준수 조항이 있었다(참조, 민 6장).
- (2) 첫째, 그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 달거나 신 포도즙, 그리고 생 것이나 말린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되었다.
- (3) 둘째,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야만 했다.
- (4) 셋째, 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다.
- (5) 그런데 본절에서는 단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금지 조항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규례가 나실인에 대한 일반 규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두 조항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다.

9. **㉠ 마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8절)**

- ㉠ (1) 마노아는 그의 아내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금 그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 (2) 이때 마노아의 관심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에 있었다.
- (3) 우리는 이러한 마노아의 기도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힘쓰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신앙 자세를 배우게 된다(참조, 롬 12:1, 2).

10. **㉠ 마노아는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9-14절)**

- ㉠ (1) 마노아의 기도 후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나타나셔서 마노아를 만나 주셨다.
- (2) 이때 마노아는 다시금 태어날 아이의 교육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했던 내용을 반복하여 말했다.
- (3) 그런데 13절의 '그'는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14절은 태모가 지켜야 할 나실인의 규례를 언급한 셈이다.
- (4)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나실인의 태교(胎敎)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1. ㉠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 본 의도는 무엇인가? (17절)

- ㉠ (1) 마노아는 장차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존중(尊崇)하고자 하여 그의 이름을 물어 보았다.
- (2) 보통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존재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참조, 창 4:1, 25).
- (3) 당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참조, 16절)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참된 속성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히 간절하였던 것이다.

12. ㉠ 여호와의 사자가 밝힌 이름인 '기묘' (奇妙)란 무슨 뜻인가? (18절)

- ㉠ (1) '기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펠리>인데 이는 '인간의 능력과 지각을 뛰어 넘으며 경탄을 일으킬 만한 것'(참조, 출 15:11; 사 9:5; 25:1; 29:4 등)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펠리>는 명사형이 아니라 '놀라운'이란 뜻의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보기는 어렵다.
- (3)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있듯이(고후 12:4)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 (4) 이처럼 기묘한 이름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본장에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현현(顯現)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참조, 사 9:6).

13. ㉠ 마노아가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이적을 행했는가? (19, 20절)

- ㉠ (1) 불꽃이 제단인 반석으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 불길 가운데로 좇아 올라가는 이적을 행하였다.
- (2) 이 장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당시 반석에서 불이 나온 장면과도 아주 비슷하며(6:21)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과도 흡사하다(왕하 2:11).
- (3) 이렇게 마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이 불에 타서 하늘로 불꽃이 치솟아 올라간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이때 마노아와 그 아내는 이적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러한 행위는 존경과 아울러 두려움을 느낄 때 취하는 행동이다(레 9:24; 대상 21:16; 겔 1:28; 마 17:6).

14. ㉠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 22절)

- ㉠ (1)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다.
- (2)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드온(6:22, 23), 이사야(사 6:5), 야곱(창 32:30) 등도 하나님을 뵈은 후에 죽음을 두려워했다.
- (3)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출 33:20)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
- (4)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죄로 인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통념(通念)이었다(참조, 사 6:5).
- (5)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뵈을 수 있게 되었으며(요 14:7, 9)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는 더욱 뚜렷하게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뵈움게 될 것이다(고전 13:12; 계 21:3).

15. ㉠ 마노아의 아내는 어떠한 말로 남편을 위로하였는가? (23절)

- ㉠ (1) 그녀는 자기 남편이 공포심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편을 위로하였는데, 즉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일 의향(意向)이 전혀 없으시다고 했다.
- (2) 그녀는 이 말의 확실성(確實性)을 입증해 주는 근거로서 다음 세 가지를 열거하였다.

- ① 여호와께서 그들의 번제와 소제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 ② 하나님의 사자의 현현과 그가 행한 이적, 그의 이적적인 사라짐 등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 ③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경건한 지혜와 믿음으로써 남편을 위로한 현숙한 여인이었다 (참조, 잠31:10).
- (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12:4).

16. **㉠** '삼손' 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4절)

- ㉠** (1) 이 이름의 뜻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紛紛)하나 가장 유력하고 지배적인 학설은 이 이름이 '태양'을 뜻하는 <쉐메쉬>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설이다(참조, 5:31).
- (2) 실제로 삼손의 고향 근처에는 <벨쉐메쉬>라고 (참조, 수 15:10;21:16;삼상 6:9, 12 등) 불리는 '태양 신'의 신당이 있었던 점을 보아서 당시 단 지파 사이에서는 '삼손'과 같은 이름이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한편 '삼손'의 히브리어 발음은 <섬손>인데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의 '삼손'이라는 발음은 70인역의 <삼프손>에서 비롯되었다.

17. **㉠** '마하네단'은 어떤 곳인가? (25절)

- ㉠** (1) 히브리 원어 (마하네단)은 '단의 진지'라는 뜻을 지니며, 공동 번역과 일부 영역본에는 그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 (2) 이러한 지명(地名)의 유래에 관하여는 18:12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곳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위치하며 유다 지파의 성읍 '기랴여아림'의 뒷편이기도 하다.
- (3) 이곳에서 삼손은 여호와와 신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18. **㉠** '여호와와 신이...그에게 감동하시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

- ㉠** (1) 이 말은 여호와와 신, 즉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으사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동하셨다는 말을 뜻한다.
- (2) 이후부터 삼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역사(力士)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비교, 3:10).
- (3) 이처럼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이스라엘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삼손의 행적이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진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고'(21절).



제 14 장 삼손의 결혼과 실패

단락구분 1-5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다 / 6-9 사자를 죽이고 꿀을 취한 삼손 / 10-11 삼손의 결혼 잔치 / 12-18 삼손의 수수께끼와 누설(漏泄) / 19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다 / 20 삼손이 아내를 잃다

1 삼손이 담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담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5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담나에 내려가서 담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느니라

6 삼손이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 같이 찢었으니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9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10 삼손의 아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 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운 삼십 벌과 걸운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삼십 벌과 걸운 삼십 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삼 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5 제 칠 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17 칠 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칠 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18 제 칠 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졌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갈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19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웃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 집으로 올라갔고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 Ⓐ (1)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삼손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 (2) 그러나 그의 활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순조롭거나 성결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온갖 난관을 거듭하며 파란 만장(波瀾萬丈) 하게 진행되어 간다.
- (3)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으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며 또한 간신히 결혼하게 되었다가도 아내의 배신으로 헤어지는가 하면 사자를 죽이고 30명의 블레셋인을 죽이기도 한다.
- (4) 이것이 본장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인데, 이같이 희비(喜悲)와 애증(愛憎)이 뒤얽힌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삼손의 생활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모험적이며 또한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
- (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의 모든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셨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당신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참조, 마 6:10; 롬 8:28; 히 13:21)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2. Ⓒ 삼손의 결혼이 부당함을 지적하라(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히 금하셨다(출 34:16; 신 7:3, 4).
- (2) 그런데 삼손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은 그가 여자에게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저지른 탈선 행위이다.
- (3) 더구나 그의 부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혼하려 했던 것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죄였다고 할 수 있다(출 20:12).

3. Ⓒ '딤나'는 어떤 곳인가? (1절)

- Ⓐ (1) 삼손은 그의 고향 소라(13:2)에서부터 딤나로 내려갔다.
- (2) '딤나'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딤나타>라고 하는데 이 성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단 지파에게 주어졌다(수 19:43).
- (3) 이곳은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6.4km 지점, 벵세메스에서는 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의 '티브네'(Tibneh)와 동일시된다.
- (4) 또한 이곳은 해발 242m의 고지대로 소라보다 약 112m 낮은 지대에 위치하였으므로 본문에 '딤나에 내려갔다'라고 기술되었다.

4. Ⓒ 삼손의 결혼이 갖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하라(4절).

- Ⓐ (1)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면(裏面)에는 삼손이 기회를 보아 블레셋을 공격하려 했던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 (2) 이것은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해서 실증(實証)되고 있는데, 즉 삼손과 블레셋 사람 간의 모든 분규들이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발단(發端)되었으며 삼손은 이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행위가 비록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계획하셨다(참조, 출 7:3, 4; 수 11:20; 삼상 2:25).
- (4) 이것은 결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인간의 약점과 허물마저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5. Ⓒ 삼손은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獅子)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5, 6절)

- Ⓐ (1) 삼손은 딤나로 내려간 후 혼자 딤나의 포도원을 지나갈 때 '어린 사자'(young lion), 즉 젊고 힘이 강한 사자를 만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2) 이때에 그는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였다.

- (3) 이렇게 삼손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 (4) 오늘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 (벧전 5:8)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싸우는 데에 있다(행 1:8; 엡 6:16).

6. **㉠ 사자의 시체에 벌 떼와 꿀이 생긴 사실을 설명하라(8절).**

- ㉠** (1) 덤나의 여자와 약혼한지 '얼마 후'에 삼손은 여자와의 결혼을 위해 다시 덤나로 내려가다가 이전에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 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 (2) 어떤 학자들은 썩은 시체에는 벌이 모여들지 않는다는 생태계(生態界)의 법칙을 내세우면서 본 사건의 사실성(史實性)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본절에 나오는 사자의 시체는 완전히 썩어서 뼈대만 남았거나 혹은 강렬한 태양열에 의해 급속히 건조되어 미이라와 같은 상태로 변했기에 벌 떼가 모여들 수 있을 것이다.
- (4) 보통 들벌들은 바위 틈(신 32:13)과 속 빈 나무(삼상 14:26) 등에서 서식했으므로 동물의 죽어 말라버린 시체에 벌들이 서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 (5) 그러므로 본절 전반부의 '얼마 후'라는 말은 사자의 시체가 앞에서 기술한 상태로 변한 때를 가리키므로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로 해석 되어져야 한다.

7. **㉠ 삼손의 결혼 잔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어떠한가? (10절)**

- ㉠** (1) 잔치에 앞서 삼손의 아버지가 덤나로 내려갔듯이 당시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신부집에 찾아가서 신부로 하여금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다.
- (2) 그리고 후대에서는 결혼 잔치가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곤 하였는데 아직 삼손 당시에는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배설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 (3) 이러한 결혼 잔치는 7일간 계속되었는데 아주 부유한 집안일 경우는 두 주간 정도까지 연장하여 배설하였다.
- (4) 한편 당시 결혼 잔치에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놀이들로 흥청거렸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도 이러한 잔치 분위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12절).

8. **㉠ 삼손은 어떠한 조건이 걸린 수수께끼를 내었는가? (12, 13절)**

- ㉠** (1) '수수께끼를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후드>인데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려운 문제' (왕상 10:1), '은밀한 말' (민 12:8)로 번역되어 있다.
- (2) 삼손은 수수께끼 푸는 데 있어서 결혼 잔치를 마치는 날까지로 시간 여유를 주었다.
- (3) 또한 한 가지의 조건을 주었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4) 즉 13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라는 귀절의 히브리어는 <매차팀>인데 이 말은 '너희들이 찾아야 한다'는 명백한 뜻을 지니고 있다.
- (5) 한편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여부에 따라 지는 쪽은 베옷과 겹옷을 각각 30벌씩 이긴 쪽에 주도록 하였다.

9. **㉠ 베옷과 겹옷은 어떤 의복을 가리키는가? (13절)**

- ㉠** (1) '베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디님>은 다른 의복 위에 걸쳐 입거나 잠잘 때에 맨몸 위에 걸쳐 입는 옷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얇고 품질이 좋은 마직(麻織)을 재료로 하여 장방형(長方型)으로 만들어졌다. (참조, 사 3:23; 잠 31:24).
- (3) 또한 '겹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가담>은 일상 의복이 아니라 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입는 예복을 가리킨다(참조, 창 45:22; 왕하 5:5).
- (4)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이 '예복'으로 번역되어 있다.

10. ㉠ 수수께끼의 내용은 무엇인가? (14절)

- ㉠ (1)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내용이었다.
- (2) 이 수수께끼는 하나의 대귀법(parallelism)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뒷 귀절의 말쑤이 앞 귀절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3) 즉 '먹는 자'란 좀더 자세히 말하면 '강한 자'를 가리키고 '먹는 것'이란 '단 것'을 가리킨다.
- (4) 따라서 이 수수께끼를 구체적으로 풀어쓰면 '다른 짐승을 먹고 사는 동물에게서 식물(食物)이 나왔는데 그 동물은 강하고 식물은 달다 여기서 동물과 식물은 각각 무엇인가?' 라는 뜻이다.

11. ㉠ '제 칠 일'에 관련된 난제를 설명하라 (15절)

- ㉠ (1) 이 귀절이 70인역과 시리아 역본에서는 '제 4일'로 되어 있으며 공동 번역과 RSV, N IV, Living Bible 등의 번역들도 '나흘째 되던 날'로 번역하였다.
- (2) 이와는 달리 개역 성경의 '7일'이라는 번역은 KJV와 같이 히브리어 맛소라 사본의 입장을 취한 것인데 다같이 본문상 난제를 지닌다.
- (3) 즉 '7일'의 입장을 취하면 14절의 '3일이 되도록'이란 내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4) 다시 말해 답나의 거민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다가 제 7일이 되어서야 삼손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5) 그렇다고 '4일'의 입장을 취하면 17절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6) 즉 17절에서는 삼손의 아내가 '7일 동안 내내' 삼손을 즐겼다고 써여 있는데 이것은 '4일째 되던 날'에 조르기 시작했다는 본절의 내용과 모순을 일으킨다.
- (7) 이러한 난제에 대해 가장 타당하게 생각되는 종합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 (8) 30명의 답나 주민들은 수수께끼를 도저히 못풀겠으므로 3일 만에 풀기를 중단하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그녀도 하는 수없이 삼손을 조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결국 그녀는 일주일 내내 삼손을 조른 셈이 된다.
- (9) 즉 그녀는 처음에는 답을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삼손을 즐겼으나 제 7일째에는 답나 국민들의 협박을 받고서 더욱 간절히 조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결국 그녀는 일주일 내내 삼손을 조른 셈이 된다.
- (10) 본절에 '제 7일'이라 한 것은 답나 주민들이 4일째부터 간접적인 압력을 삼손의 아내에게 넣다가 7일째 되는 날 다급한 나머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면서 최후의 협박을 가했음을 보여 주는 귀절이다.

12. ㉠ 답나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어떤 협박을 하였는가? (15절)

- ㉠ (1) 그들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피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전해 주지 않는다면 그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다.
- (2) 이처럼 상대방의 소유를 불사르겠다는 위협을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를 위협할 때에도 사용된 방법이며 (12:1) 이와 유사한 위협이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졌다 (9:20, 49; 왕상 16:18 등).
- (3) 그런데 본절의 답나 사람들이 행한 위협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림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15:6).

13. ㉠ 삼손은 어떻게 해서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었는가? (16, 17절)

- ㉠ (1) 삼손의 아내는 일주일 내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 달라고 삼손을 조르다 답나 사람에게 협박을 받은 제 7일에는 울면서 삼손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 (2) 이에 삼손은 마침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그녀

에게 말하게 되었다.

- (3) 이런 면에서 삼손은 비록 힘이 세었을지라도 여자에게는 무척 약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결국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와 동일한 유혹을 받아 굴복함으로써 두 눈을 뽑힌 채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16:18-22).
- (5) 그러므로 성경은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나' (잠6:26) 고 경고한다.

14. ㉠ '제 칠 일 해 지기 전'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18절)

- ㉠ (1) 이 말을 의역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 방에 들어가기 전에'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삼손이 신방에 들러고 하는데'라고 번역하였다.
- (2) 이처럼 삼손과 내기를 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신방에 들기 바로 직전 다시 말하면 정해진 시간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므로써 극적인 승리의 장면을 연출시키려고 하였다.

15. ㉠ '암송아지로 발갈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여기서 '암송아지'라는 표현은 삼손의 아내를 일컫는 상징어이다.
- (2) 암소는 흔히 생식(生殖), 노동, 젖 생산 등을 주기능(主機能)으로 가졌음을 생각해 볼 때(레 22:27, 28) 당시에는 흔히 결혼한 여자를 암송아지로 비유했던 것 같다.
- (3) 다윗의 아내였던 '에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암송아지'였다(삼하 3:5).
- (4) 따라서 '암송아지로 발갈았다'는 말은 곧 '자기 아내를 위협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뜻을 지니며 이 말은 곧 그들이 부정하고 간교한 수단을 사용했음을 지적한다.
- (5) 결국 답나 사람들은 내기 조건까지 어겨 가면서 내기 옷을 소유한다는 데에 정신이 쏠려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 (6) 이처럼 물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절대로 수수께끼의 비밀이나, 복음의 의미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참조, 마 13:11).

16. ㉠ 수수께끼에 대한 사후 처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19, 20절)

- ㉠ (1) 삼손은 블레셋인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약탈하여 수수께끼 내기를 했던 30명의 답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2)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볼 수 있다.
- (3) 사실 답나 주민들은 내기 조건을 위반하고 부정(不正)한 수단을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었으므로 삼손에게는 그들에게 내기 옷을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블레셋인 30명을 죽이고 약탈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19절).

제 15 장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

단락구분 1-2 아내를 빼앗긴 삼손 / 3-5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을 태우다 / 6-8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다 / 9-13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 주다 / 14-20 삼손이 턱뼈 하나로 일천 명을 죽이다

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5 화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담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를 불사르니라

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8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9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 한지라

10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

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13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 진지라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 명을 죽이고

16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 명을 죽였도다

17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 하나님께서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하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삼손의 승리가 주는 교훈을 말하라.

㉠ (1) 본장에는 삼손이 부하도 무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삼손은 비록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이다.
- (3)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 '밀 거둘 때에'란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 (1) 이때는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서 밀을 추수할 때였으므로 태양력으로 약 5월쯤 되었을 것이다.
- (2) 이 무렵에는 밀이 완전하게 익어서 건조해진 상태로 밭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베어져서 단으로 묶여져 있곤 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곡식 밭은 불타기에 매우 좋았다(5절).
- (3) 삼손은 아내의 배신과(14:17) 블레셋 사람들의 정당치 못한 태도에(14:15) 화를 내고 딤나를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밀 추수 시기에 다시금 딤나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3. **㉠** 배신당한 처가집을 다시 찾아간 삼손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전에 삼손은 수수께끼 사건을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14:19)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졌다(14:20).
- (2) 얼마 후 밀 추수 때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처가집에 갔으나 자기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1, 2절).
- (3) 삼손이 자기 아내를 떠난 것은 그 아내가 수수께끼를 누설한 배신 행위 때문이었으며 그녀가 자기 남편보다 동족을 더 아꼈기 때문이었다(14:16, 17).
- (4) 그런데도 삼손이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찾았다는 사실은 그의 너그러운 성품과 진실성을 나타내 보여 준다.
- (5)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요 3:16).
- (6)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마 28:20).

4. **㉠**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남에게 주어 버린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 ㉠** (1) 흔히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은 위협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데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안일(安逸)만을 추구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 (2) 전장(前章)에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동무들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 주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한 데에 있었다(참조, 14:15).
- (3) 그리고 또한 삼손의 장인이 그녀를 남에게 주어 버린 것도 역시 협박에 따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이처럼 악에게 한 번 굴복하여 밀리게 되면 사단은 그 후로는 더욱 엄청난 세력으로 위협을 가하며 접근해 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악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대항해야 한다(참조, 약 4:7).

5. **㉠** 삼손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블레셋을 멸할 마음'이 가득찼었다. 이러한 삼손에게서 성도들이 배울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삼손은 장인의 말이 자기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것임을 알고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고 말했다(3절).
- (2) 이것은 삼손의 심중에 블레셋 족속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차 있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 (3) 삼손은 자나 깨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멸하기를 힘썼다.

(4) 이와 같이 신자들도 항상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 삼손이 잡은 '여우'란 어떠한 짐승인가? (4절)

㉠ (1) '여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알)은 여우 뿐 아니라 송냥이 (jackal)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2) 그런데 이 여우와 송냥이 간에는 서식(棲息)의 습성에 있어서, 즉 여우는 군거(群居)하지 않는 반면 송냥이는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3)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절에 나오는 '여우'란 실제로는 송냥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4) 왜냐하면 삼손에게 있어서도 한 마리씩 떨어져 독립 생활을 하는 여우를 300마리나 잡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아마도 삼손은 그물이나 덫을 이용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송냥이 300마리를 짧은 시간 내에 잡았을 것이다.

7. **㉠** 삼손은 여우의 두 꼬리 사이에 무엇을 달았는가? (4절)

㉠ (1) 삼손은 이 300마리의 여우들의 꼬리를 서로 연결하고 그 꼬리 사이마다 '쇄'를 달았다.

(2) '쇄'란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혀서 불이 잘 타게끔 만들어 놓은 나무를 가리킨다.

8. **㉠** 삼손이 곡식 밭과 감람원을 불살라 버린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5절)

㉠ (1)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해를 입혔던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2)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 두 사람의 잘못은 그 개인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즉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개개인의 악행(惡行)이 야기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

(4) 이러한 때에는 단순히 잘못을 범한 개개인을 책별한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악이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전체 사회에 징벌을 가하여 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해 가려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모두에게 징벌을 가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9. **㉠** 블레셋인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인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6절)

㉠ (1) 구약 성경에서 불살라 죽이는 화형(火刑)은 음란 죄를 범한 자들에게만 가해지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25 등).

(2)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이렇게 혹독한 형벌을 자기 동족의 손을 통해 받았던 것이다.

(3) 또한 그들에게 임한 이 형벌은 그녀나 그녀의 아버지가 일신상의 안일만을 도모하며 삼손을 배신한 죄에 대한 당연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14:15).

(4) 특별히 삼손의 아내가 딘나 사람들의 불태워 죽이겠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함을 느끼게 한다.

10. **㉠**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후 거한 '에담 바위 틈'이란 어떤 곳인가? (8절)

㉠ (1) 본절에 삼손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보면 에담이 딘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삼손이 내려가서 거한 에담은 소라 동남쪽 4km 지점에 바위와 동굴이 많이 있어 고대(古代)로부터 피난처로 많이 사용되던 장소로서, 현재의 '아락 이스마인' (Arag Isma-in)과 동일시 되어진다.

(3)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바위들은 흔히 동굴이나 틈을 많이 지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바위는 종종 사람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다(참조, 사 2:21; 57:5).

11. **㉠** 유다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갔던 사실은 당시 어떠한 사회 정황을 보여 주고 있는가? (9-13절)
- ㉠** (1)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산지로 올라와서는 '레히' 지방을 습격하였는데 이에 유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고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을 체포하려 하였다.
 (2) 여기서 '레히'는 '턱뼈'라는 뜻을 지닌 성읍으로 그 위치가 확실치 않으나 다만 담나나 소라, 에담 그리고 블레셋 접경 지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이 부분에 나타난 유다 사람들의 행동은 이제 블레셋과 대적한다거나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사회 정황을 보여 준다.
12. **㉠** '편만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편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타쉬>로서 '강타하다', '세게 치다', '밀치다', '흠뜨리다' 등의 뜻을 지닌다.
 (2) 이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은 '쳐들어가 마구 짓밟았다'로 RSV는 '습격했다' (made a raid)로 번역하였다.
 (3) 이에 비해 '편만하다'라는 개역 성경의 번역은 KJV (spread)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습격하다'라는 번역보다는 본문의 상황에 덜 부합되는 것 같다.
13. **㉠** 삼손이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몸을 순순히 내어 준 사실은 그의 어떤 성품을 보여 주는가? (12, 13절)
- ㉠** (1) 삼손은 자기를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는 유다 사람들의 요청에 순순히 응락(應諾)하였다
 (2) 삼손은 자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동족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자신이 블레셋으로 잡혀가려 생각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동족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의 '도덕적인 고결성'을 발견하게 된다.
14. **㉠** 여호와와 그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 ㉠** (1)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뽕뽕 뉘어서 오는 모습을 보자 어쩔 줄을 모르며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
 (2) 이와 동시에 '여호와와 그의 신'이 권능으로 삼손에게 임하였고 삼손은 괴력(怪力)을 발휘하여 그의 팔을 결박했던 밧줄을 불탄 삼같이 끊어 버렸다.
 (3) 여기서 '삼', 즉 아마(flax)는 질기고 물에 강한 반면 불에는 약하여 불에 탈 경우 쉽게 연소되어 금방 재가 되어 버린다.
 (4) 비록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견고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어 버린다(시 118:10-12; 행 1:8).
15. **㉠**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4-16절)
- ㉠** (1) 본문 15절에 '새 턱뼈'라 함은 곧 죽은 지 얼마 안되는 나귀의 턱뼈를 가리키는데 이는 아주 단단하고 또한 꽤 무겁지만 병기(兵器)에 비하면 아주 무기력한 물건이었다.
 (2) 그러나 삼손은 이 보잘것없는 턱뼈를 가지고 그보다 훨씬 장비가 우세한 천 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였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흔히 이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전 1:28).
 (4)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있는 제하며 자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겸손한 자를 통해 징벌하신다.

16. **㉠** '라맛 래히'란 무슨 뜻인가? (17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턱뼈의 산' 혹은 '턱뼈를 버림'이라는 뜻을 지닌다.
- (2) 이런 명칭은 삼손이 그곳에서 자신의 무기로 쓰인 턱뼈를 버린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17. **㉠** 삼손이 심히 목말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삼손은 혼자 힘으로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다 보니 거의 탈진(脫盡) 상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땀을 많이 흘린 까닭에 몹시도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다.
- (2) 이처럼 전(全)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삼손도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 (3) 여기서 삼손은 자기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자각하고 목마름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궁지에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 (4)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의탁했던 삼손의 자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점이다(참조, 눅 17:10).

18. **㉠**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삼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9절)

- ㉠ (1) 견딜 수 없는 갈증 속에서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래히'의 한 우묵한 땅을 트셔서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참조, 출 17:6; 민 20:8, 11).
- (2) 삼손은 이 샘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소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신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다.
- (3) '엔학고레'는 히브리어로 '부르짖는 자의 샘' (Spring of the Caller)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다 위기에 처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 (4)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종종 환난과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고전 10:13; 고후 1:3, 4).

19. **㉠**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간을 재직했는가? (20절)

- ㉠ (1) 그는 20년간 사사로 재직하였는데 이에 대한 같은 기사가 16:31에도 나온다.
- (2) 아직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중간 부분에 그의 활동 연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경(死境)에서 헤어 나온 삼손이 20년간이나 사사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3) 즉 삼손의 20년 사사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이다.

본장의 요절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쥐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4절).

제 16 장 삼손과 들릴라

단락구분 1-3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옮겨놓다 / 4-14 들릴라의 유혹 / 15-20 유혹에 넘어간 삼손 / 21-22 사로잡힌 삼손이 두 눈을 뽑히다 / 23-25 블레셋의 다른 축제 / 26-31 삼손의 장렬한 최후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
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중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
나 성문작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4 이 후에 삼손이 소택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
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울
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꺾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
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끈고케 할 수 있을
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일천
일백을 네게 주리라

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
히 당신을 결박하여 끈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
게 말하라

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취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
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
른 취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
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9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
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
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취 끊기를 불탄 삼실
을 꿇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
지 못하니라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
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
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는 내게 말하라

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
람과 같으리라

12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
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꿇

기를 실을 꿇음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때까
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
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
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14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
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를
의 바다와 위선을 다 떼어내니라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
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
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
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
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
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
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8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
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
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울
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
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피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
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
닫지 못하였더라

21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
고 가사에 내려가 눈줄로 매고 그로 옥 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
작하니라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모 여 그 신 다몬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떼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꺼 의지하고

30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골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삼손의 최후는 어떠한가?

- ㉠ (1) 본장은 13장에서 시작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章)으로서 삼손은 본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 (2) 이제까지 삼손은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큰 활약을 하였다.
- (3) 그러나 본장에서 그는 다시금 여자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되며 고통스러운 번민과 갈등 끝에 결국 나실인의 규례를 버리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 (4) 이리하여 인간 생활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노예의 처지로 전락되어 버린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블레셋 군중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장렬(壯烈)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 (5)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블레셋의 세력을 꺾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적적으로 진행되어 감을 볼 수 있다.

2. **㉠** 본장의 사건은 삼손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가?

- ㉠ (1) 본장에서 들릴라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삼손의 생애와 사사 생활이 마감되는 것으로 보아 본장의 사건은 그의 20년간의 사사 생활 중 후기에 발생했음이 확실하다(참조, 4절).
- (2) 따라서 본장의 시기와 사사 생활 초기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전장의 레히 학살 사건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 공백 기간이 있었다.
- (3) 그런데 이 공백 기간에 삼손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알 수가 없으나 그다지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 삼손이 가게 된 '가사'는 어떠한 곳인가? (1절)

- ㉠ (1) '가사'는 히브리어 <아잔>에 대한 헬라식 발음으로 '강한', '견고한 성읍' 등의 뜻을 지닌다.
- (2) 이곳은 블레셋 다섯 성읍 중의 하나로 팔레스틴 지방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 집트로 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상업의 중심지이며 군사적 요지로 알려졌다.

4. **㉠** 삼손이 가사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 (1-3절)

- ㉠ (1) 정욕에 눈이 어두워진 삼손은 이방인 기생과 동침하는 데까지 깊이 타락해져 있었다.
- (2) 삼손이 기생과 더불어 잠을 자던 그 밤에 가사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하였다.

- (3)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괴력(怪力)을 발휘하여 성문작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깨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 (4) 여기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사의 성문이 유다의 주요 도시 헤브론으로 옮겨진 것은 곧 블레셋에 대한 유다의 지배를 상징해 준다.
- (5) 이처럼 최악의 세력은 필연코 그리스도의 세력에 패할 수밖에 없다.
- (6)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대적자인 사단의 문을 파괴하고 지배할 권세를 지니고 있다(참조, 창 22:17;24:60).

5. **㉠ 삼손이 잘못된 여인 관계에서 드러낸 어리석음은 어떠한가? (4절)**

- ㉠** (1) 불에 한 번 데어 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불을 두려워할 줄 안다.
- (2) 그러나 어린이보다도 크고 보통 성인들보다도 훨씬 힘이 세며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실인 삼손은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 (3) 즉 그는 블레셋 여인들에 의해 두 번씩이나 위협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으면서도 이제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블레셋 여인과 깊은 관계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 (4) 결국 이 세번째 실수는 치명적인 것이어서 다시금 그에게 재기(再起)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 (5) 여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범죄와 낭패에 대해서는 잠언의 말씀이 잘 경고해 주고 있다.
- (6) '음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엎드러지게 되었나니 그녀에 의해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잠 7:26).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도다' (잠 6:26).

6. **㉠ 삼손이 세번째로 사권 들릴라는 어떠한 여인인가? (4절)**

- ㉠** (1) '들릴라'는 '약한 자', '번민하는 자' 등의 뜻을 지니는데 그녀는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 (2) '소렉 골짜기' (히, 나할 쇼렉)는 '포도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참조, 사 5:2;렘 2:21) 이 이름의 뜻대로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오늘날도 아주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다.
- (3) 이 소렉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 21km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오늘날의 '와디 에스 사라르'(wadi es-Sarar)에 해당되며 소라로부터는 서쪽 방향으로 걸어서 약 45분 정도 걸리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 (4)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받을 만큼 미모의 소유자였으나 결국은 뇌물을 받고 사랑을 팔아버린 부정(不貞)한 음녀(淫女)였다.

7. **㉠ 들릴라는 어떠한 뇌물에 매수되었는가? (5절)**

- ㉠** (1) 그녀는 삼손의 괴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조건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제안한 은 1,100세겔의 뇌물에 매수되었다.
- (2) 당시 블레셋에는 5대 도시를 다스리는 다섯 방백이 있었는데(1:18;3:3) 그렇다면 그들의 뇌물은 은 5천 5백 세겔(약 62.7kg)이 된다.
- (3) 당시 은 1세겔은 장정의 4일 임금에 해당하였으므로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제공하겠다는 은의 양은 상당한 것이었다.

8. **㉠ 삼손에 대한 들릴라의 첫번째 유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6-9절)**

- ㉠** (1) 이미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한 뇌물에 매수된 들릴라는 계획적으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하여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하였다.
- (2) 삼손은 들릴라의 질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일곱'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는 농담으로 대답했다.
- (3) 물론 삼손의 이 대답은 사실과 다른 농담에 불과했으나 여기서 그는 들릴라의 유혹에

대해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4) 즉 삼손의 우유 부단(優柔不斷)한 태도로 인하여 결국 들릴라는 계속하여 끈덕지게 유혹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5)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범죄케 하도록 유혹해 올 때 단호한 태도로 강경하게 대처하여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참조, 창 3:1-3; 39:7-13).

9. ㉠ 들릴라의 두번째 유혹은 어떻게 시도되었는가? (10-12 절)

㉠ (1) 들릴라는 삼손의 거짓말에 대해서 물려서지 않고 다시 두번째 시도를 하여 아주 진지하게 힘의 비밀을 물었다.

(2) 이때는 첫번째의 속은 경험 때문에 더욱더 애걸하며 온갖 교태(嬌態)를 다 부리고 때로는 미소를 띄우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끈덕지게 삼손을 졸랐을 것이다.

(3) 이러한 유혹에 대해 삼손은 '쓰지 않은 새 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거짓말로 대답했다.

10. ㉠ 들릴라의 세번째 유혹에 관하여 설명하라 (13, 14 절).

㉠ (1) 들릴라가 다시금 유혹하며 질문했을 때 삼손은 자기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緯線)에 섞어 짜면 되리라고 대답했다.

(2) 여기서 '머리털 일곱 가닥'이라는 표현에 따르면 삼손 같은 나실인들은 긴 머리카락을 간수하기 위해 머리를 일곱 가닥으로 땅았던 것 같다.

(3) 삼손의 대답은 자기 머리털을 위선, 즉 씨줄로 하고, 직물을 경선, 즉 날줄로 하여 베틀로 짜면 되리라는 의미이다.

(4) 물론 이 대답도 거짓말에 불과했지만 이 세번째 대답은 첫번째, 두번째의 대답에 비하면 더욱 진실에 가까워졌다.

(5) 즉 그는 나실인의 특징이며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대해서 위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6) 이와 같이 삼손의 태도는 마치 밤하늘의 나방이 불빛에 자꾸만 가까이 달려들다가 마침내는 불타 죽고야마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비슷하다.

11. ㉠ '바디'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4 절)

㉠ (1) 본질의 '바디'는 순수한 우리말로써 '베틀에 들어가 베실을 날날이 꿰어 짜는 구실을 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2) 이 '바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테드)는 본래 '말뚝', '썩기', '삽', '못', '핀' 등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3)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아테드'는 베틀에 들어가는 뾰족한 나무 핀으로서 날실에다 씨줄을 교차하여 엮을 때에 아주 튼튼하게 짤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pulpit 주석).

12. ㉠ 들릴라의 네번째 유혹은 어떻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는가? (15-17 절)

㉠ (1) 삼손에게 세 번씩이나 속은 들릴라는 최후의 간교한 방법을 동원하여 삼손을 유혹했다.

(2) 즉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을 찔렀다.

(3) 지난번 답나 여인의 유혹에 있어서도 삼손은 지금과 똑같은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는 수수께끼의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만 적이 있었다 (14:16).

(4) 이번에도 들릴라의 이와 같은 최후의 일격은 그 효력을 발휘하여 삼손의 마음을 뒤흔들어 마침내 그로 하여금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하여 비참한 파멸 가운데 떨어뜨리고 말았다.

(5)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잠 6:27, 28).

13. ㉠ 삼손이 머리카락을 깎은 후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20절)

- ㉠ (1) 들릴라는 마침내 삼손으로부터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음을 듣고나서 다시금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고 삼손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도록 했다.
 (2)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려 하였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므로 더 이상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3) 사실상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그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
 (4) 따라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깎인 후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아야 한다.

14. ㉠ 하나님을 배반한 삼손은 어떠한 운명에 처하였는가? (21절)

- ㉠ (1)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후 두 눈을 뽑히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았고 '가사' 지방으로 끌려가 눈줄에 묶여 짐승처럼 멧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다.
 (2) 그런데 삼손이 짐승같이 대우를 받았던 가사는 그가 처음으로 창녀와 관계하여 음란 죄를 범했었던 곳이다(1절).
 (3) 즉 삼손은 한 때 자신이 음란과 일시적 쾌락에 탐닉했던 곳인 블레셋 제 1의 성읍 가사 지방을 이번에는 포로와 죄수의 신세로 방문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15. ㉠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2절)

- ㉠ (1)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음을 보여 준다.
 (2) 아마 삼손은 이 사건 직후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으며(Matthew Henry) 이러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로 맞아 주셨던 것 같다.
 (3) 그의 철저한 회개에 뒤이어 나실인으로서의 중요한 표지인 머리털이 다시 자랄 때 삼손은 차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4)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위치에서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16. ㉠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곤'에 관하여 설명하라(23, 24절).

- ㉠ (1) 5명의 블레셋 방백들(3:3)은 오랜 노력 끝에 삼손을 체포하게 되자, 이 업적이 그들의 신(神)인 다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비교, 11:21; 신 3:3) 다곤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참조, 레 23:40; 신 12:12, 18; 16:11; 27:7; 느 8:10-12).
 (2) 다곤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되던 그들의 국가 신으로서 아스돗, 가사 등에는 커다란 다곤 신전이 있었다(왕하 1:2, 16).
 (3) 일반적으로 다곤은 '물고기 신' (Fish-god)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다곤 신을 가장 열렬하게 숭배했던 지역이 주로 해안 지방이었으며 실제로 그 지역은 해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나 물고기를 숭배했기 때문이다.

17. ㉠ 삼손의 기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 (1) 삼손은 블레셋 신전 한 가운데서 3천 명이 넘는 블레셋 군중의 구경거리가 되어 수모를 당하던 때에 하나님께 생애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도록 간구하고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두 눈을 댄 원수들 단번에 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 비록 삼손은 과거에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는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몹시도 크시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은 삼손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 준다(히 11:32).

18. ㉠ 삼손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29, 30 절)

- ㉠ (1) 삼손은 기도를 마친 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두 팔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외치면서 두 기둥을 힘껏 밀었다.
- (2) 그러자 기둥이 꺾어지면서 다곤의 신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비 규환(阿鼻叫喚)을 이루며 죽어갔다.
- (3) 그들의 경멸에 찬 웃음 소리는 고통의 신음 소리로 바뀌었고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던 다곤 신전은 커다란 무덤으로 바뀌어 버렸다.
- (4) 결국 삼손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한순간에 죽이게 되었으며 자신도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던 것이다.

19. ㉠ 삼손의 최후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28-30 절)

- ㉠ (1)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에 삼손은 본래의 힘을 회복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 (2) 삼손은 기도로써 자기의 못다한 사명을 임종의 순간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최후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 (3) 삼손의 죽음은 조국을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만 한다.

연구자료

나실인(nazirite).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종교 계급의 일원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가리킨다. 나실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민 6:1-21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B. C. 1445 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다. 나실인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서원(誓願)과 연관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그 사람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을 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세시대 이후에는 예외적인 양상(樣相)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치라고 지시하시기도 하였으며(13:7) 부모 자신이 그 같은 서원을 하기도 하였다(삼상 1:11). 이들 나실인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몇 가지 규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다(민 6:6). 둘째,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야 했다(민 6:3). 마지막으로 그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아니 되었다(민 6:5).

제 17 장 미가의 우상 숭배

단락구분 1-2. 미가가 품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준다 / 3-4.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神像)을 만든다 / 5-6. 미가의 신상 숭배 / 7-13.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하여 제사장을 삼다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일천 일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미가가 온 일천 일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취하여 은장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8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11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12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13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 ㉠ 본장은 사사기의 다른 부분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 ㉠ (1) 본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16장과는 달리 연대기적 순서와 관련이 없는 단절된 두 가지의 사건들이 소개되며 사사 시대의 타락한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된다.
- (2) 즉 사사기 저자는 16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웅적인 사사들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반면 17장 이후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혼란했음과 정치적인 구심점(求心点)이 없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 (3) 특히 본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여 주기 위해 미가의 우상 숭배와 그 집에 온 레위인이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 (4) 미가의 이야기는 18장까지 계속되고 19-21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2. ㉠ '미가' 는 어떠한 사람인가? (1절)

- ㉠ (1) 미가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이다.
- (2)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시 상태나(창 4:1;29:31-30:24) 혹은 장래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관련시켰다(창 17:5;32:28).
- (3) 또한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팔레스틴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는 법례가 있던 실로와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서 매우 신성한 지역으로 간주되

었다.

- (4) 이런 점에서 미가는 그의 이름 뜻으로 보나 그가 살았던 지역으로 보나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한 것은 그 개인의 잘못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당시의 시대상이 바르지 못했음을 대변해 준다.

3. **㉠ ‘은 일천 일백’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가? (2절)**

- ㉠** (1) 당시 은(銀)은 일정한 크기나 무게로 계량(計量)되어 화폐의 용도로 통용되었다.
- (2) 본절의 ‘은 일천 일백’을 RSV는 ‘은 일천 일백 개’ (the eleven hundred pieces of silver)로 KJV와 NIV에서는 ‘일천 일백 세겔’ (the eleven hundred shekels)로 나왔지만 ‘개’나 ‘세겔’이란 단위가 원문에는 없다.
- (3) 다만 이 은의 정량은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매수할 때 약속했던 돈의 분량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16:5) 또 미가가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일 년에 은 열을 주겠다고 한 것(10절)으로 보아 상당한 액수임에 틀림없다.
- (4) 미가는 이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서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4. **㉠ 미가는 은을 훔친 후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마땅했는가? (2절)**

- ㉠** (1) 미가가 비록 낱아 기르고 또 사랑해 주는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쳤을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절도 행위였다(참조, 잠 28:24).
- (2)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죄를 범한 후에 보인 그의 태도에 있었다.
- (3)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후 그의 어머니가 상심(傷心)하여 돈을 찾을 때에도 모른척 하였고 저주의 말이 나올 때까지 자기의 행위를 숨겼던 것이다.
- (4) 더구나 그는 돈을 내어 놓은 후에도 자기에게 선포된 저주를 상쇄하려는 의도에서 더 큰 악, 즉 우상 숭배의 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 (5) 이때 미가가 취할 행동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훔친 돈의 액수에 1/5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다(레 6:5).
- (6)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계명(출 20:15)을 어긴 죄였으므로 흠없는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贖愆祭)를 드려야 했다(레 6:1-7).
- (7) 오늘날의 성도들도 어떤 때는 부지중(不知中)에 또한 어떤 때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다.
- (8) 그때마다 성도들은 그 죄를 신속히 회개하여 신약 시대에 속건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

5. **㉠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려는 신상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3절)**

- ㉠** (1) 그녀는 새긴 신상(히, 페셀)과 부어 만든 신상(히, 마세카) 등의 우상을 만들었다.
- (2) 이 우상을 만든 의도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최악일 뿐이었다(참조, 2:11-15; 10:6-10; 신 27:15).
- (3) 즉 이 행위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동시에 범한 것으로서 큰 실수였다.
- (4) 이러한 미가 가정의 종교관은 결국 신상과 여호와를 동일시할 정도로 혼란되어 있던 당시의 영적 지식과 다신론적(多神論的) 사고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4절)**

- ㉠** (1) 그녀는 미가로부터 돌려 받은 은 가운데 2백을 은장색에게 주어 한 ‘페셀’(새긴 신상)과 한 ‘마세카’(부어 만든 신상)를 만들었다.

- (2) 여기에서 은장색(銀匠色)은 은을 세공하여 조각품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RSV, silversmith).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자들을 매우 우대하였다.
- (3) 한편 나머지 은 9백의 용도에 관해서는 본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 (4) 단지 2절의 내용, 즉 은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나머지 은은 다음 절에 나오는 신당(神堂)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결국 미가는 신상들을 자신의 가정 신당에 뒀으로써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7. **㉠ 미가는 어떤 식으로 잘못된 제사 제도를 행하였는가? (5절)**

- ㉠** (1)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의 신당에 안치한 미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였다.
- (2) 즉 그는 대제사장의 겉옷의 일부인 '에봇'을 사사로이 제작하였으며 이방의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었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무분별한 행위를 자행했다.
- (3)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속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착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제사장도 오직 레위인만이 취임할 자격이 있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출 28:1-5).
- (4) 또한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사람들이 가정에 모셔 놓은 우상으로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방 신상이었다(참조, 창 31:34; 삼상 19:13).

8. **㉠ 미가 당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치적인 통치자로서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그들에게 통치법은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이며 따라서 통치법의 제정자인 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셈이다.
- (3)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법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는데 실상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온갖 종교적 사회적인 죄를 범하여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 (4) 이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세움을 받지 않고 주장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하다가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 (5)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며 사람의 소견에서 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기 때문이다(사 55:8, 9; 롬 8:7).

9. **㉠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소년이 거할 곳을 찾아 방황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 소년은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거할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 (2) 이러한 레위인의 방황은 당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결과 레위인들이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본래의 사명을 버렸던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민 18:21, 24, 31).
- (3) 이와 같은 사태는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었다. 즉 십일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은 그들의 성읍에서 떠나게 되고 또한 레위인의 종교적 지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더욱 큰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것이 바로 미가가 있을 당시 이스라엘의 세태(世態)였다.

10. **㉠ 미가가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9-13절)**

- ㉠** (1) 미가는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 소년에게 일정한 보수를 약속하며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 (2) 일찌기 그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적이

- (2) 있다(5절).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도록 명령하셨으므로(출 29:35) 미가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있음을 느껴왔던 것 같다.
- (4) 그러던 중 미가는 레위인을 만나자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의 약점을 보충하려 하였다.
- (5) 그러나 이러한 미가의 의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었다.
- (6) 왜냐하면 미가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우상이었기 때문이다.
- (7) 이처럼 잘못된 목적으로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떤 부분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증스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11. ㉠ 레위인 소년의 잘못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는 미가로부터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食物)을 일 년간의 보수로 하여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2) 이때에 그는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미가가 요청한 내용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거절해야만 했다(참조, 신 27:15).
- (3) 그러나 그는 오히려 미가가 제의한 돈과 물질에 유혹되어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受諾)하고 마는 잘못을 저질렀다.
- (4) 그리하여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 (5) 만일 돈을 사랑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교역자가 있다면 그도 역시 우상의 일군이 될 수밖에 없다(참조, 딤후 6:10).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마 6:24).

연구자료

새긴 우상 (graven image). 히브리어로 <쉐셀>이라고 하는 새긴 우상(3절)은 돌이나 나무 등에 동물과 새 또는 사람의 형상을 새긴 것을 말한다(참조, 신 4:16). 신 7:5과 12:3에 의하면 이러한 새긴 우상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숭배되었는데 십계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어겼으며(참조, 대하 33:19) 그 때문에 선지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과 책망을 받았다(사 21:9; 렘 8:19; 호 11:2).

제 18 장 단 지파의 이주

단락구분 1-6 단 지파가 이주할 곳을 정탐하다 / 7-10 정탐에 대한 보고 / 11-20 단 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강탈하다 / 21-26 미가의 추격과 단 지파의 협박 / 27-31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다

1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3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방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9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열기를 게을리 말라

10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11 단 지파 가족 중 육백 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12 올라가서 유다 기랴에어림에 진치니 이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랴에어림 뒤에 있더라

13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4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16 단 자손 육백 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17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대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20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족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22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낮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24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나 하느냐

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

로 돌아갔더라

27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증진하고 거기 거하며

29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30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 ㉠ 본장은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을 어떻게 보여 주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단 지파가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쫓겨나 북쪽으로 이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단 지파는 북으로 이주하는 중에 레위 제사장과 미가의 우상을 흠꼴했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배교(背敎)와 정치적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 (3) 더구나 레위 제사장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미가를 배반한 사건은 당시 종교인들의 부패함과 도덕적 종교적 무법성(無法性)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4) 이러한 보장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사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음을 알게 되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2. ㉠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은 단 지파의 기업 획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1절)

- ㉠ (1) 본장의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에 정치적인 중심점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 (2)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神政國家)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했으나 신앙심이 약화된 당시로서는 이것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 (3) 이러한 상황에서 단 지파는 기업을 획득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4)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로 잘 단합하여 있었다면 단 지파가 기업을 획득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도와 주었을 것이다.
- (5)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협력 체제가 유지되지 못했으므로 단 지파의 기업 획득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3. ㉠ 단 지파의 기업 획득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1절)

- ㉠ (1) 단 지파는 여호수아 당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땅과 인접한 가나안 서부 산간 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분깃으로 지정받았다.
- (2) 그러나 그들은 당시 선주민(先住民)인 아모리 족속에 밀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참조, 1:34-36).
- (3) 특별히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하에서 단 지파 출신인 삼손이 소라 땅을 중심으로 사사 활동을 했으나 그 소라 땅마저 단 지파가 점령했던 곳은 되지 못했다(13:1이하).
- (4) 이리하여 결국 단 지파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가나안의 최북방인 '라이스'로 옮겨갔다.

4. ㉠ 단 자손은 라이스로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2절)

- ㉠ (1) 그들은 먼저 용맹 있는 사람 다섯을 선발하여 자기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땅 라이스의 형편을 정탐해 오도록 하였다.
- (2) 정탐군들은 라이스로 가는 도중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유숙하게 된 집이 바로 전장(前章)에 소개된 미가의 집이었다.
- (3) 여기에서 단 지파는 미가의 우상과 관련을 맺게 되고 이것은 그 후 계속 우상주의로 타

락하는 계기가 되었다(참조, 30, 31절).

5. **㉠ 단 자손의 거주지 '소라'와 '에스다울'에 관하여 설명하라(2절).**

- ㉠** (1) '소라'는 예루살렘 서편 24km 지점의 높은 산등성이에 있는 도시로서 이곳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이 있었다(13:2, 25).
 (2) 그리고 '에스다울'은 소라 북동쪽 2.4km에 위치하였는데 소라와 에스다울 두 성읍은 모두 여호수아 당시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가운데 속했다(수 19:41).
 (3) 본래 단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17개 성읍을 분배받았으나 당시에는 겨우 2개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참조, 수 19:40-47).

6. **㉠ '나를 고빙하여'라는 레위 소년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5절)**

- ㉠** (1) '고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칼>은 고용주가 품삯을 주고 일군을 고용한다는 뜻이다.
 (2) 그러므로 레위 소년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종교적 신앙심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삯에 고용된 삯군임을 밝힌 것이다.
 (3) 하나님 앞에서의 뚜렷한 소명 의식 없이 단지 보수에 이끌려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목자가 아니라 삯군이다(요 10:12, 13).

7. **㉠ 정답군들은 레위 소년에게 무엇을 질문하였는가? (5절)**

- ㉠** (1) 그들은 삯에 얽매어 있는 레위 소년의 소행을 책망하여야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들의 행동 여부를 알고자 했다.
 (2)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의 신앙 역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로부터 영향을 받아 혼합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신앙 배경을 가진 그들은 즉시 그 레위인에게서 우상 숭배가 가미된 신앙 형태를 수용하였고 지극히 기복적(祈禱的)인 질문을 하였다.
 (4)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자연히 현세적 안락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오늘날의 성도들도 현세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얽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 레위 소년 제사장의 대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 (1) 레위 소년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지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사장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3)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이 평화를 선언할 때가 많았다.
 (4)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고(렘 23:17) 스가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하였으며(슥 10:2) 주께서 재림하실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로 예언할 것이다(살전 5:2, 3).
 (5) 따라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흔히 평안을 바라며 이기적인 복에 관심이 많은 자들에게 침투함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경성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 24:4; 눅 21:36).

9. **㉠ 정답군이 파악한 라이스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7절)**

- ㉠** (1) 라이스는 팔레스틴 최북단(最北端)에 있는 성읍으로 단 지파의 본거지 소라와 에스다울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2) 이 성읍은 서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동쪽으로는 헬몬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요새로서 매우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3) 또한 당시에 라이스를 지배한 베니계족의 시돈조차도 레바논 산맥으로 인하여 라이스

관리가 어려웠으므로 이곳을 방임 상태에 두었다.

- (4) 더우기 라이스는 시몬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지도자나 정치 체제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으며 이웃 성읍과 동맹을 맺을 수도 없었다.
- (5) 이러한 상황들은 단 지파가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에 매우 적합한 요소들이었다.

10. **㉠** 라이스 정복 길에 오른 단 지파 군대가 도중에 진친 마하네단의 위치는 어떠한가? (11-13 절)

- A (1) 정탐군의 긍정적인 보고를 접한 단 지파는 다시 용사 600명을 선발하여 병기로 무장을 시키고 라이스를 향해 가던 중 마하네단에 진을 쳤다.
- (2) '마하네단'은 히브리어로 '단의 진영'이란 뜻인데 이곳은 유다 지파의 지역 중에 속한 기랴여아림의 뒤편에 위치했다.
- (3) 그런데 13:25에도 마하네단이란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단 지파의 이동은 삼손시대 이전의 사건인 것으로 보여진다.

11. **㉠** 레위인 제사장은 단 지파에 의해 포섭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14-20 절)

- A (1) 단 자손 6백 명은 과거 미가의 집에 묵었던 적이 있는 정탐군들의 말을 듣고 미가의 우상들과 예봇을 신당에서 취해 냈다.
- (2) 이때 겁에 질린 레위인은 조심스럽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문하였는데 이 한마디에는 그의 마음 자세가 나타나 있다.
- (3) 사실 미가의 집에 비치되어 있던 우상들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이었기에(참조, 17:10) 그는 직업 의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 (4) 만일 당시 그에게 종교적인 신념과 정열이 있었다면 그는 적극적으로 단 지파의 행동을 만류했을 것이다.
- (5) 그러나 그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군에 불과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간과(看過)하고 그들에게 포섭되어 미가를 떠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
- (6) 이처럼 소명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 타산에 의해 좌지우지(左之右之)되어 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성경은 '살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간 자요 자기 뱀만 기르는 목자'라고 통렬하게 공격(攻駁)한다(유 1:11, 12).

12. **㉠** 단 자손을 추격한 미가가 돌아온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21-26 절)

- A (1) 단 자손이 떠난 후 미가와 그의 친구들은 그의 신상과 제사장을 다시 찾으려고 단 자손을 다시 쫓아 갔다.
- (2) 그러나 단 지파가 그들을 위협하자 단 지파보다 미약함을 깨달은 그들은 우상과 제사장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 (3)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지는 못한다.

13. **㉠** 단 자손의 라이스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7, 28 절)

- A (1) 단 자손은 라이스에 도착하여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 거민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 정복한 후 건물을 다시 세우고 정착했다.
- (2)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을 쫓아내실 것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 진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신 7:1-5).
- (3) 이렇게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시려는 데에 있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오염되었으면서도 라이스 백성들을 쳐부순 것은 율법의 근간인 제 2계명은 물론, 제 3계명, 살인 금지의 제 6계명, 절도 금지의 제 8계명, 탐심을 금지한 제 10계명까지 파괴한 죄악이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악

할 수밖에 없다.

14. ㉠ 라이스를 '단'이라 일컫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9절)

- ㉠ (1) 라이스가 있는 그 지방은 본래 납달리 지파의 분 것이었으나 납달리 지파가 점령하기를 실패한 지역이었다 (참조, 수19:32-36).
 (2) 그런데 단 지파가 자기에게 부여된 지역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정복했던 것이다.
 (3) 따라서 단 지파는 이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단(Dan)이라고 불렀다.

15. ㉠ 단 자손은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는가? (30절)

- ㉠ (1) 단 지파는 라이스 지방을 진멸한 뒤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정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지파가 되었다.
 (2) 이후로 단 지파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단 지파의 이름은 대상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제보에서 누락되었으며 또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 중에서도 빠져 있다.
 (3) 결국 단 지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웠던 것은 자기들의 파멸을 재촉한 행위였다.
 (4) 이와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좋다고 판단하여 행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쁠 수 있다 (잠 14:12; 16:25).
 (5)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아 준행해야 한다 (참조, 딤후 3:14-17).

16. ㉠ 단 지파의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었는가? (30절)

- ㉠ (1) 본절에서 미가의 집에 있다가 단 지파에게 포섭되었던 레위 소년 제사장의 신분이 밝혀지는데 그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2) 개역 성경의 이 표현을 풀어 쓰면 레위 소년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이며,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의 아들이라는 말이 된다.
 (3)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 맛소라 사본에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로 나타나 있다.
 (4)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므낫세'보다 더 옳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만일 맛소라 사본에 따라 본문의 모세가 므낫세의 오기(誤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그 소년은 사실 므낫세의 손자는 아니었지만 후대의 므낫세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질의 범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조, 왕하 21:1-9).
 (6) 오늘날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70인역 및 개역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모세로 번역하고 있으나 KJV는 맛소라 사본에 따라서 므낫세로 번역하였다.

17. ㉠ '사로잡히는 날까지'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가 말인가? (30, 31절)

- ㉠ (1) 요나단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봉직할 기간을 가리키는 '사로잡히는 날까지'란 표현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잡혀가지까지로 보기는 힘들다.
 (2) 그 이유는 미가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참조, 17:6; 18:1; 19:1).
 (3) 또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란 표현을 참고해 볼때 우리는 이 시기를 엘리 제사장 당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길 무렵으로 볼 수 있다 (삼상 4:10, 11).
 (4) 당시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도 같이 여겨졌으므로 언약궤의 빼앗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빼앗겨 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여기에서 '사로잡히는 날'이란 표현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제 19 장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하다

단락구분 1-9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다 / 10-15 첩과 함께 돌아오다 / 16-21 기브아 노인의 영접 / 22-26 기브아 비류(匪類) 등의 강간 / 27-30 레위인이 기브아의 일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호소하다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2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3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4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리매 그가 삼 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5 나흘 만에 일찌기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6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7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8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찌기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10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1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1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13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14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와 함께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쭉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20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대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밤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23 집 주인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이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명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25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육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 지라

26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27 그의 주인이 일찌기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

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열 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1. ㉠ 본장이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라.

- ㉠ (1) 본장은 '미가의 우상 숭배와 단 지파의 불신앙이 기록된 17, 18장과 연대적, 지역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는 않는다.'
- (2) 그러나 본장은 17, 18장과 더불어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 기강이 문란해졌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 (3) 즉 첩을 가진 한 레위인에게 강포와 추악한 범죄를 행한 기브아 거민의 기록인 본장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란 말로 시작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이 무정부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4) 또한 본장은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도 잘 보여 준다.
- (5)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레위인을 기브아 비류들의 손을 통하여 징벌하심으로 그 레위인의 불경건한 행위를 심판하셨던 것이다.

2. ㉠ 사사 시대 말기(末期)의 종교적 타락상을 말하라(1-9절).

- ㉠ (1) 레위인이 첩을 둔 사실과 그 첩이 간음한 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그 당시에는 성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또한 첩이 남편을 배반하고 친정으로 간 것은 배신 행위를 뜻하는데 이 정도로 당시 사회에는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 (3) 이처럼 성 도덕이 문란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 (4)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자행 자지(自行自止) 하는 생활에서부터 발생된다(롬 1:28-32).

3. ㉠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가?(1절)

- ㉠ (1) 본장의 끔찍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기록되었다(참조, 17:6; 18:1).
- (2) 즉 사사가 마지막 3장(19-21장)에 나타난 사건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살아 있고 법궤가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일어난 것 같다(20:27, 28).
- (3) 그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를 보일 증거는 없으나 비느하스는 분명히 여호수아보다 더 살았다(수 24:29, 33).
- (4) 본 사건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비느하스의 죽음 사이에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4. ㉠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1절)

- ㉠ (1) 당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었다.
- (2) 따라서 본절의 레위인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참조, 18절).
- (3) 그러나 이 귀절에서 '구석에'라는 말은 이 레위인의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5. **㉠** 레위인이 첩을 취했던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절)

- ㉠** (1)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혼인(婚姻) 형태는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였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중혼(重婚)을 했다는 증거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찾아 볼 수 없다.
- (2)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중혼 금지 조항이 없고 오히려 처첩(妻妾) 사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신 21:15-17) 당시 일부에서는 중혼이 공공연하게 시행되었던 것 같다.
- (3) 그렇다해서 율법이 중혼을 장려하거나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로 인정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참조, 신 17:17).
- (4)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혼 계획은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창 2:25).
- (5) 그러므로 레위인이 본처 외에 첩을 취했던 것은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위배한 처사로서 본장에 나타난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6. **㉠** 레위인이 행음하고 자기를 떠나간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했던 것은 당시 사회 윤리의 어떤 면을 보여 주는가? (2, 3절)

- ㉠** (1) 율법에 의하면 행음한 여자는 반드시 둘에 맞아 죽어야만 했다(신 22:22).
- (2) 만일 본장의 레위인이 너무 관대한 나머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레위인의 신분으로서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는 안 되었다.
- (3) 즉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레 21:7).
- (4) 그러나 당시 사회가 너무나 부패하여 그녀가 행음하는 것과 같은 죄는 다반사(茶飯事)였기에 그 레위인은 율법을 무시한 채 첩을 데려오고자 했던 것이다.

7. **㉠** 첩이 베들레헬 친정 집에서 보낸 너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

- ㉠** (1) 너 달이라는 시간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행음한 첩에 대한 중요성을 풀어 버리게 했을 것이다.
- (2) 비록 중요성이 사라진다 해도 그 죄과(罪過)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 (3) 그런데 죄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레위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중요성이 해결되자 곧바로 첩을 찾아 나섰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착념치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리는 것은 불경건한 자의 특징이다(참조, 딤후 6:3-6).

8. **㉠** '다정히 말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나뵤 알림바>로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녀의 마음에 말하다'가 된다.
- (2) 즉 레위인은 범죄로 인하여 상처가 난 첩의 마음에 말하고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치료한 후 데려오고자 하였던 것이다.

9. **㉠** 여인이 자기 남편을 아버 집으로 인도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레위인이 자기 첩에게 찾아갔을 때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에게로 인도한 것으로 보아 레위인과 그의 첩은 서로 화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그러나 레위인의 첩이 회개하였다고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그녀와 화해하였다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덮어 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태도였다.

10. **㉠** 레위인이 나홀 만에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는 레위인으로서 종교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안식일에는 성소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 (2) 따라서 그는 이제까지 3일 동안 머무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고 나흘째는 일찍 일어나 떠날 필요가 있었다.
- (3) 그러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 장인의 인간적인 호의(好意)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되었다.
- (4) 이것은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임무를 인간의 정(情)보다 소홀히 여기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해 준다(참조, 렘 48:10).
- (5) 만일 이날 아침 예정대로 출발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텐데 하루를 더 머물게 됨으로 레위인은 기브아에서의 비극적인 사건(22절 이하)을 겪어야만 했다.

11. **㉠** 레위인이 5일째 저녁까지 머물러 있게 된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8,9절)

- ㉠** (1) 첩장인이 떠나려는 레위인을 또다시 5일째 저녁까지 머물도록 간청한 사건을 보면 그가 사위와 머무는 것을 무척 즐거워한 것 같다.
- (2) 그러나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또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염려해 주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신앙적으로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아마 그의 딸도 그를 닮아 그녀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2절).
- (4) 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 안에서 모범된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고전 11:1; 엡 6:4).

12. **㉠** 5일째 저녁에 떠나고자 한 레위인의 모습에서 그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10절)

- ㉠** (1)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살았고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았다.
- (2) 이러한 상황에서 밤에 여행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3) 따라서 레위인은 일찍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쳐 버리고 이와 같이 위험한 일을 자초한 셈인데 이는 그가 매우 경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준다.

13. **㉠** 레위인이 5일째 저녁에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 이유는 안식일이 가까와 성전에 관한 그의 직무상 꼭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 (2) 즉 자기 집을 떠난지 벌써 5일이 지났고 그날 밤이 가까왔을 때에 안식일은 꼭 하루가 남은 셈이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이전 안식일 후 여섯째 낮이 지나고 밤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참조, 창 1:5; 2:3; 눅 23:54).
- (3)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밤이 되었지만 반드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레위인이 당시의 타락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나마 신앙과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철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었다.

14. **㉠** '여부스' 성읍은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가? (11절)

- ㉠** (1) 레위인이 출발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약 10km이며 도보로 2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이다.
- (2) 여부스에 가까이 오자 해가 지려한 것을 보아 그는 베들레헴에서 해지기 약 2시간 전에 출발한 것 같다.
- (3)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과 욕심에서 떠나야 한다(참조, 갈 5:24).
- (4) 그러나 이 레위인은 장인의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즐기려는 욕망으로 인해 머뭇거리다가 해질 무렵에야 비로소 길을 떠난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실격자(失格者)였다.

15. ㉠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1-15절)

- ㉠ (1) 레위인의 종이 여부스에서 자고 가자고 권했을 때 레위인은 이를 거절하고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서 유숙하자고 하였는데 결국 기브아에서 여장(旅裝)을 풀게 되었다.
- (2) 레위인이 여부스에서 유숙하기를 거절한 것은 여부스의 성읍의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요 18:28; 눅 10:31, 32).
- (3)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참조, 민 19:22).
- (4)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실로로 가는 가장 가까운 베나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거리는 여부스에서 약 6km이나 도로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하는 지점에 위치했다.

16. ㉠ 성읍 거리에 앉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성읍 거리'는 마을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넓은 광장을 가리킨다.
- (2)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읍 거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여기에서 모든 재판과 회의가 열렸고 사교와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웅변이 행해지고 모든 물건이 거래되는 등 당시 사회 활동은 성읍 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3) 그래서 존경을 받는 자들은 이 성읍 거리에 앉을 수 있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 나설 수 없었다.
- (4)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성문에 앉는다' 또는 '넓은 곳에 선다'라는 표현은 모두 이 성읍 거리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다(참조, 창 19:1; 신 21:19; 룖 4:1; 시 18:19; 31:8).
- (5) 본장의 레위인도 점잖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읍 거리에 앉아 자기를 영접할 사람을 기다렸다.

17. ㉠ 레위인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인가? (16-21절)

- ㉠ (1) 레위인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당시 기브아는 율법이 명한 나그네 대접에 소홀히 하는 불경건한 성읍이었다(신 10:17-19).
- (2) 그러던 중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하였는데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베나민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객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 (3) 그러므로 이 노인도 나그네이었기에 나그네 된 레위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레위인을 친절히 영접했던 것이다.
- (4)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한 자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끔 하시는 것이다(참조, 히 13:1-3).

18. ㉠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이 노인의 집을 두들기며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22절)

- ㉠ (1) 여기서 '비류' (匪類)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네 벨리알>로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란 뜻이다.
- (2) 벨리알이란 말은 본래 '가치없는', '쓸모없는' 등의 뜻을 지닌 말로서 개역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불량자' (삼상 2:12), '잡류' (신 13:13), '악한' (悲漢, 삼상 1:16), '난류' (亂類, 삼하 20:1)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무리배' (無賴輩)로 되어 있다.
- (3) 이 비류들이 노인에게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相關) 하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강제적인 성 행위를 원한 것이다.
- (4) 이러한 사건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극악한 성적 범죄로 (창 19:5)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 (레 20:13).
- (5) 오늘날도 범람하는 성 개방의 물결에 휩쓸려 성경에 금지된 온갖 성적 문란 행위가(매

춘, 혼의 정사, 동성애, 혼숙 등) 자행되고 있는데 이로 보건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 세대에도 임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

19. **Q** 노인이 비류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침을 넘겨 주려 한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4절)

- A** (1) 노인은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침을 넘겨 주겠다고 제안했다.
 (2) 여기서 노인이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좋으나 악을 막기 위해 죄없는 여성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3) 그 노인은 그의 딸과 레위인의 침을 음란한 비류들의 욕정에 희생되도록 내어 줄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4) 아무리 비류들의 태도가 완강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죄에 대한 유약한 대응(対応) 태도이며 이러한 제안은 그 자체로서 죄악인 것이다.

20. **Q** 비류들은 레위인의 침을 어떻게 행했는가? (25절)

- A** (1) 그들은 레위인의 침을 밤새도록 윤간(輪姦)한 후에 새벽에 이르러 놓아 주었는데 그 여인은 곧 절명(絶命)하고 말았다.
 (2) 이러한 끔찍한 범죄는 마침내 그 비류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모두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20:46).
 (3) 하나님께서 종종 죄인들을 계속 죄악 가운데 버려 두시는 것은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롬 1:26, 28).

21. **Q** 레위인의 침이 죽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7, 28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넉 달이나 주셨으며 또한 그의 남편이 용서할 때 회개의 문이 열렸으나 진정으로 회개치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2) 여기서 비류 기브아 거민의 행위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 또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 훗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3)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준엄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한다.

22. **Q** 레위인이 침의 시체를 열 두 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의도는 무엇인가? (29절)

- A** (1) 레위인은 전 이스라엘에게 기브아 거민의 죄악을 고발하고 싶었으나 당시에는 왕이나 중앙 통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고소(告訴)할 만한 공식 기구가 없었다.
 (2) 그래서 그는 그 침의 시체를 12등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었다.
 (3) 시체를 절단하여 12지파에게 보낸 것은 살해된 여인에게 가해진 범죄를 강렬하게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4) 그러나 그 레위인은 자기가 당한 기브아 거민의 범죄만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버린 채 불의를 용납한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
 (5) 결국 본장은 자기의 허물은 잊고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집착하던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며 이러한 부조리는 20장에서 발생한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제 20 장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

단락구분 1-7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베냐민 지파의 비행을 고소하다 / 8-11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 / 12-17 베냐민 지파의 불복종 / 18-23 첫번째 접전(接戰) / 24-28 두번째 접전 / 29-35 세번째 접전 / 36-44 베냐민 지파의 대패(大敗) / 45-48 6백 명을 제외한 전 베냐민 지파의 멸망

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이었으며

3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7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는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9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뽑아서 그들을 치되

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에 열, 천에 백, 만에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이뇨

13 그러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

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15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칠백인데

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들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향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향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향오를 벌이니라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일만 팔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

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
니라

30 이스라엘 자손이 제 삼 일에 베냐민 자손
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
여 항오를 벌이며

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피임
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
편은 벨엘로 올라가는 길ियो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
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32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길로 피어
내자 하고

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
서 바알다말에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
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쏘아져 나왔더라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일만
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
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
지 못하였더라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
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
냐민 사람 이만 오천 일백을 죽였으니 다 칼을
찍는 사이였더라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
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
한 군사를 믿고 잠간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
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악
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
호를 삼자 하고

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몰려가고 베냐
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죽
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
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
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
기가 하늘에 닿았고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
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
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
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쫓는 곳에서 짓밟으며

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일만 팔천이
니 다 용사더라

45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뎠음에 이
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46 이 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엎드려
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이니 다 용사더라

47 베냐민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녀 달을 지내었더라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
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 ㉠ (1) 본장은 19장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기록이다.
- (2)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타락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아직은 이스라엘은 회중은 범죄에 대해 분개하고 그들을 징벌하고자 했다.
- (3) 또한 베냐민에 대해 징벌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벨엘로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울며 금식함으로 회개하였으며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런지를 여호와께 물어 보았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치게 하는 신앙심이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된다.
- (5) 그러나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자손이 남자 6백 명 외에는 전멸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막대한 인명(人命)을 잃었다.
- (6) 이러한 본장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며 회개치 않는 자를 준엄하게 징벌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신다.

2. ㉠ 본장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쯤인가?

- ㉠ (1) 본장의 사건은 기브아 비류들의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발생되었다.
- (2) 특별히 28절은 본장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 또 다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3) 즉 이 사건은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에 발생한 것이다.
- (4) 비느하스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사람임을 생각할 때(민 25:7, 31) 본장의 사건은 사사 시대 초기에 발생한 사건임이 명백하다.

3. **㉠** 이스라엘 자손이 총회로 모인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1절)

- ㉠** (1) 그들은 일제히 북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어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고 심각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였다.
- (2) 총회의 장소인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영토 서쪽 변경, 즉 기브아에서 약 4.8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 북방 7.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현재의 '네비 삼윌' (Nebi-Samwil) 과 동일시된다(10:17; 수 18:26).
- (3) 이곳이 사무엘 시대에는 국가적 총회 장소였다(삼상 7:5-12). 이곳이 총회 장소로 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4. **㉠** 이스라엘 총회에 칼로 무장한 보병 40만이 모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총회에 참석한 40만의 군대는 기브아를 징벌하는 데 있어서 강제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이었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의 죄악을 반드시 징벌하여 이스라엘 중에 그러한 죄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3) 그러나 실상 기브아의 비류들을 처벌하는 데에 40만씩이나 되는 병력이 필요치 않았다.
- (4) 이것은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두려움을 준 나머지 자신을 방어하게 하고 또 선제 공격을 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 (5) 따라서 이스라엘 총회는 무력으로 징벌하기에 앞서 기브아 거민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했다.
- (6) 그런 후에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율법을 따라 죄인들을 처단했다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죄 짓기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도록 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 (7) 만일 교회에서 범죄한 자가 나타날 때에도 먼저 그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준 후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마 18:15-18).

5. **㉠** 기브아 사건에 대하여 레위인은 어떻게 진술하였는가? (4-7절)

- ㉠** (1) 레위인은 재판의 고소자로서 총회에 출두하여 전장(前章)에 기록된 대로 기브아 사건의 전모를 진술하였다.
- (2) 그러나 그의 증언은 좀 과장된 데가 있었다. 즉 그는 자기를 영접하였던 에브라임의 노인이 베푼 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기브아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전체 기브아인들이 범죄한 것같이 말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범한 잘못, 즉 행음한 첩을 징벌하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온 사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첩을 내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던 것이다.
- (4) 여기서 레위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도 모두 이야기하여서 이스라엘 총회가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해야 했다.
- (5) 결국 레위인의 그릇된 증언은 공의에 대한 바람보다도 자신의 원수를 증오하는 것에서 비롯된 처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격하게 만들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 (6) 이처럼 한 사람의 이기적인 편견은 작은 죄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파멸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

6. **㉠** 이스라엘의 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이 결의되었는가? (8-1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 결의 사항을 채택하였다. ① 우리는 기

브아의 비류들이 형벌을 받을 때까지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28절).

②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겠다(9절).

③ 우리는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을 선택하여 군량미를 공급하도록 하겠다(10절).

④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21:1).

⑤ 우리는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21:5).

(2)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브아 비류들에 대한 분노가 극심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음을 보여 준다.

7. **㉠**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12-14절)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기브아의 비류들을 처단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2) 그래서 그들은 먼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기브아의 비류들을 넘겨 주도록 요청하였다.

(3) 그러나 베냐민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하였으므로 전쟁이 불가피해지고 말았다.

(4) 이로써 베냐민 자손들은 기브아의 죄인들을 옹호하고 총회의 의로운 결정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기브아 비류들과 공범임을 자처한 셈이 되었다.

(5) 죄를 죄로 인정치 않고 오히려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사람은 범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롬 1:32).

8. **㉠** 베냐민 군대의 수효는 어느 정도였는가? (15, 16절)

㉠ (1) 이스라엘 총회의 요청을 거부한 베냐민은 자체 방어를 위해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그 결과 2만 6천 명이 소집되었다.

(2) 민 26장에서 베냐민 자손의 수자가 남자만 4만 5천 6백 명으로 계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본질의 수효는 베냐민의 성인 중 늙은 남자는 빠지고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젊은 남자만 모인 것을 암시한다.

(3) 그 외에 기브아 출신 거민 중에 따로 700명을 선발해 특공대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왼손잡이로서 물매 던지기에 있어서 뛰어난 솜씨를 지녔다.

(4) 여기서 물매는 조그만 가죽 조각 혹은 천을 엮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속에 돌이나 자갈을 끼워서 돌려 던질 수 있는 고대의 공격용 무기였다.

(5) 후대에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죽이기도 했다(삼상 17:49).

9. **㉠**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질문하여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18절)

㉠ (1) 이스라엘 자손은 총회 기간 동안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 놓은 베엘로 올라갔다.

(2) 이것은 그들이 이번 전쟁을 여호와와 이름과 능력으로 수행되는 성전(聖戰)이라고 보고 전쟁을 여호와와 함께 시작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행동이다.

(3)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굳게 믿고(삼상 17:47) 전쟁의 진행에 관한 지시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4)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던 우림과 둠뭇을 사용했을 것이다(참조, 출 28:30).

(5)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지파가 선발대로 공격하라고 응답하셨다.

10. **㉠** 이스라엘 대 베냐민의 첫번째 싸움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19-21절)

㉠ (1) 드디어 이스라엘 대 베냐민의 전투가 개시되었는데 수적 비율로 보면 약 15 대 1로 이

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 (2)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볍게 승리를 거두어야 할 싸움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 (3) 즉 전투가 개시된 당일 이스라엘 군대는 그만 2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말았던 것이다.
- (4)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그들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직 부적합했음을 의미한다.
- (5)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종을 들어 쓰실 때에 먼저 그 종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시기를 원하신다.

11. ㉠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한가? (23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1차 전투에서 패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傷)한 나머지 벨엘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 (2)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행위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패배를 슬퍼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불신앙적 행위였다.
- (3) 이때 그들은 전투에서의 실패를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로 알고 그들의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아야 했을 것이다.
- (4) 이처럼 사람이 회개해야 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그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못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욥 2:9).

12. ㉠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두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23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금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眞意)를 알기 위하여 제사장을 통해 '다시...싸우리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다.
- (2) 이때 제사장이 사용한 방법은 우림과 둠뎀을 통한 문의법이었을 것이다(출 28:30).
- (3) 이 문의 방법은 제사장이 제기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의복에 부착된 우림과 둠뎀을 통하여 가부(可否)를 알려 주시는 것이다.
- (4)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의 가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회개를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 (5)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림과 둠뎀과 같은 방법 대신에 보혜사(保惠師) 성령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므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요 16:7-9; 13).

13. ㉠ 2차 전투가 보여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4, 25절)

- ㉠ (1) 2차 전투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은 1만 8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베냐민 자손에게 패배하였다.
- (2)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강하여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 (3) 이 사실은 죄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는 반드시 죄악을 회개한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참조, 롬 6:12, 13).

14. ㉠ 두번째 패배 후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26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두번째 전투에서마저 크게 패배한 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렸다.
- (2) 그들이 이번에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전보다 신중하였다. 즉 첫번째 패배 후에 그들은 군대의 향오를 갖추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다.
- (3) 이것은 이전에는 그들이 인간적인 힘만 믿고 하나의 요식(要式) 행위로 하나님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인간적 행위를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음을 의미한다.

(4)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비로소 정결함을 얻고 3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15. **㉠** 당시 베엘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은 누구인가? (28절)

- ㉠** (1)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서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다.
 (2) 이 사실은 20장의 사건이 발생한 연대에 관하여 유일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3) 즉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을 통하여 광야에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생존하여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때는 분명히 사사 시대 초기였던 것이다.

16. **㉠** 3차전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29-35절)

- ㉠** (1) 3차전은 이스라엘의 회개 후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가운데 1, 2차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2) 3차전에서 이스라엘은 기브아 성 들레에 복병을 배치하고 유인 작전을 사용하여 베냐민 군대를 끌어내어 집중 공격을 함으로써 2만 5천 1백 명을 살륙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3) 이처럼 이스라엘이 색다른 전술을 사용하여 승리하였지만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의 전술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
 (4)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 전쟁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셨다' (35절) 라고 평가하였다.
 (5) 이처럼 무리를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인의 죄악을 옹호하던 베냐민은 급기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고 말았다.
 (6)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의한 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죄인을 징벌하시든지 아니면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용서하시든지 하여 그의 공의(公義)를 세우신다.

17. **㉠** 36-48절의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36절 이하의 기록은 시간적으로 35절 다음에 오는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9-35절에서 간략하게 진술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다.
 (2)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악을 옹호하던 베냐민 자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볼 수 있다.
 (3) 하나님을 대적한 채 불의한 자리에서 만용(蠻勇)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다 이와 같이 처참할 뿐이다.

18. **㉠** 베냐민의 패잔병 6백 명이 피신한 립몬 바위는 어느 곳인가? (47절)

- ㉠** (1) '립몬'은 베엘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람문(Rammun)과 동일시된다. 이곳은 또한 기브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1.5km 거리에 있으며 베냐민과 요단 사이의 광야에 위치한다.
 (2) 립몬 바위는 고도 757m의 구릉 위에 있는 큰 동굴로서 능히 수백 명의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고 또 음료수를 공급할 샘도 있었다.
 (3) 이곳에서 베냐민의 패잔병 600명이 피신하여 4개월을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였다.
 (4) 결국 베냐민은 2만 5천 7백의 장정 중에서 겨우 6백 명만 남긴 채 2만 5천 1백 명이 비참하게 전멸하였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각 사람의 죄는 반드시 자기 머리로 돌아가며 육을 위하여 씨를 뿌린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갈 6:7, 8).

제 21 장 '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화목

단락구분 1-7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 / 8-12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아베스 길르앗을 공격하다 / 13-15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 사절을 보낸다 / 16-25 장로들이 베냐민 생존자들의 결혼을 의논하다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 백성이 벨엘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3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르러졌나이까 하더니

4 이튿날에 백성이 일찌기 일어나서 거기 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6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겼도다

7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아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9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아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10 회중이 큰 용사 일만 이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아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11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12 그들이 아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13 온 회중이 립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

엘 사람이 아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므로

15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꺾이 나게 하셨음이라

16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17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19 또 가로되 보라 벨엘 북편, 르보나 남편 벨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와 절기가 있도다 하고

20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24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 ㉠** (1) 전장(前章)에서 벌어진 동족 상잔의 전투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게 되었다.
- (2) 이제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파를 재건시키기 위해 애쓴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
- (3) 결국 전쟁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나친 행동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의 이름이 역사에서 끊어질 뻔한 위기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흥분된 감정으로 처리하면 과오를 범하게 되고 또 그 과오에 대한 뒷처리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어야 한다.
- (5)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할 일들을 처리하되 감정과 흥분을 억제하고 침착하게 치루어 나가야 한다.

2. **㉠** 본장의 사건이 발생된 시기는 언제인가?

- ㉠** (1)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본장은 20장에 이어진 내용이므로 본장의 사건이 발생된 시기도 20:28에서 언급된 대로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 (2) 그러므로 본장의 사건 역시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 (3)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반드시 연대순으로 사사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장을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다.

3. **㉠**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엘에 모여 대성 통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을 진멸하고 난 뒤에 미스바에서 한 맹세(18절)를 기억하고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 (2)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딸을 주지 아니하겠다는 맹세가 정당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난 뒤에는 그 맹세가 너무 과격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이다.
- (3) 만일 이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는 슬픈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 (4)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고심했다.
- (5) 이러한 사실은 당시 패역한 사회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전쟁을 마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찌기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 (2)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義)의 도구임을 믿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이 불의하였다는 자책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 (3)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정도로 과도하게 징벌한 것을 죄악으로 느끼고 이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 (4)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쓰임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근신(謹愼)하며 좌(左)로나 우(右)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 이스라엘 자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백성을 죽이리라고 맹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맹세를 한 이유는 기브아 비류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그러한 죄악을 가볍게 보거나, 용인(容認)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 (2)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용인하는 자들도 함께 멸하여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겠다고 그들은 크게 맹세하였던 것이다.
- (3) 본문에 '크게 맹세한다'는 말은 '엄숙히 서약한다' (공동 번역)는 의미를 지닌다.
- (4)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자 할 때에 아직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 (5) 여기에서 멸족(滅族) 위기에 놓였던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지는 해결책이 나타난다.

6. **㉠** 베냐민 지파를 소생케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8절)

- ㉠** (1) 베냐민 지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림몬 바위에 남아 있는 베냐민의 패잔병 6백 명에게 아내를 주어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 (2) 하지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중요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7절)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 (3) 이러던 중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치 아니한 지파나 성읍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있음을 발견했다.
- (4) 그리하여 총회에 참석치 아니한 자를 찾은 결과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 거민을 징계한 후 젊은 처녀 4백 명을 얻어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 (5)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소생시키는 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된다.
- (6)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의 맹세(5, 7절)를 다 지키게 하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시는 한편 베냐민 지파를 소생시키는 사랑도 나타내셨던 것이다.

7. **㉠** '야베스 길르앗'은 어떠한 성읍이었는가? (8-13절)

- ㉠** (1)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강 동쪽 길르앗 땅에 있는 갓 지파의 성읍이었다.
- (2) 즉 이 성읍은 요단 강의 지류(支流) 중 갈릴리 바다 남쪽 32km 지점의 동쪽으로부터 요단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와디 엘 야비스(Wadi el-Yabis, 야베스 강) 근처에 위치했다.
- (3) 이 성읍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4백 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12절) 그리 큰 성읍은 아니었던 것 같다.
- (4) 이러한 견해는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기 위해 보낸 용사가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아니한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되어진다.
- (5) 이 작은 성읍은 미스바 총회에 대표자를 참석시키지도 않고 군대도 파송시키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가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다.
- (6)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행위로(눅 11:23) 징벌을 받게 된다(렘 48:10).

8. **㉠** 길르앗 야베스를 심판할 때 특별히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한 이유를 설명하라 (11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 뿐 아니라 '남자와 더불어 잔 여자' 곧 기혼 여자를 죽인 것은 그들이 전 남편에 대해 미련을 가져 죽은 자의 원수를 갚으려는 일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2) 뿐만 아니라 기혼녀들은 그들의 남편이나 자식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죄를 범했던 것 같다.
- (3) 만일 그렇다면 결혼한 여자도 남자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 (4)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전쟁이나 사회 변란이 일어날 때 기혼녀를 죽이는 관습이 일반적이었다(참조, 민 31:17).

9. **㉠**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과 화해한 사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13-15절)

- Ⓐ (1)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4백 명의 여자를 아내로 주었다.
- (2) 그러나 여자가 아직도 2백 명이나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고심하게 되었다.
- (3)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 깊은 형제애를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 준다.
- (4) 성도들도 항상 약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도와 주는 생활에 힘써야 한다(참조, 롬 12:10-13).

10. Ⓢ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꺾이 나게 하셨음이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여기서 ‘꺾’ (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레츠>는 ‘분열’, ‘갈라진 틈’이라는 뜻을 지닌다.
- (2) 따라서 이 구절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틈이 나게 하셨다’가 된다.
- (3) 공동 번역도 이와 유사하게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다’라고 번역했으며 RSV와 KJV도 ‘주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틈이 나게하셨다’(the Lord had made a breach in the tribe of Israel)라고 번역하였다.
- (4) 그러므로 본절의 원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간에 거리감이 생겼던 과거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뿐만 아니라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베냐민의 당시 상황이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였던 사실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11. Ⓢ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서 부족한 2백 명의 여자는 어떻게 보충되었는가? (16-24절)

- Ⓐ (1) 베냐민의 부족한 아내 2백 명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계책(計策)을 마련하였다.
- (2) 그 계책이란 베냐민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절기 때에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여 자기 자기의 아내를 삼도록 하는 것이었다.
- (3)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모든 것은 계속 불합리(不合理)한 행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4) 즉 베냐민 자손의 죄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전쟁을 유발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을 단절시킬 위기를 초래했던 것이 아닌가!
- (5)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를 극복하려는 방책 역시 납치극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야기시켰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곳에는 계속 부조화와 불합리가 있게 되고 여기에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어야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 (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그릇된 행동으로 엉크러진 모든 부조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피흘림의 제물이 되어 주신 평화의 왕이시다(참조, 엠2:13, 14; 히9:22).

12. Ⓢ ‘실로’는 어디에 위치한 성읍인가? (19절)

- Ⓐ (1) 실로는 베엘 북편 16km 그리고 르보나 남편 약 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2) 한편 당시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음이 본절을 통해서 입증된다.
- (3) 따라서 20:13, 18, 26 그리고 본장 2절 등에 나오는 베엘은 결코 당시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다.
- (4) 물론 20:23에 기록된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베엘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쟁 중에 임시로 언약궤를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13. Ⓢ ‘여호와와의 절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19절)

- Ⓐ (1) 신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3가지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다.
 (2) 히브리어 <하그>를 번역한 본절의 '절기' 라는 말은 주로 이 주기적인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3) 본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는 이 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왜냐하면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이 끝날 때에 베풀어지는 절기였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이 초막절에는 올리브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모여서 춤을 추는 특별한 무도(舞蹈) 행사가 있었다.
 (6) 이 무도 행사는 주로 밤에 거행되었다.
 (7)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은 춤추는 여자들을 쉽게 납치하여 데려갈 수 있었다(23절).
 (8) 만일 이 무도회가 낮에 거행되었다면 도저히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납치한 여자들을 데려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9)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을 유괴하다가 잡힌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출 21:16; 신 24:7).

14. ⓐ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무엇인가? (25절)

- Ⓐ (1)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이다.
 (2) 이 귀절은 사사기의 요절로서 사사기 전체에 걸쳐 네 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씀이다(17:6; 18:1; 19:1).
 (3) 이 말씀은 당시 사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각기 소견(所見)대로 행함으로써 '자율주의'에 떨어졌던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4) 특별히 17-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던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세대라면 어느 세대든지 필연적으로 당하게 될 몰락의 과정을 보여 준다.
 (5) 이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다(1:21-36; 2:11-15, 20-23).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오래 참음심을 인하여 범죄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다.
 (7)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섭리는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며 주제이기도 하다(사 1:18; 행 17:30, 31; 롬 3:23; 엡 2:8-10; 벧후 3:9).

본장의 요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23절).

